佛事 전념 20年
불교미술전시관
사찰불사의 모든 것
책임 상담해 드립니다.
☎ 02)733-4800

현대불교

'98 자양강장제 부문 고객만족도 1위
원비-디®

회장:노대행/발행인 겸 편집인:김광삼/논설고문:고은/인쇄인:김규석/등록번호:다-3379/㉾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대표전화:737-8881/편집국:722-4162 FAX:737-0698/광고국:732-1522/구독신청:737-0090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3년(서기 1999년) 12월 15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제 250 호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

스님들의 권위주의

스님과 권위주의. 도저히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말이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불자들은 거의 없다.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불자들도 많다. 스님이라는 위치가 마치 무슨 큰 벼슬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이다. 기자가 만난 모든 불자들은 한결같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치듯 자신들이 경험했던 스님들의 권위의식을 털어놓았다.

그 유형도 다양하다. 불자들이 첫손가락으로 꼽는 것은 '마구 부려먹기식'이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든 아니든 간에 무조건 시키고 본다. '나는 스님이니 일은 당연히 너희들이 해야 한다'는 태도다. '무조건 반말형'도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위로는 오직 부처님뿐 '스님 위에 사람없다'는 식의 그야말로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 주의다.

스님이 벼슬 아닌데…
하심해야 존경받아

소견을 말하거나 질문을 잘못했다가는 아예 면전에서 호통(?)을 듣는 일도 다반사다. 어떤 불자는 "불성이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했다가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기도나 잘해!"라는 대답과 함께 면박을 당했다고 한다. 800~1000만원대를 호가하는 카메라 외에도 오디오, 컴퓨터 등도 최고급만을 고집하는 스님들도 많다. '내 위치에 적어도 이 정도는 써야 한다'는 의식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나이 많은 노보살에게 억지로 삼배를 시킨다든지, 무엇을 받을 때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 등은 거론하기 민망할 정도로 다반사가 되었다.

물론 모든 스님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잡아함경〉에 "마땅히 달처럼 부드럽게 살고, 처음으로 승려된 이처럼 수줍어하고, 겸손하며 마음을 단속하고, 태도를 바르고 조심스럽게 하라"는 말씀이 있다. '하심(下心)', 권위는 그렇게 낮은 곳에 있다. 진정한 권위는 자신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존경해 세워주는 것이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신행수기 공모 18일 마감

알림 교계뉴스 매일 속보제공
인터넷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자들 "조계종 개혁" 촉구

재가연대, 사찰재정 공개등 5개항 건의

서명운동-토론회-입법청원 등 계획도

재가불자들이 조계종의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52개 재가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불교바로세우기 재가연대의 박광서 임완숙 공동대표와 김종서 조홍식 고문, 강행원 류종민 지도위원은 9일 총무원장 정대스님을 예방하고 △사찰 재정운영의 투명화 △재가불자들의 종단운영 참여 △신도교육과 조직, 포교사업에 각별한 관심 △불교의 자주권 확립 △교역직 종무원 윤리강령 제정을 촉구하는 5개항의 건의서를 전달했다.

지난 3월 창립 이후 개최한 여러 차례의 토론회와 이메일로 들어온 의견을 취합해 5개항의 건의서를 작성한 재가연대는 이후 서명운동과 토론회를 통해 사찰 운영의 투명화와 재가불자의 종단운영 참여 요구를 확산시키는 한편 이와 관련된 입법청원을 계획하고 있다.

재가연대는 사찰 재정공개와 관련, "지난 98년과 99년의 종단 사태를 '스님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둘러싼 다툼'으로 보는 시각이 광배하다"고 지적하고 "사찰 재정을 둘러싼 문제가 투명하게 해결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가연대는 또 "재가불자들의 대표조직과 재가 전문인들이 종단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를 열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종단운영을 도모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사찰재정 공개에 대해 정대스님은 "앞으로 사찰의 재정을 공개하지 않으면 불교가 설 방이 없다. 이것이 원칙이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독신으로 사는 스님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재정공개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재가불자의 종단운영 참여에 대해서도 정대스님은 "종국에는 신도들이 종회에도 들어와야 한다"며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대스님은 또 "94년 개혁 때 (종회에) 들어왔어야 했다"며 "자꾸 운동하면 이해하는 스님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가연대는 사면과 관련, "승단의 계율과 종헌·종법, 기율의 재정 등 원칙을 분명히 세우는 입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재가연대는 또 "종단의 입법 사법 행정을 담당하고 계신 스님들이 준수해야 할 청규(윤리강령)를 제정하여 승가공동체 내의 최소한의 기율, 윤리, 행동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 주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조계종개혁 5개항 건의
- 사찰재정 투명화
- 재가자 종단운영 참여
- 신도 교육·조직화
- 불교자주권 확립
- 소임자 윤리강령 제정



감은사 금동사리함 공개 신라인의 불심과 예술정신, 과학기술로 빚어낸 금동사리함이 지난 96년 4월 감은사 동탑에서 발견, 3년 7개월만에 복원돼 공개됐다. 외함 겉면에 양각된 사천왕상은 생동감이 넘친다. 〈관련기사 7면〉

재정분과위 성원미달
조계종 예산 심의못해

조계종중앙종회 재정분과위원회(위원장 지멈)는 6일 불기 2544(2000)년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을 심의하려 했으나 위원 13명 가운데 6명만 참석, 의사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열지 못했다. 다음 회의 일정도 정하지 못했다. 이로써 올해 안에 조계종의 새해 예산이 확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본지 249호 3면 기사참조〉

정성운 기자

내년 3·1절 온겨레 손잡기 펼친다

불교등 7개종교 주축…북한 참여 협의중

'화해와 평화를 향한 온겨레 손잡기 운동'(상임공동본부장 정대 조계종총무원장)이 내년 3월 1일 서울 남산을 비롯해 전국에서 펼쳐진다.

불교와 개신교 천주교 등 종교단체와 전교조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서울YMCA 등은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겨레손잡기 운동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손잡기 행사는 내년 3월 1일 오후3시 서울 남산의 팔각정을 중심으로 남한은 대전·대구·목포·부산·남원, 북한은 판문점과 평양·신의주 구간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운동본부는 북한의 참여를 위해 현재 협의를 진행중이며, 10~18일 북한을 방문하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명예회장 김동은 신부가 북한의 조선종교인협의회 장재언회장에게 참여를 당부할 예정이다.

운동본부는 이후 서울 부산 등에 지역사무국을 개설하는 한편 교민이 거주하는 해외 주요도시의 참여도 섭외, 국내외의 1백50만명의 인원이 손잡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운동본부에는 현재 7개 종교단체와 23개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정성운 기자

불(佛)

관(觀)과 현(現)자를 형상화한 것으로 현대불교는 2000년 창해 이 심볼을 새천년 불국토 건설 의 의미로 사용한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새천년 불국토 건설'의 심볼로 사용
본사 새해 1년동안, 재미화가 문범강씨 작품

'불국토 건설'을 새 천년의 화두로 삼은 현대불교는, 그 해답을 '자기를 바로 보는 일'에서 찾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집약한 '팔정도'나 보살의 길을 제시한 '육바라밀'의 실천도 '자기를 바로 보는 일'에서 출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은둔적 이미지나 종권 다툼 또는 사회적 무관심을 질타하는 불자들은 많습니다. 사실 그런 식의 비판은 불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의 도리로 그러한 상황을 성찰하는 불자들은 드뭅니다. 그래서 현대불교는 조금은 선언적으로 말합니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몸소 그 길을 열어 보이셨습니다. 사실상 새 천년의 대안은 2500년 전 보리수 아래에서 이미 마련이 된 것입니다. 현대불교의 제안은 바로 그 길을 따르자는 것입니다.

이에 현대불교는 2000년의 지면 제작 방향을 '자기를 바로 봅시다'로 삼고 그 구체적 방법을 지면에 담을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문범강 ※ 이 심볼을 만든 문범강 씨는 이곳 화단에서 활성된 한 중견작가 조각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작품 사진은 본래의 크기이고 현대불교 독자들의 신청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새천년 인재를 찾습니다

새 천년을 맞는 현대불교가 젊은 인재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를 사시로 내건 현대불교는 지난 5년여 동안 새 천년을 불국토로 장엄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준비를 해 왔습니다.

'불국토 건설'이라는 공동선의 구현에 적극 참여하면서 '자기 완성'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현대불교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일터가 될 것입니다.

모집 부문·전형 절차

모집부문	구분	인원	전형절차	응시자격
취재기자	신입	약간명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취재기자에 한함) 면접	① 불교신자 ② 남자 72년 1월1일 여자 73년 1월1일 이후 출생 ③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2000년 2월 졸업 예정자(병역 주특기는 전문해후 이상 복무근무 고졸이상) 군필자 병역필 또는 면제
영업직 (광고·심리상)	신입 경력	약간명		
구독관리	신입	약간명		
도서판매 (학생 배치이동)	신입 경력	약간명		

응시요령

1. 원서접수 (1) 기간: 1999년 12월 15~22일
   (2) 접수방법: 인터넷, 우편, 방문
   (3) 제출처: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관리부(우 110-170)
   인터넷 주소: http://www.buddhapia.co.kr
2. 제출서류: 자필 이력서, 자기 소개서, 최종학교 졸업·성적증명서(인터넷 접수자는 면접시 제출), 경력증명서
3. 1차 합격자 개별통보(문의전화: 02-737-8881)

현대불교신문사

· CELLULOSE FIBER SPONGE · CELLULOSE FIBER SPONGE ·

GREEN SPONGE 환경을 생각하는 주부님들의 벗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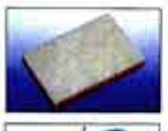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주방일.
잘 닦이고 위생적인 GREEN SPONGE가 해결합니다.
환경오염이 걱정없는 GREEN SPONGE!
주방의 역사를 바꿉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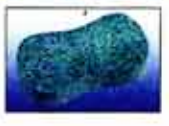
그린 셀룰로즈파이버 스폰지의 특성
- 환경오염을 막아줍니다.
  쓰고 버린 후에도 100% 분해되므로 환경오염의 걱정이 없습니다.
- 흡수력이 뛰어납니다.
  강한 흡수력이 물이나 오물 등을 빠르게 흡수하여 흠집을 남기지 않습니다.
- 위생적입니다.
  물에 살아 소독할 수 있으며 건조가 빨라 여름철에도 위생적입니다.
- 부드럽고 탄력이 뛰어납니다.
  부드러운 감촉과 뛰어난 탄력성으로 구석구석 잘 닦입니다.
- 적은 양의 세제로도 충분합니다
  천연펄프를 사용한 부드러운 재질로써 소량의 세제로도 충분한 거품이 생깁니다.

- 다양하고 경제적인 생활용품소비자들이 원하는 모든 제품들이 한곳에 모였습니다.
- 구입하실 땐 만족을, 다쓰고 버릴 땐 흐뭇함을 느껴보십시오. 신뢰를 바탕으로 우수한 양질의 제품만을 선보이겠습니다.


그린 스폰지 GT-001(사각형)
규격 85×135mm
용도 식기, 유리그릇, 냉장고, 조리기구, 자동차 등 세척시
특성 뛰어난 흡수력과 밀착력으로 잘 닦이며 살아 사용할 수 있어 위생적입니다


그린 스폰지 GT-002(타원형)
규격 90×120mm
용도 식기, 조리기구, 싱크대, 코팅제품 등 세척시
특성 부드럽고 흡수력이 뛰어나 오래 사용해도 위생적입니다


그린 수세미 GT-003(사각형)
규격 75×115mm
용도 식기, 유리그릇, 냉장고 및 그밖의 물기 제거시
특성 천연스폰지와 수세미의 이중구조로 흡수력, 밀착력이 뛰어납니다 잘 닦이고 건조가 빨라 위생적입니다


그린 목욕 스폰지 GT-004
용도 목욕시
특성 부드럽고 탄력이 좋아 어른뿐만 아니라 아기 목욕시에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린 화장 스폰지 GT-005
용도 화장시
특성 부드럽고 밀착성이 뛰어나 화장이 잘 먹습니다


그린 붕 스폰지 GT-006
용도 좁은 유리잔, 물통, 아기 우유병 등 세척시
특성 편리한 손잡이와 뛰어난 흡수력으로 구석구석 잘 닦입니다


그린 거품 스폰지 GT-007
용도 식기, 조리기구, 유리그릇 등 세척시
특성 세제를 담을 수 있는 손잡이가 있어 사용이 편리하며 스폰지와 압축되는 부분에 작은 구멍이 있어 적당량의 세제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린 압착 스폰지 GT-008
용도 자동차, 주방기구, 유리 등 세척시 아기 및 성인 목욕시
특성 약간의 물기만 닿아도 점점 커지고 원하는 내용, 색상 인쇄가 가능해 판촉물로 적당하며 부드럽고 거품이 잘 일어 세제가 절약됩니다

GREEN TEX는 환경만족, 고객만족을 약속합니다. 저희 그린텍스는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해 환경을 만족시키며 품질향상에 매진하여 고객을 만족시킬 것입니다. 21세기 환경을 이끌어가는 기업! 저희 그린텍스의 미래입니다.

주식회사 그린텍스 GREEN TEX. CO., LTD.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1동 628-14 정호빌딩 2층 TEL:02-3409-2235(代) FAX:02-3409-2236
■공 장: 경북 안동시 풍산읍 괴정리 202번지 (풍산농공단지) TEL:0571-858-5661(代) FAX:0571-859-3639

GREEN TEX · GREEN TEX · GREEN TEX · GREEN TEX · GREEN TEX · GREEN TEX · 어떤 형태나 크기의 스폰지도 가능합니다 · GREEN TEX · GREEN TEX · GREEN TEX · GREEN TEX · GREEN TEX · GREEN TEX ·

사 설

전사법 개정안 통과 '환영'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사찰환경, 수행환경을 보호할 하나의 안전판이 마련되었다. 그동안 꾸준히 이를 요구해 왔던 불교계로서는 물론이거니와, 민족문화의 중요한 요람인 사찰환경이 보호되게 되었다는 점에서 온 국민이 함께 환영해야 할 일이다.

본지에서도 여러차례 천명한 바 있거니와, 사찰환경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던 건축법 8조4항의 폐지는 미래에 대한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본말을 전도한 입법이었다. 개발논리와 개인소유권의 보호라는 명분으로 민족의 재산인 문화재의 보고이며, 불교계의 보호로 그나마 온전하게 남아있는 자연환경인 사찰환경을 파괴하려 한 것은 문화의 시대, 환경의 시대를 예고하는 현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었다. 이제 뒤늦게나마 그 보완책이 마련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러한 입법이 한때의 선심성 정책에 그치지 않고, 문화와 환경을 중시하는 국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앞으로도 이런 문제와 관련된 불교계의 요구를 단순히 특정 종교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으로 치부하지 말고, 불교계가 전통문화를 보호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인정하고 그 역할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불교계는 불교계대로 이번에 개정된 전통사찰보존법이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선 힘을 기울여야 한다. 우선 하루 빨리 이 법이 건축법 시행령에 반영되게 해야 할 것이며, 중요한 사찰환경을 빠짐없이 지역의 조례에 의해 보존구역으로 지정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조례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건축허가시 반드시 해당 사찰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며,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빠짐없이 참석해 사찰의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그동안 법이나 제도를 등한시하거나 잘 알지 못해 종종 피해를 당해왔던 불교계의 병폐가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범 종단적으로 주도면밀한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교계의 움직임이 특정종교의 이익만을 꾀한다는 비난이 일지 않도록, 사찰 지역을 포함한 지역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유대를 바탕으로 하여, 사찰환경의 보호가 불교계 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 온 국민의 공감대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문화운동, 환경운동 등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이 특히 중요한 것은 불교계 스스로가 사찰환경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무분별한 개발에 편승한 사례도 있었고, 불교라는 것에만 너무 집착하여 국민의 정서와 부합하지 못하는 폐쇄적인 사찰환경 유지 정책을 펴 왔던 점도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진정으로 사찰환경을 온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여, 그 보호에 불교계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으로는 사찰이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환경과 복지 문제에 앞장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승단이 청정한 수행자의 공동체상을 보임으로써, 불교계에 대한 존중과 보호가 지역사회, 나아가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 온 국민이 사찰환경이야말로 자신들이 지닌 가장 중요한 보배로 느끼게 할 때 진정한 사찰 환경의 보호는 이루어진다. 이번의 입법은 그러한 일을 불교계가 이룩할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이어야 한다.

'불자장교 횡령했다'
허위사실 유포 빈번

김소장 선고 앞두고
돌연 공소장 변경신청

"진급하려면 계종을"
뼈있는 농담 나돌아

군법당 건립외면
취임환영법회 사양
마지못해 몸사리기

軍 불자지휘관 수난시대 '국민의 정부' 말 뿐인가

국민의정부가 들어서면서 불자 지휘관들의 수난이 계속되고 있다.

김태복 소장 사건의 여파로 군 불자 지휘관들이 군법당 건립에 관여하지 않는 것은 물론 취임환영법회 등을 사양하는 등 군 지휘관들의 몸 사리기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심지어 군법당 기공식을 최근에 마친 모 훈련소에서는 부대장이 불자에서 개신교인으로 바뀌자 법당 장소를 옮겨야겠다는 발언까지 하는 등 군불교가 극도로 위축되고 있다.

10월27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의 2심 심리가 종결되어 오는 21일 오후 4시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는 김태복 소장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뇌물)위반등 사건'에 대해 육군고등검찰부가 최근 변론재개와 공소장변경허가를 재판부에 신청, 재판 사상 유례가 없는 6회에 걸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이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28사단 소속 김 모 중령과 이 모 준위는 OO부대 전 연대장 한승민 대령을 대상으로 한 '석림사 군법당 증축 및 일주문 건립비 횡령'에 관한 군사법기관의 조사 결과 '무혐의'로 밝혀졌음에도 불구, 상급기관에 재차 이를 보고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군내 종교편향사건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종교편향대책위원회 위원장 현진스님(조계종 포교부장)은 9일 포교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태복 소장 재판의 관할관인 국방부장관은 지휘책임을 통감해 변호인단이 제기한 군검찰의 증거조작, 증인 회유 등과 무려 6차례에 걸친 공소장 변경 그리고 군검찰의 '조직 이기주의'의 문제점에 대해 진상조사와 진실규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현진스님은 이날 '시주금 재판' 문제제기자로서 편향된 종교관을 가진 황 모 대령(개신교 신도)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김 소장에 대한 조속한 선고공판을 요구하고, 문화관광부 이승규 종무관과 국방부 군종실장을 잇달아 면담한 뒤 '군검찰의 문제점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을 요청하는 공문을 국방부장관에게 보냈다.

한편 '군법당 석림사 증축 및 일주문 건립불사 추진위원회'(위원장 용일·일흥사 주지)는 최근 군 당국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28사단 김 모 중령 등은 전 연대장 한승민 대령이 석림사 증축과 일주문 건립불사에 희사된 2천~3천만원을 횡령하고 인근 모 사찰 주지스님과 사창가에서 외도행각을 하였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상급부대에 보고해 불교 비방과 군불자 모함에 나서고 있다"며 "사건을 조작해 군기를 문란케 하고 있는 김 중령 등을 철저히 조사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성남 약사사 주지 혜안스님은 "장성 진급을 눈 앞에 둔, 타종교 활동도 공평하게 지원한 전임 부대장을 모함하는 개신교 장교들은 조직적으로 불자 지휘관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의혹이 든다"면서 "김영삼 정권이래 자행된 군내 종교편향적 인사 등으로 장성이 되려면 개신교로 개종해야 한다는 소문까지 공공연히 들린다"고 말했다.

'평등한 종교정책을 시행하겠다'던 국민의정부가 들어서면서 불자 장병에 대한 종교편향 사건이 줄어드는 대신 불자 지휘관을 통한 보이지 않는 종교탄압은 더욱 늘어나고 있어 불교계 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포교대상 시상-포교인의 밤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은 4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포교대상 시상 및 포교인의 밤' 행사를 거행했다.

이날 전법선언문 낭독, 사진으로 본 포교 40년 등 식전행사에 이어 진행된 포교대상 시상식은 포교원장 정련, 총무원장 정대스님의 인사말·격려사에 이어 대상수상자인 금산사 주지 도영스님의 인사말,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무용단의 축가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포교인의 밤 행사는 가수 김태곤씨(포교대상 원력상 수상)의 축가와 불교출판협의회(회장 원택)의 사찰 및 신행단체 불교도서관 건립을 위한 불교도서 기증식, 포교사단(단장 김기병)의 종립학교 청소년 장학금 전달식, 원심회 수화공연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김재경 기자

'한국불교사회복지 총람' 나왔다

교계운영 복지시설·단체 자세히 소개

교계의 복지현황과 기초자료를 처음으로 집대성, 교계 복지정보자료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한국불교사회복지총람〉이 발간됐다.

조계종 불교사회복지정보지원센터가 14일 펴낸 총람은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시설·기관, 단체, 사찰, 복지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6개월간 현황실태를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구성됐으며, 총 1천3백20쪽의 방대한 분량이다.

이에 따라 복지정보의 효율적·효과적 서비스를 상호 확대하고, 불교적 특성을 살린 복지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전문인력의 육성, 서비스 수요자를 위한 실천체계 확립 및 긴밀한 정보공유를 통한 불교복지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금까지 조사되지 않았던 각 종단 사찰의 복지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교계의 사회복지 관련 법인, 학교, 각 기관·시설 등에 종사하는 과장급 이상 종사자의 신상정보를 담은 인명현황을 수록함으로써 사찰간·종사자간 네트웍 구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총람은 개요·기초조사 결과보고·불교사회복지현황·사찰별 복지활동 현황·종사자 인명현황·기획논집·부록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불교사회복지현황에는 사회복지법인·재(사)단법인·복지단체·아동·청소년·장애인·부랑인·여성·노인·근로·장의복지시설 등과 종합사회복지관·상담기관·자원봉사기관·사회체육시설·연구기관 등 모두 3백91개 시설 및 단체에 대한 개요 및 설립목적, 시설현황 및 주요사업 등이 상세히 수록돼 있다.

기획논집에는 불교복지 전문가 5인의 관련논문이 실려 있으며, 부록에는 학위 및 일반논문 등의 불교사회복지 자료목록과 시도별 주소록, 불교사회복지사업 관계법령 등을 싣고 색인목록도 추가해 사용자들의 편의도 돕고 있다. 한명우 기자

정대스님 KCRP회장직 제의 '사양'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이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회장직을 제의받았으나 고사했다.

정대스님은 2일 KCRP 변진흥 사무처장(인천가톨릭대 교수)으로부터 전임 고산스님에 이어 회장직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더 훌륭한 분들이 맡아야 한다"며 거절했다. 이에 따라 변 사무처장은 한차례 더 요청하고, 그때도 고사할 경우 회장단과 상의해 다른 분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대스님은 11월 24일 KCRP 고문인 김동완목사의 같은 제의에 대해서도 고사한 적이 있다. 정성운 기자

사 령

命 일본지사장
최현규
1999년 12월 1일자

해인승가대 퇴방학인 편입학 제재하기로

조계종교육원, 강원에 시달

조계종 교육원은 9일 면학풍토 훼손, 사미와 학인 신분을 망각한 행동 등으로 11월7일자로 해인승가대학에서 퇴방 조치된 학인들에 대한 편입학 제재조치를 담은 지침을 전국 강원에 시달했다. 교육원이 강원 학인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시달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기본교육 정상화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번 공문은 12월 3, 9일 교무회의 결의로 전 해인승가대학 사교반 학인(17명)의 타 승가대학 편입학을 제재하고, 승가대학령 제29조(수업일수), 제37조(편입학 시기), 제39조(전학)에 의거해 99학년도 사교반 및 2000학년도 대교반 편입을 불허하며, 99학년도 사집반 및 2000학년도 사교반 편입에 한해 승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교육원은 총무원 호법부와 함께 연말까지 사미의제 착용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미착용 예비승에 대한 구족계 수지 자격 제한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김재경 기자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 人事말씀 ■

大韓佛教 曹溪宗 元老이신 **東谷堂 日陀 大宗師의 永訣式**을 佛紀 2543年 12月 5日(陰 10月 28日) 宗正猊下께서 친히 참석하신 자리에서 敎團의 元老·大德스님과 在家佛子 그리고 各界 四部大衆을 모시고 宗團의 元老會議葬으로 嚴肅히 奉行하였습니다.
公私간 多忙하심에도 不拘하시고 參席해 주신데 대하여 일일이 찾아 뵙고 人事드림이 도리인줄 아오나, 慌忙中 우선 紙面으로 심심한 感謝의 人事를 드리오니 널리 諒解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四十九齋 안내 ■

東谷堂 日陀 大宗師 四十九齋를 다음과 같이 奉行하오니 두루 參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장 소	일 시	전화번호
1재	은해사	12월 5일(음 10.28) 사시	(0563)335-3318
2재	해인사 지족암	12월 12일(음 11. 5) 사시	(0599)932-7302
3재	통도사	12월 19일(음 11.12) 사시	(0523)382-7182
4재	수덕사	12월 26일(음 11.19) 사시	(0458)337-6613
5재	송광사	새해 1월 2일(음 11.26) 사시	(0661)755-0107
6재	약천사	1월 9일(음 12. 3) 사시	(064)738-5000
7재	해인사	1월 16일(음 12.10) 사시	(0599)931-1001

⊙문 의 : 경북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은해사 중무소
☎ (0563)335-3318~9 / FAX (0563)335-0293

佛紀 2543年 12月 7日

東谷堂 日陀 大宗師 元老會議葬 葬儀委員會

葬儀委員長 탄 성　　護 喪 도 견　　指導委員長 정 대
執行委員長 법 타　　門中代表 화 산　　門 徒 一 同　　합 장

조계종 두 신도회 통합 논의

총재 정대스님 "실무위 구성 통합하라"

중신회 · 전신회, 화합 당위성엔 공감

조계종의 양대 신도단체인 중앙신도회와 전국신도회의 통합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보인다. 양대 신도회의 당연직 총재인 총무원장 정대스님이 통합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두 신도회 간부들 역시 통합의 당위성에 대해 공감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대스님이 6일 신임인사차 예방한 전국신도회 선진규 회장 등 회장단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불자들은 조계종 신도회가 둘로 갈라져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통합 실무위원회를 만들어 두 신도회가 뜻을 합쳐 화합에 나서달라"고 말한 것이 이같은 기대감을 더하게 하고 있다. 정대스님은 "통합을 하더라도 한쪽을 소외시켜서는 안된다. 1년씩 번갈아가며 회장을 맡는 공동회장제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선진규 회장은 "나 자신이 회장을 못하더라도 통합에 반대하지 않는다. 사단법인 전국신도회의 명칭을 유지하고, 신도회의 자율성과 민주성이 보장된다면 언제든지 통합에 나서겠다"며 찬성의 뜻을 표했다.

중앙신도회 임동현 기획실장도 "전국신도회가 통합 논의를 요청해 오면 언제든지 실무위원회를 꾸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총무원 주도의 통합논의는 반대한다. 신도회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내용성을 갖고 민주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통합 신도회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감투 싸움이 재연되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한 실무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통합논의는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위성에는 이의가 없을지라도 정관 개정 등 실무적인 부분을 놓고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전총무원장 고산스님도 올해 초 신도회 통합을 요청했으나, 전국신도회의 사단법인 해체를 전제조건으로 달아 전국신도회가 선뜻 나서지 못했던 것처럼, 상호간의 적절한 양보도 필요하다.

양 신도회가 통합을 이룬다면 명실상부하게 신도의 대표단체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특히 신도회의 힘이 커질 경우 종단의 분열을 예방할 수 있고, 불교의 외호세력으로서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특히 '머리만 있고 몸과 발이 없는 신도회'란 오명을 벗을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스님 떠나신 빈자리 너무 큽니다"

일타스님 가시던 날

2만여 사부대중 애도속 다비식 엄수

유언따라 법구엔 금란가사만 덮어

한국불교 선, 교, 율의 큰 봉우리 동곡당 일타(東谷堂 日陀) 대종사가 헌옷마저 태워버리고 원적에 들었다.

5일 오전11시 은해사에서 엄수된 영결식은 다섯 번 울린 멍종의 여운이 팔공산에 맴도는 가운데 시작됐다. 청혼독경과 지관스님의 행장소개에 이어 육성녹음 청취, 은해사합창단의 조가가 경내에 울려퍼지자 사부대중의 흐느낌이 일기 시작했다.

원로회의 의장 탄성스님은 부의장 종산스님이 대독한 영결사에서 "스님은 계율정신을 계승하며 종단의 각종 제도를 정립하는데 정신적 토대가 되셨다"며 "평소의 대비원력으로 어서 속히 저희들 곁에 빛으로 돌아오시어 환도중생(還度衆生)하소서"라고 추모했으며, 종정 혜암스님은 "칠십일년간을 덧없는 꿈속에 놀다가 인연이 다하여 몸을 버렸으니 버린 후엔 어떤 곳을 향하는고? 향할 것도 갈 것도 머물 것도 없도다.(七十一年一場夢 臨終如今放四大 棄却後向甚麼處 無向無去亦無住)"라고 법어를 내렸다.

또한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스님의 본분가풍에는 오고감이 없지만 미망의 뜻을 다 떨치지 못한 후학들에게는 스님이 떠나신 빈자리가 너무도 크다"며 애도했다.

이어 문도 문중 종단 신도 내빈 대표의 헌화와 헌향이 끝나자 스님의 법구는 인로왕번, 오방번 등 5백여장의 만장이 인도하는 가운데 경내를 한바퀴 돌아 산내 다비장으로 향했다. 유언에 따라 스님의 법구에는 꽃 대신 스님이 수하던 금란 가사 한 벌만이 소탁하게 덮여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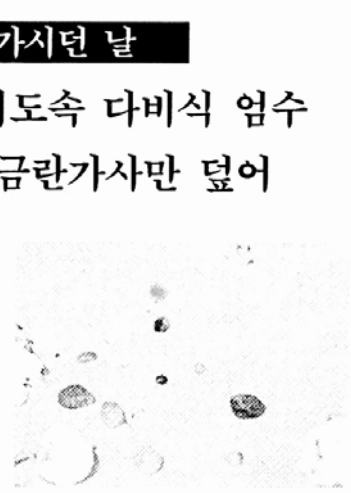
연화대에 불을 당기는 거화(擧火)의식이 진행됐다. "큰스님, 집에 불났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여러 번의 외침에 이어 연화대에 불길이 당겨졌고, 잿빛 연기가 하늘로 치솟자 불자들의 나무아미타불 정근이 길게 이어졌다.

일찍이 "몸뚱아리는 뜬구름과 같아 어디선가 왔다가 어디론가 가버리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며 오른손 네손가락 열두 마디를 연비 발원했던 스님의 나머지 육신마저 허공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었다.

이날 영결식에는 종정 혜암스님을 비롯 청하 성수 숭산 보성 지종 법전 도견 등 원로대덕스님들과 스님의 속가제자인 이인제 前경기도지사, 서석재 국회정각회장 등 사부대중 2만여명이 운집했다.

한편 일타스님 문도들은 이날 "實言告餞諸弟子等 波亂月難現 室深燈更光 勸君整心器 勿傾甘露漿=진실한 말로 내 그대들에게 전별을 고하노라. 파도가 심하면 달이 나타나기 어렵고 방이 그윽하면 등불이 더욱 빛나도다. 그대들에게 마음 닦기를 간절히 권하노니 감로장을 기울어지게 하지 말지니라"라는 스님의 유교(遺敎)를 공개했다.

한편 일타스님 장의위원회는 6일 다비한 일타스님의 유골에서 영롱한 사리 30여과를 수습했다. 은해사=이윤호 기자



◇일타스님 유골에서 영롱한 빛을 발하는 30여과의 사리가 수습됐다.



◇동곡당 일타 대종사 영결식이 5일 은해사에서 2만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정대스님은 조사를 통해 "미망을 떨치지 못한 후학들에게는 스님이 떠나신 빈자리가 너무나 크다"며 애도의 뜻을 표했다.
은해사=고영배 기자

영결사<요지>

"빛으로 돌아와 환도중생 하소서"



탄성스님
원로회의 의장

일타스님이시여! 그 거추장스럽던 육신을 벗어던지니 이 순간 얼마나 후련하십니까? 일단영광 독로(一段靈光 獨露, 신령스런 빛으로 드러나니) 하여 생사거래에 매이지 않으시니 그 또한 얼마나 상쾌하십니까?

범승으로는 감히 엄두조차 내기 어려운 연비로써 수행자의 치열한 면모를 보여주시어 후학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종단이 어려웠던 시절, 스님의 높은 학문(學問)은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제도적으로 혼란하던 시기에 스님께서는 계율정신을 계승하며, 종단의 각종 제도를 정립하는 데 정신적 토대가 되셨습니다.

금생이 다 하면 "다음 생에는 미국땅에 태어나 고등학교를 마치고 한국에서 수행한 후 세계인을 제도하겠다" 하신 발원 따라 미국땅에서 입적하셨군요. 우리 곁에 늘 계시리라 믿었던 스님께서 가시니 더욱 그리워 집니다. 스님의 자상하시고 고구정녕하신 말씀을 이제 들을 수 없습니다.

일타스님이시여! 스님께서는 평소 선사로서 정진하시다가도 종단과 중생의 어려운 일을 보면 일어나 분연히 바른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우리 종단과 불교계는 아직도 많은 어려움과 할 일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평소의 대비원력으로 어서 속히 저희들 곁에 빛으로 돌아오시어 환도중생(還度衆生)하소서! 부디 돌아오소서. 불기 2543년 12월 5일

◇일타스님 49재 장소 및 일자

재	장소	일자	문의
초재	은해사	12월5일(음10/28)	(0563)335-3318
2재	해인사 지족암	12월12일(음11/4)	(0599)932-7302
3재	통도사	12월19일(음11/12)	(0523)382-7182
4재	수덕사	12월26일(음11/19)	(0458)337-6613
5재	송광사	1월2일(음11/26)	(0661)755-0107
6재	제주도 약천사	1월9일(음12/3)	(064)738-5000
7재	해인사	1월16일(음12/10)	(0599)931-1001

일타스님 가르침 불서로 남아

큰스님 가신 빈 자리에 그 가르침은 더욱 크다. 계정혜 삼학에 통달한 스님은 이제 가르침을 담은 책으로서 우리 곁에 온화한 모습, 부드러운 음성으로 머물러 계신다.

92년 뜻하지 않게 찾아온 병마(간경화)를 지리산 칠불암에서의 용맹정진으로 다스린 이후부터 책으로써 불자들을 제접했다. 〈기도〉 〈생활속의 기도법〉 〈윤회와 인과응보 이야기〉등 신행안내서와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 등 법어집, 경전 · 어록풀이집인 〈시작하는 마음〉 〈보살의 마음 중생의 마음〉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등 10여 종에 이른다. 특히 〈기도〉 〈생활 속의 기도법〉 등의 책은 불교계의 스테디셀러로 자리잡았으며, 기복에 치우쳤던 신행풍토를 바로잡고 3천배 등 기도정진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했다. 이외에도 일타스님은 76년 해인총림의 율사로 있을 때 후학들을 위해 〈사미율의〉 〈불교와 계율〉 〈범망경보살계〉 등 계율과 관련된 책을 펴냈다.

목어

'인사동'에 상 주는 이유

21세기는 무엇이 주된 흐름으로 이어질까.

먼저 정보화일 것이다.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화의 첨병이 발달되는 세상이고 보면 기필 정보화를 통한 일대 변혁이 일어날 것이다. 생명복제의 문제도 핫 이슈로 떠 오르지 않을까 싶다. 그리곤 환경문제다. 앞의 두가지 문제도 궁극적으로는 환경적인 변화를 필연적으로 수반해야 하는 인위적인 번동이기 때문이다. 환경에 대한 관심은 인류가 후세에 남겨줄 악성적 유산을 방지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중요성에 비추어 우리들의 인식 수준은 대단히 미흡하거나 무관심에 가깝다. 지금 미래의 환경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일부 시민이나 단체들도 이를 구현해 나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이견을 갖고 있다. 흔히 머리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치거나 현수막을 거는 등의 행동표현으로 이어지는 것을 본다. 이런 운동을 익숙하게 보고 지낸 우리들에게 퍽 감동적인 사건이 하나 있다. '인사동 골목길'에 상을 준 환경운동모임이 그것이다. '풀꽃세상'이란 이름의 이 모임은 환경보존과 환경친화적인 운동을 감성적으로 도입하고 이성적으로 실천하는 자생적 모임이다. 일년에 네번 상을 주는데 첫번째는 동강의 비오리에게, 두번째는 보길도의 조약돌에게, 세번째는 민둥산의 억새풀에게 주었고 이번에는 인사동 골목길이 본상에 선정되었다. 이런 상의 선정이 감성적이라고 오해되어질 수도 있지만 그 본상을 가꾸기 위해 노력했던 분께 부상을 드리는 것으로 자연보호와 친화적 실천을 이성적으로 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우리들은 이 상을 왜 인사동 골목길에 주는가 하는 깊은 속내를 읽을줄 알아야 한다. 그 속내를 실천하는 풀씨들이 넓고 깊게 그리고 멀리 번져나갈 때 환경의 문제는 실천적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사랑과 연민, 부드러움과 신뢰, 타자에 대한 친절과 존중, 세계에 대한 책임있는 태도, 생명에 대한 외경, 북돋움'등을 잔잔히 실천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풀꽃세상모임의 아름다움이 누구에게나 오래도록 간직되기를 바란다.

이근후(이화의대 교수 · 본지 논설위원)

감로사 삼천불 삼천배 참회기도회관 건립모연문



삼천배참회기도회관 조감도
지하1층, 지상 4층(연건평 1,264평)

설 계 감 리 : 삼경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 : 하규양

귀의 삼보하옵고

당 감로사에서는 삼천불 삼천배 참회기도회관 신축을 수십년전부터 발원하여 오다가 이제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감로사는 6 · 25 동란을 당하여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청담 운허 자운 향곡 성철 홍경 벽안 석암 영암 월하 보경 일타 보안 지관 스님 등 제방의 큰스님들께서 감로사에 모여 숙의한 끝에 『중생의 업장이 지중 하여 이런 고난을 당하니 국난을 퇴치하는 길은 부처님께 참회기도 정진 뿐』 이라하시며 대중적으로 감로사에서 참회기도를 시작하여 금년으로 48회째 삼천배 참회기도를 하여 소원성불을 받았습니다.

감로사는 정화불사 이후 국내 처음으로 삼천불전을 건립하여 삼천부처님을 봉안하고 한해도 거르지 않고 삼천배 참회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많은 신도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삼천배 참회기도 회관이 없기에 회관건립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설판제자도 없고 시주자도 없지만 많은 사부대중께서 회관건립에 동참해 주시면 불사가 원만히 성취됩니다.

이 인연공덕으로 가정은 더욱 평안하고 국가는 더욱 부강하여 남북통일이 이루어져 평화가 오고 온 세계가 불국정토 되기를 기원하면서 감히 권선합니다.

불기 2543년 12월
감로사 주지 혜 총

참회기도회관 건립불사 동참구좌
조흥은행 : 409-01-156143
부산은행 : 048-12-060082-7
(예금주 : 감로사회관건립)

삼천불 삼천배 참회기도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감 로 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2동 33번지
☎(051) 809-0926, 803-0188

부처님 가르침 배우고 한글 깨우칠분 오세요

진각종 LA심인당 어린이 한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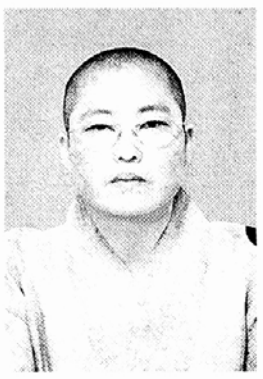
지난 98년 시작된 미국 LA 진각종 불광심인당(주교 의정)의 한글학교가 한글교육은 물론 불교포교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처음에는 6명으로 시작해 현재 40여명의 어린이가 한글교육을 받고있는데 미국에서 태어나 한글을 전혀 모르는 현지교포 자녀들에게 한글뿐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도 전한다.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열리는 불광심인당 한글학교는 LA에 있는 수백개의 한글학교 중 유일하게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한글학교라 불자교포들의 큰 환영을 얻고 있다. 대다수가 기독교 계통에서 하기 때문에 그동안 불자들도 자녀들의 한글교육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간 사람들도 많기 때문이다. 의정정사는 "한글학교를 더욱 활성화시켜 한글학교 출신으로 불교어린이회도 만들 예정"이라고 밝힌다.

이경숙 기자(gslee@buddhapia.com)

'한국 비구니사' 편찬하는 본각스님

"1600년 비구니 행적 밝힐터"



"〈한국 비구니사〉를 편찬함으로써 불교의 한국 전래 이후 역사속에 명멸해 간 비구니 큰스님들의 자취를 모아 선대의 고승전과 같이 현재의 수행자들과 미래의 불자들을 위한 지침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승가대에 재학중인 29명의 제자들과 함께 교계 최초로 〈한국 비구니사〉 편찬을 준비중인 비구니사편찬위원회 책임위원 본각스님(중앙승가대 불교학과 교수)은 "철저한 수행으로 이타의 삶을 실천한 비구니 스님들을 발굴해 후세에 비구니 수행상을 전하고 새 천년 불법 홍포의 밑거름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비구니 스님들의 자료가 거의 없는 현실을 생각할 때 '비구니사' 편찬은 누군가가 꼭 해야 할 일"이라는 본각 스님은 "1600여년간 청정승가의 가풍을 온전히 계승해 온 비구니 승가의 행적은 윤리관의 혼돈으로 흔들리는 현 시대를 맑히고 새 천년을 청정국토로 만드는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의 〈장로니게〉, 중국의 〈비구니전〉, 일본의 〈조동종 비구니사〉 등 일부 불교국가에서 비구니사를 부분적으로 다룬 책은 있어도 한 나라의 전체 비구니사를 아우르는 작업은 이번이 처음. 우리나라에서는 도서출판 여래에서 발간된 단행본 〈깨달음의 꽃-한국불교를 빛낸 근세 비구니〉(하춘생 저)가 근·현대 비구니 17명의 삶과 가르침을 조명한 유일한 서적이다.

본각스님은 삼국시대부터 현재 생존하는 비구니 스님들까지 불교사적인 시각에서 조명, 현대인들의 취향에 맞게 학술적인 가치를 지니면서도 소설적, 교훈적 내용으로 편집해 불교입문자는 물론 일반인들도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집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행과 대중교화 및 가람수호 등 각 분야에서 모범이 되고 후대에 사표가 될 수 있는 비구니 스님들을 추천받고, 각종 문헌에서 비구니 스님들의 행적을 조사해 6개월 이내에 집필 작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특히 이중 엄선된 3백여명의 비구니스님들은 '한국 여성지도자 명감 편찬위원회'에서 추진중인 〈한국 여성지도자 명감〉에 수록을 의뢰할 예정이다.

"부처님 재세시부터 불교 교단의 일부로 불교사의 한 부분을 차지해 온 비구니 스님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시점이 되었다"는 본각스님은 교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편찬위 사무실=(02)927-1627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교차로

명성·동대부중고 수계법호



녹원 동국학원 이사장은 15일 오후 2시 동국대 중강당에서 명성여중·고, 동대부중·고 재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합동수계대법회를 봉행한다.

경승실 직원 연수



정련 대한불교 경승단장(조계종 포교원장)은 4, 5일 동국대에서 경승실 직원연수를 실시했다.

예비역군법사단 회장에



성광 화계사 주지는 3일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열린 예비역군법사단 정기총회에서 제8대 회장에 연임됐다.

취운향당 공장 이전

능혜 취운향당(翠雲香堂) 대표 스님은 20일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 845번지로 공장을 이전한다. 7억여원을 들여 지난 7월15일 착공, 오는 15일 완공될 예정인 새 공장은 대지 9백평 연건평 5백평에 월 3만통의 향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0544)933-6647

'전문·지식인회의' 공동대표



김용운 한양대 명예교수(본지 논설위원)는 정치 경제 노동 과학 의료 문화 등 각계 전문가 5백50여명이 결성한 '개혁과 대안을 위한 전문·지식인회의'의 공동대표를 맡아 7일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창립대회를 가졌다.

'후원의밤' 행사 열어



조찬형 국민회의 연동회 부회장은 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불교TV 전무에 임명



윤소년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회장은 6일 불교TV(사장 효강) 전무로 발령받았다.

'스포츠 법' 주제 학술회의



연기영 동국대 법과대학장은 스포츠법 연구센터 개원기념으로 17일 동국대 학술문화관 세미나실에서 '스포츠의 법적 환경과 제문제'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표창·훈장회원 축하법회



김덕수 (사)대한생활불교회 이사장은 12일 대전 생활불교회관 청우사 법당에서 회원인 정성욱 금성백조 회장의 대통령표창 및 생산성경영자대상 동탑산업훈장 수상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또 19일 오전 10시 이시찬(국민훈장 석류장)씨 등 8인의 수상기념법회를 거행한다.

'평화의 성지' 룸비니 순례



곽영훈 환경그룹 회장(하버드대 상임연구교수)은 '세계평화의 근원지이며 전세계 불교도 및 평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순례센터'로서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UN조사단 단장 자격으로 9일부터 2주일간 네팔 룸비니를 방문한다.

독거노인·소년가장에 김장 전달

애락심 진각종 밀각심인당 성동지부장은 6일 성동구관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김장을 담그기 어려운 주위 이웃들에게 김장 60박스(400포기)를 전달했다.

조계종 사서실장 혜완스님



혜완스님(금산 보석사 주지·사진)은 11월 29일 조계종 총무원장 사서실장에 임명됐다. 혜안스님(동화사 사회국장)과 범해스님(울산 해남사 주지)은 7일 총무원 기획국장과 문화국장에 각각 임명됐다.

인 사

불교사진연합회 △회장=이병윤 △부회장=전제우 하호숙 △감사=이인숙 임항수 △총무=이장원 △재무=조현숙 △사업=강승규 △홍보=정선영 △섭외=양정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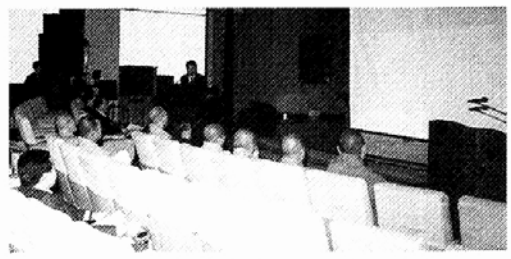
김영두 전 고대교수 별세

1963년 고려대학교 불교학생회 창립을 도왔고 82년 정년퇴직 때까지 줄곧 지도교수로 있으면서 청년불교 활동을 이끌어 왔던 김영두 전 고려대 정경대학장이 8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4세. 김 전 정경대학장은 63년 고대 불교학생회 창립과 더불어 발족한 대불련 지도법사로도 오랫동안 활동했다. (02)3410-6908



장수 용성조사당·생가 복원 기공

용성스님 탄생지인 장수군 번암면 죽림리에 위치한 죽림정사(주지 도문)는 6일, 108평 규모의 용성조사당 및 31평 규모의 생가복원을 위한 건립 기공식을 가졌다. 용성스님 탄생성지 성역화사업 추진위원회(회장 유종혁)가 주최하고 용성조사유훈실현위원회(회장 한수승행)가 후원한 이날 법회에는 도문스님 김상두 장수군수를 비롯한 사부대중 3백여명이 자리했다. 용성조사당과 생가는 내년 8월 준공될 예정이다.



불교인터넷텔레비전 개국법회

불교인터넷텔레비전(대표 임동민) 개국 기념법회가 7일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봉행됐다. 홍파 관음종총무원장, 원택 조계종총무부장, 지성 태고종총무부장, 서돈각 불교진흥원이사장, 효강 불교TV사장, 합종한 한나라당불자회장 등 각계 인사들 축하속에서 진행된 이날 법회에서 승산스님은 영상법어를 통해 "인터넷 영상포교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경찰청 불자회 수계법회

경찰청불자회는 9일 경찰청 법당에서 경승실장 자우스님(금강사 주지)을 계사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45명의 불자 경찰과 여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수계법회는 삼귀의, 반야심경, 계사 청, 개도, 참회, 연비, 수계, 계첩수여, 정근, 발원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자우스님은 "수계공덕으로 이웃에 자비를 베풀고 지혜로써 마음을 일으켜 사랑이 충만한 삶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전력 반야회·문수회 합동법회

한국전력 월성원자력발전소 반야회(회장 최영배)와 울진원자력발전소 문수회(회장 김흥수)는 5일 반야회 자체법당인 반야선원에서 합동법회를 봉행했다. 80여 명의 불자회원과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기념법회, 상견례, 신행담 소개, 선물교환 등으로 진행됐다.

정기종회 소집 공고

본종 종헌 25조 5항 및
8장 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종회를 소집합니다.

■안 건

1. 1999년 세입·세출 결산건
2. 2000년 세입·세출 승인건
3. 종헌·종법 개정건

■일시 : 1999년 12월 27일 12시
■장소 : 무량종 총무원(종로구 홍지동)

종회의장 혜안 (정동식)

총본산 개원식

본종 총본산(지리산 칠보정사)
개원식을 아래와 같이 봉행 하오니
무루 동참바랍니다.

■ 일시 : 2000년 1월 18일
(음 1999년 12월 12일) 12시
■ 장소 : 경남 하동군 적량면
서리 150번지
■ 문의 : 0595-883-7771(칠보정사)
02-3216-1600(무량종 총무원)

총무원장 지은 합장

대 한 불 교 무 량 종

해인율원 제 23기 학인모집 공고

해인총림율원은 불법의 생명이고 출가자의 근본인 계율을 연찬하며 수행하는 전문교육기관입니다. 부처님의 혜명을 계승하고 청정 승단을 올곧게 지켜나갈 발심과 원력을 가진 비구 스님들의 입학을 바랍니다.

교 과 목
· 1년차 - 사문율 및 광율의 비교, 청정도론, 불교문화사
· 2년차 - 범망경 및 대승불교의 계율사상, 선원청규, 조계종 종헌 종법.

입 학 일 시
2000년 3월4일 (음력 1월 29일)

응 시 자 격
기본교육기관 (강원, 중앙승가대, 동국대불교학부) 졸업자, 또는 선방 하안거 이상 성만한 비구.

제 출 서 류
1. 입학원서 (본원소정양식) 1통
2. 승적사본 1통
3. 졸업증명서 1통
4. 주민등록등본 1통
5. 은사 및 강주스님 추천서 1통
6. 건강진단서 1통
7. 자기소개서 및 서약서 각1통
8. 사진(4×5) 5매
9. 본인도장

원서교부 및 접수
1999년 12월 13일 - 2000년 2월 24일
(음력11월 6일 - 1월 20일)

전 형 일 시
2000년 2월 24일 (음력 1월22일)
오후 1시 해인총림율원

전 형 방 법
서류심사 및 면접

문 의 전 화
0599-931-1004(율원), 931-1015 (율원장)

678-895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제 12교구 해인사 해인총림 율원장 혜능

분규의 고통과 불교문화 성숙 '두 얼굴'

본지선정 '99 교계 10대뉴스

올 한 해 불교계는 조계종 총무원장이 사회법에 의해 중도 하야하고 폭력사태로 이어진 고질적인 분규재연으로 불자들과 국민들을 실망케 했지만 새로운 세기를 앞두고 도약을 준비한 한 해 이기도 했다.

불교계 대표들의 잇단 방북으로 통일의 물꼬를 텄으며, 불교인터넷TV가 개국되고 각 종단의 전산화가 가속화 되는 등 인터넷 시대의 포교를 위한 준비가 착실하게 진행되었다. 세계 최초의 비구니율원인 금강율원이 개원되고, 세계최대의 불교종합 대백과사전인 〈가산불교 대사림〉이 첫 선을 보여 승가의 저력을 확인시켜 주기도 했다. 또한 생명나눔실천회와 현대불교신문의 장기기증 및 화장서약 캠페인은 교계의 생명운동에 새 바람을 불어넣었다.

하지만 불교TV의 파산 위기, 군법당 건립 시주금의 뇌물적용 사건, 잇단 성보문화재의 도난은 희망의 세기를 태동하려는 불교계의 마지막 산고가 되었다.

이제 불교계는 이러한 아픔을 잘 추스려 새로운 세기, 청정불국토의 건설을 다짐하고 있다. 본지는 올해 일어난 여러 뉴스 중 10가지를 선정해 한해의 명암을 되돌아 보며, 불국토 건설의 서원을 다시금 확인해 본다. 〈편집자 주〉

조계종 분규악몽 재연

10월 1, 2일 서울지법 민사합의 42재판부가 정화회의측이 제기한 총무원장직 부존재 소송과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고, 총무원장 직무대행으로 도견스님을 지명하면서 조계종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큰 혼란에 빠졌다. 조계종은 11월 15일 총무원장선거를 치러 정대스님을 새 총무원장으로 뽑음으로써 사태를 진정시켰다. 그러나 사태 와중에 고산스님이 총무원장 취임 9개월만에 물러났으며, 조계사 성역화 사업, 종교간 협력 등이 차질을 빚게 됐다. 폭력사태가 발생해 또다시 국민들을 실망케 했다.



성보도난 올해도 여전

올해는 유독 비지정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성보 드난이 많았다. 조계종 총무원이 〈불교문화재 도난 백서〉를 발간해 성보 도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것도 이런 연유에서였다. 문화재청이 99년도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한 해동안 경북 영주 흑석사 목아미타불좌상(국보 제228호)등 9건 15점의 성보문화재가 도난당했다.

84년부터 99년 6월까지 유실된 성보를 조사한 〈백서〉는 비지정문화재 보호를 위한 종법제정과 문화재보호법 개정, 종단 차원의 방책등을 제시했다.



세계최초 비구니 율원

세계 최초의 비구니 율원인 금강율원(율원장 묘엄)이 1기 율원생 6명이 입학한 가운데 6월21일 봉녕사 청운당에서 개원했다. 한국 비구니계의 위상을 한차원 높인 결과로 평가되는 금강율원은 율장의 전문적 연구, 습의와 예참의 올바른 전승, 율학을 전승할 율사 양성 등을 목표로 2년간의 전문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금강율원의 개원은 비구니를 차별하던 기존의 관행을 깨는 계기가 되고 비구니계의 위상강화에 일조할 것이란 기대감을 주고 있다.



가산불교대사림 출간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스님)의 〈가산불교대사림(伽山佛敎大辭林)〉은 국내외 15만 항목의 불교 술어를 결집하는 대불사로 1월 1, 2권이 출간됐다. '일반불교 및 한국불교 술어의 최초 결집'으로 평가받고 있는 〈가산불교대사림〉은 기존의 불교사전보다 한국불교항목 30%를 새롭게 추가한 불교종합 대백과사전. 한자어·산스크리트어·팔리어·티벳어 등 원어로 명기해 복잡어휘 활용도 강화. 종교·역사·철학·문헌학 등 한국학 관련 연구자들의 필독서다. 매년 2~3권씩 15권으로 완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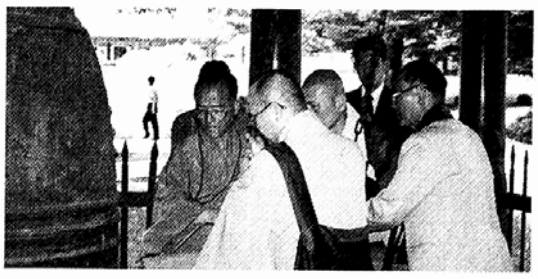
파산 위기의 불교TV

97년 IMF가 터지면서 경영난에 봉착한 불교TV가 99년으로 접어들면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신규 프로그램 제작 중단, 급여지급 불능 등 파행운영이 가속되면서 총파업 직장폐쇄로 파산위기에 처했다. 지난 1월 신허대표이사 체제로 가면서 경영정상화를 기할 인물영입에 나섰으나, 회암스님 직무대행체제에 이은 5월 허문도씨 대표이사 선임과 해임 등 진통만 심화될뿐 성과를 보지 못했다. 재정난을 풀고 경영의 묘를 살릴 인물영입이 최대의 관건으로 남아있다.



불교계 대표단 첫방북

범종단 대북창구 민족화합불교추진위 대표단이 처음으로 방북했으며 이에따라 진각종, 평불협이 방북하는등 대북교류에 획기적인 한획을 그었다. 특히 종단협 차원의 금강산 순례단 1천1백여 불자가 6월3일 신계사터에서 법회를 개최하고, 진각종의 경우도 9월18일 종단대표가 방북하는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올해의 성과로 내년 종단협차원의 대표단방북, 남북불교 학술회의개최, 통일토론회 개최, 조계종총무원장 정대스님 방북 등이 가시화되어 향후 남북불교교류에 발전적인 전망을 기대케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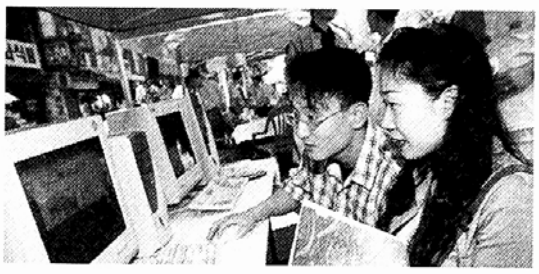
군법당 시주 뇌물판정

현역 불자 장성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재판에 회부되어 군불교의 위축을 우려케 한 김태복 소장 사건은 군법당 건립을 위해 불자나 일반인이 낸 시주금을 뇌물로 간주했다는 점에서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다. 김태복소장 재판과 관련 군재판부는 5월26일 '시주금도 뇌물'이라고 판결, 김소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종교편향대책위는 9일 '군검찰의 문제점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을 요구했다. 김소장사건은 군포교에 파장을 미쳐 군법당 건립외면등 군불교의 심각한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종무행정 전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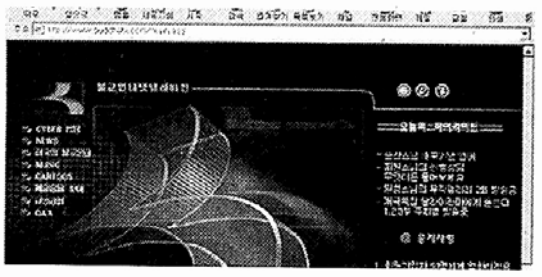
99년은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총지종 등 대표 종단들이 '디지털 종단행정' 시대를 연 원년이었다. 조계종은 교계 처음으로 포털사이트(Portal Site)인 '달마넷'을 개설하고, 종무행정 뿐만 아니라 사부대중의 정보화 시대를 열었다. 태고종은 종단과 사찰, 단체들에 대한 각종 자료와 문화재 현황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는 '한국불교태고종 통합정보시스템망'을 구축하고 있다. 천태종과 진각종, 총지종 역시 각각 종단 홈페이지를 개설, 전자포교에 나서는 등 체계적인 종무행정 전산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불교 인터넷TV 개국

인터넷 상에서 TV처럼 실감나는 동영상과 오디오로 뉴스 드라마 다큐물 등 종합프로그램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TV방송이 잇달아 개국했다.

11월30일 한마음선원(원장 대행)의 한마음방송국(HBTV/www.hanmaum.org)에 이어 12월1일 불교인터넷텔레비전(BIT/www.buddhatv.com)이 본격적인 방송서비스에 나섰다. 불교인터넷TV는 사이버 공간에서 불교정보를 제공하고 신행생활을 비롯한 포교 교육활동까지 폭넓은 역할을 하는 영상포교의 총아로 기대되고 있다.



장기기증·화장 확산

장기기증 및 화장유언 캠페인은 올해에만 2,468명이 장기기증에 서약, 94년에 비해 5배,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나는 성과를 기록했다. 또 지난해부터 시작된 화장유언도 올해 6,243명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장기기증 및 장묘문화 개선에 대한 불자들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백양사 등 많은 사찰들이 납골당을 설치했거나 준비하는가 하면, 화장을 장려하는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이 13일 국회를 통과해 사찰에 [illegible] 전망이다.



2000만 불자와 함께, 국민과 더불어 열린 새천년을

불자화합의 대축제

제4대 회장취임 및 국민화합을 위한 대법회

■ 일시 : 1999년 12월 17일 13:00 ~ 16:00 ■ 장소 : 올림픽공원 제2체육관(펜싱경기장)

우리 불교는 부처님이 주신 삼보(三寶)의 힘으로 호국하고, 국민에겐 정신적인 양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급변하는 환경은 모든 방면에 경쟁적 가치를 요구하고 있어, 불교에 있어서도 과거의 이념과 실행방법의 새로운 조화, 시대상황의 선도라는 과제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불자님들은 건전하고 진실한 종교생활은 물론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고 사회적 갈등을 어루만지는 등의 소금과 같은 역할이 주어졌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처님의 큰 뜻을 받들고 실행하는데 미력하나마 한불총의 65개단체의 120만 회원님들과 더불어 혼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런 과제를 중심으로 불자님들의 신행활동을 요약하자면

재가불자님들의 신행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교단을 외호
청년불교화
지역갈등 해소(사회적 갈등 극복운동)
남북교류 및 문화의 동질화 추구
사회봉사 확대
불자 및 불교문화의 국제교류 증진(열린 신행활동)

등을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 주요행사

◆ 식전행사 : 입장, 식전행사 · 길닦기 공연
◆ 1부(본행사) : 취임식 · 법요식
◆ 2부(축하공연) : 영상, opening show, 가요/국악, 폐회, 뒷풀이

※ 한불총 사회봉사단 출범선언
소년소녀가장돕기 자선행사 알림
※ 출연자 - 송대관, 김성녀, 김흥국, 김하정, 김태곤, 보현스님, 머루와 다래
사회 - 김종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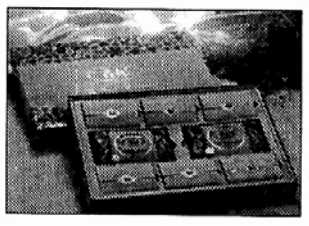
문의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98-1 홍익빌딩 502호
전화 02)734-5221~4 / FAX 02)734-5224

사단법인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항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악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33세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 · 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괴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는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패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랍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개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 영 희)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모든 공덕 일체중생에 남김없이

이렇게 들었다 — 마무리

99년 한해가 저물어 간다. 정신없이 바쁘게만 뛰어온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이제 새로운 날을 준비해야 할 때다. 부처님 말씀대로라면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가 모두 다 하나로 연결돼 있어 그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올 한해 자신이 이루려 했던 다짐들이 모두 결실을 맺었는지 혹 잘못되거나 미흡한 것은 없는지 스스로 살피고, 보다 알찬 내일의 삶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 한사람 한사람의 반성과 회향은 다시 개인은 물론이요, 우리사회를 일으키는 힘이 될 것이다. 또한 이는 불자로서의 삶을 다시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편집자 주〉

▨회향한다는 것은 처음에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중생을 수순하는 것까지의 모든 공덕을 진법계 허공계 일체 중생에게 남김없이 돌려야 한다. 〈화엄경〉

▨시시각각 움직여서 밤과 낮이 잠깐 사이에 흘러가고, 하루 하루 흘러서 보름과 한달이 번개처럼 가버리며, 한달한달 지나가서 홀연히 일년이 다가오고, 일년일년 흘러서 잠깐 사이에 죽음이 찾아온다. 〈발심수행장〉

▨나쁜 버릇이 조금도 없고, 악(惡)의 뿌리를 뽑아 버린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마치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 버리듯이. 〈숫타니파타〉

▨참으로 제행은 무상하여 생멸(生滅)을 본질로 하는 것이다. 생한 것은 또한 멸하니 그것을 쉼이야말로 안락이구나. 〈대반열반경〉

▨삼매를 닦아 생각을 빛내라. 그러면 생각은 밝게 나타난다. 그러면 늙음과 죽음의 모습이 참되게 보이고 모든 법의 덧없음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느니라. 〈잡아함경〉

▨설사 저 허공을 땅으로 만들고 땅을 허공으로 만들 수 있다해도 이미 뿌려놓은 인연의 씨앗은 썩어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나니 인연이 무르익는 날에는 그 결과를 반드시 받아야 하리. 〈증일아함경〉

▨과거를 따라가지 말고 미래를 기대하지 말라. 한번 지나가 버린 것은 버려진 것 또한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러저러한 현재의 일을 이모저모로 자세히 살펴 흔들리거나 움직임 없이 그것을 잘 알고 익히라. 〈대가전연일야현자경〉

▨중생의 마음을 버릴 것 없이 자기 성품을 더럽히지 말라. 바른 법을 찾는 것이 곧 바르지 못한 일이다. 버리는 것이나 찾는 것이 다같이 더럽힘이다. 본래 천진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첫째 가는 정진이다. 〈선가귀감〉

▨부처님을 믿는 사람, 끝내 다른 천신(天神)을 믿지 말라. 법을 믿는 사람, 남을 해치고 미워하지 말라. 스님들을 믿는 사람, 외도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라. 이렇게 믿고 따르는 사람, 두려움 없으리라. 〈대반열반경〉

▨믿음과 실천이 있는 사람은 거룩한 분의 칭찬을 받고 해탈을 즐겨하는 사람은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느니라. 〈법구비유경〉

▨믿음을 가져야 하고, 깨끗한 계행을 가져야 하며, 법을 자주 들어야 할 것이며, 인색함을 버리고 항상 희사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하고, 지혜로써 법의 깊은 뜻을 살펴야 한다. 〈잡아함경〉

▨스스로 자기 수행하고 법을 널리 전하는 자들이 바로 내 아들이다. 〈증일아함경〉

▨확고히 정진해 마음에 늘 번민하지 않는다면, 온갖 괴로움이 없어지고 구하는 일이 달성될 것이다. 〈방불경〉

▨만약 부지런히 정진하면 일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부지런히 정진하는 바 있어야 할 것이니, 끝없는 정진 앞에는 못 이룰 일이 없는 것이다. 〈유교경〉

▨활을 쏘아 과녁을 잘 맞히는 사람은 그 만큼 노력한 것이니 누구라도 잊지 않고 노력하면 과녁을 잘 맞힐 수 있다. 도를 빨리 얻지 못한다고 한탄하거나 물러서지 말고 부지런히 노력하면 반드시 도를 얻을 수 있느니라. 〈불반니항경〉

열린마당 — 사판승의 역할

불교사(佛敎史)에서 이판(理判)과 사판(事判)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시작됐지만 본격적인 역할분리는 근세부터다. 만암스님은 "수행승은 이판이요, 뒷바라지하고 대중 포교에 전념하는 승려는 사판"이라고 정리했다. 최근 교단내 종권분쟁등 여러 사태를 겪으며 조계종 승려의 80%가 넘는 사판승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특히 사판과 이판의 경계가 모호하고 복지와 포교등 대중교화에 나서는 스님들이 늘면서 사판승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최근 조계종 원로인 숭산스님(화계사 조실)의 "종무행정에 참여하는 것은 중생에게 봉사하기 위함인데 그것을 자기의 이익과 힘을 늘리는 기회로 이용하려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일침은 이런 상황을 뒷받침한다. 〈편집자 주〉

계율에 맞게 소임자 뽑고 업무지원

철우〈파계사 영산율원장〉



율장에는 사판, 이판이란 용어가 없다. 사판이니 이판이니 하는 말 자체가 스님네에게는 맞지 않는 말이다. 소임을 맡아 살면서 사찰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하는 사판을 소임자로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소임자를 선거로 뽑는 일도 없으며 대중이 모여 갈마로 뽑게 돼 있다.

공평하고 소임을 맡을 만한 사람을 대중이 추천하여 전원 찬성의 동의가 있으면 소임자로 뽑아 일을 맡겼다. 부처님께서 라열성의 기사굴산에 계실 때 답파마라라는 비구가 아라한과를 증득하고 대중을 위해 차례에 따라 공양청을 받도록 나누어주고 안내하는 지객 소임을 맡았다.

부처님께서는 담파마라를 보고 제자중에서 성실하고 자세하게 함이 으뜸이라고 칭찬했다. 이 답파마라 비구가 소임을 맡아보는 과정에서 생겨난 불미스러운 일로 소임자에 관한 계율이 제정됐는데, 소임자가 하는 일을 몇몇의 불평이 있는 사람이나 개인이 잘못을 음해하거나 모함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계율이다.

소임을 사는 사람이 소임을 잘 살아 가람이 번창하고 모든 불사가 원만하여 소임을 다했으면 대중으로부터 마땅히 보호받아야 되고, 잘살지 못하여 대중으로부터 외면당하면 승단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결과를 낳기에 소임자의 자격은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절 집안의 위계질서는 상좌 중좌 하좌로 나뉜다. 상좌가 결정을 하면 중좌와 하좌는 화합된 마음으로 상좌의 뜻을 따라야 한다. 그렇다면 요즘에 상·중·하좌가 한자리에 앉아 산중의 어른이나 소임자를 선거로 뽑는 것은 율장정신에 위배되고 그렇게 하면 수시로 하좌들의 반란을 만드는 원인이 되며 화합이란 말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계율로 소임자를 보호해 준다는 것은 소임자가 맡은 일에 충실해야 하고 소임자를 뽑는 대중은 서로서로 소임자를 돕고 보호하는 쌍방의 의무사항이 내포돼 있다.

어느 자리서건 출가본분 잊지 말길

태진〈봉은사 종무행정실장〉



출가자라면 누구나 깨달음을 얻기 위해 사문의 길에 들어선다. 궁극의 목표는 깨달음이니, 순간의 소임이 사판이라 한들 그건 단지 겉모습에 불과할 뿐이다. 도반들의 수행을 돕기 위해 죽비나 경책을 잠시 거두고 돌아가며 소임을 보던 옛 스님들의 지혜와 자비심을 어찌 사판이라 격하하고 폄하시킬 수 있단 말인가.

지금도 결제철이 되면 특히 선방 문고리깨나 잡아본 구참 수좌들은 물론이고 법납이 적은 신참 수좌들조차도 사찰 행정 소임을 보는 선배 출가자들을 눈 내리 깔고 업수이 대하는 일이 다반사이다. 출가자로서 화두에 몰두하거나 경학에 매진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인데 그 어려운 출가의 문턱을 넘어서서 고작 허깨비같은 사판일에 매달리는 게 실없어 보일 듯도 싶다.

그러나 근래 들어 교단이 조직화하고 체계가 잡히면서 사판, 즉 종무행정의 영향력이나 중요성이 오히려 이판의 그것을 능가하고 있다. 숨가쁘게 변해가는 사회 속에서 합리적인 교단 운영과 관리, 더불어 대중 포교는 교단의 발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요즘은 종무행정의 전문화까지 거론되어 대학 교육과정 개설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사판을 경시하는 편협된 시각은 확실히 전근대적이라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어느 자리에 서 있건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화두처럼 품고 사는 출가 정신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그곳이 부처님 회상(會上)이다. 문제는 출가 본분을 잊고 종권 지향적이고 세속화하는 것에 있을 뿐 사판이라는 명분에 있지 않다.

앞으로는 사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리라고 본다. 사판이라는 정체성을 과감히 깨버리고, 당당히 삼보정재 수호와 포교를 화두로 삼아 정진을 멈추지 말아야 할 일이다.

불교발전위해 행정전문승 양성을

황진수〈한성대 교수 · 행정학〉



지난번의 조계사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일반 시민들은 '밥 그릇' 싸움이라고 지칭했다. 비속한 용어인 '밥 그릇'을 관리하는 스님이 사판승이다. 말하자면 행정승인 것이다.

그러나 한국불교 1600여년의 명맥을 이어오게 한 공로자는 사판승이다. 사찰의 건립, 보수 등의 불사, 사찰행정의 체계화, 신도상담, 이판승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대중 공사(公事)를 통한 투명한 행정, 분배의 원칙에 입각한 보시, 대외적인 면에서의 사찰의 대표성과 책임성 등은 모두 사판승의 몫이었다. 사판승은 사찰을 유지 발전시켰고, 이는 한국불교의 발전과 맥을 함께 했다.

그러나 사판승들의 이러한 큰 공로에도 불구하고 그 과(過)가 더 크게 수면위로 부상하여 인구에 회자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삼보정재를 손괴하거나 뒤로 빼돌리는 사판승, 절 주변에 사기꾼들이 맴돌고 있다는 소문과 관련된 사판승 '탐벼슬 보다 못하다는 중벼슬'을 앞세워 사부대중을 대하는 관료적인 사판승, 종권쟁탈전에 가담하여 폭력을 휘두르는 권승지향적 사판승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다시 말하면, 일부 사판승들의 비불교적, 비생산적, 비상식적, 비체계적(4 非)행정이 불교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사판승이 진정한 사판승으로 새로 나기 위해서는 사찰행정의 민주화, 능률화, 과학화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대행정의 기법이 접목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인식과 행동이 바른 방향으로 가야하며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기법이나 첨단기기는 그 용도가 허무할 뿐인 것이다.

사판승의 역할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전문가 사판승을 양성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인사행정, 재무행정, 사찰문화재 행정, 해외포교전문가, 상담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을 많이 양성해야 한다. 둘째, 끊임없는 교육훈련을 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재무, 회계, 감사기법에 대한 지식, 리더십이론, 설법 방법론, 상담의 기법을 위한 교육, 세미나, 연찬회가 끊임없이 열려야 한다. 셋째, 교육훈련을 기초로 한 자격시험제도를 두어야 한다. 일정한 사찰 보직은 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맡도록 해야 한다. 넷째, 사찰재산에 관련된 사항은 외부인사(전문가)를 포함시킨 위원회제도를 두어 위원회에서 투명하게 거쳐야 한다.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이 불교의 요체라 할 때 한국불교 발전을 위한 소신(燒身) 공양적 자세를 견지해 주기를 부탁 드린다.

사찰행정에 매진한 사판승의 법신에서도 사리가 나왔다는 말을 들어야 할 것이다.

삼중스님과 게르마늄 염주

목탁소리

천 미 희 〈부산주재 기자〉

삼중스님이 재소자 등의 교화활동을 더욱 원활히 하기 위해 만든 후원회가 염주 사기판매에 연루돼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다는 보도는 불자들뿐 아니라 일반에도 큰 충격을 몰고 왔다. 사형수의 아버지로 불리며 권회로 옹의 석방에 큰 역할을 했고 권희로 옹의 귀국과 함께 온통 포커스를 받은 삼중스님은 헌신적이고 오랜 교화생활로 인해 불교복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이다. 물론 후원회 측은 염주 공장에서 게르마늄이 함유되었다는 인증서를 받고 모르고 판매했다고 주장하지만 게르마늄의 함유여부를 차치하고라도 염주단가가 터무니없이 비싼 감이 없지 않다. 불자들에게 5천여개가 넘게 판매되었다고 하나 그 판매수익금의 규모와 사용내역 또한 분명치 않아 더욱 의혹을 사고 있다. 현재 경찰에서 조사에 들어갔으므로 모든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좋은 뜻에 동참했던 불자들의 순수한 마음들이 무참히 무너져 생긴 깊은 상처는 빨리 아물것 같지 않다. 삼중스님이란 이름때문에 법회에 동참했고 비디오로 보여지는 모습과 그 돈이 교화사업에 쓰여진다는 말을 믿고 보시하는 마음으로 두세개씩 산 사람들도 많기 때문이다. 소쩍새 마을에 이어 또한번 교계의 복지사업이 세인의 입에 오르내리며 차가운 시선을 받게 되었으니 순수한 자비정신과 헌신으로 열심히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스님이나 불자들은 이 겨울이 더욱 춥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삼중스님도 좋은 결과를 위해 어쩔수 없었다는 요지의 변명을 했지만 삼중스님 후원회의 이번 염주사기판매 연루사건은 결과만 좋으면 불미스러운 과정이 혹 있더라도 괜찮다는 안이하고 경박한 사고를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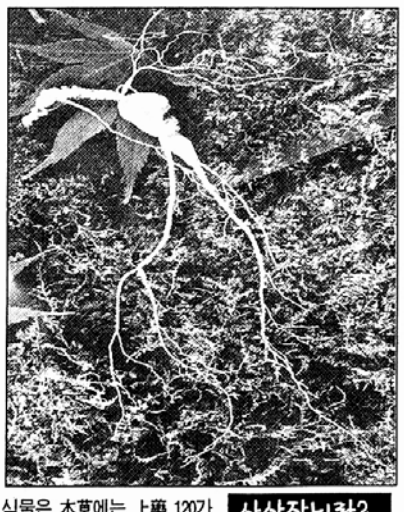
"처음도 참되고 중간도 참되고 나중도 참되라." 초기 대승경전에 나오는 말이다. 불교일, 특히 복지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초발심을 견지하고 처음과 중간 나중이 모두 참되게 하라고 당부한 부처님 말씀을 법매로 삼아 자기를 돌아보고 항상 경책해야 할 것이다.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쳐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150년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 연구협의회
서울「장뇌산삼」사업부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육각성의 비밀

육각성의 신비와 기적적인 체험사례들을 통하여 우주에너지를 실용하시키는 방법,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필독서!

책자무료 본인의 氣를 측정할 수 있는 氣측정 페이퍼 무료우송

1장 ⊙ 신비의 히란야 육각성의 기적
⊙ 자연계를 관장하는 육각형의 수수께끼
⊙ 21세기를 우주파워 실용화시대로
⊙ 누구나 좋은 집터, 조상의 명당자리를 만들 수 있다
2장 ⊙ 육각성의 비밀 - 육각성은 수맥파도 차단한다
⊙ 氣주입법 - 氣주입법의 개발, 원리, 방법
⊙ 천기, 지기, 명기에 대하여
3장 ⊙ 경혈점(인체경혈도) - 인체의 경혈점만 알면 내 몸은 내가 스스로 고칠 수 있고 가정의 건강도 지킬 수 있다.

책자 290쪽 / 값 10,000원 / 우송료 3,000
우체국: 014092-0035728 김건순
※전화를 주시면 당신의 氣와 사상 체질을 체크해 드립니다.

■ 성인병에 대한 최신정보 ■
(고혈압, 당뇨, 위, 장, 간, 신경통)

5분 충전으로 밤새도록 뜨끈뜨끈
수정 온돌 불로방

韓國氣功研究院
(02) 455-6944, 453-5851

혜성(慧性)스님의 법화경 신행기를 읽으시면 난신난해한 법화경에 대한 신심과 이해와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법화경신행기
양약(良藥)을 먹지 않는 지구 촌놈들



구원실성하신 석가모니본불님과 개성불도의 묘법연화경과 우리들 일체 중생과 셋은 전혀 차별이 없는 묘법연화경이라 함이라 따라서 묘법을 떠나 별도로 부처를 찾지 말며, 또한 중생을 떠나 별도로 부처를 구하지 말라.

배부처
⊙ 경남 함안 삼불사 ☎(0552)583-3107
⊙ 부산도서출판 위음왕 ☎(051)804-5714
⊙ 전국불교서점

도서출판 위음왕



◇경북 경주시 양북면 용당리 감은사지 동삼층석탑(국보 제112호)에서 발견된 국내 최소형 풍탁. X-레이 투시촬영으로 과편을 수습하는등 보다 발전한 국립문화재 연구소의 보존과학 기술이 이루어낸 쾌거로 평가된다.

감은사 금동사리함 '세상속으로'

문화재硏, 3년 7개월만에 원형복원

국내 최소형 5mm풍탁 재현

신라 시대의 과학 기술과 불교 예술이 응축된 금동사리함이 원형에 가깝게 복원돼, 불교조각사와 공예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조유전)는 96년 4월 경주 감은사지 동쪽 석탑(국보 제112호)에서 발견된 금동사리함을 3년 7개월만에 복원, 공개했다. 탑을 해체하던 중 탑신 윗면 사리공(舍利孔)에서 발견된 이 사리함은 심하게 파손된 채 흙과 부식층으로 두껍게 덮여 있었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파손돼 분리된 금동사리함의 사천왕상들을 한 면씩 접합하고 뚜껑 부분의 파손된 편들도 접합했다. 또 각 부재들의 위치를 과악한 후 접합했는데, 접합면을 정확히 찾을 수 없는 곳은 그냥 두었다.

이렇게 복원된 금동사리함은 바깥을 감싼 금동제사리외함(金銅製舍利外函, 이하 '외함')과 안쪽의 금동제전각형사리기(金銅製殿閣形舍利器, 이하 '사리기')로 밝혀졌다.

외함의 네 겉면에는 허리가 가늘고 몸을 비트는 등 생동감과 유연성을 강조한 사천왕상이 양각되어 있다. 전각형(殿閣形)의 사리기는 사각연화대좌 위에 연꽃이 조각된 보주형 탑신을 안치하고 있으며, 나한상과 사자상을 비롯한 여러 부재를 장식했다.

이들 유물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사리기 장식물인 금제풍탁(金製風鐸). 풍탁이란 바람부는 대로 흔들리면서 소리를 내는 일종의 풍경. 금동사리함에서는 이런 풍탁 5개가 수습됐다.

그런데 이들 풍탁은 길이가 겨우 5~7mm, 무게는 0.04g 가량에 지나지 않는다. 현미경을 들이대야 관찰할 수 있는 이런 풍탁을 도대체 신라인들은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었을까.

이명희(연구소 보존과학실장) 씨는 "신라인은 이미 1천300년전 현대의 반도체 기술에 버금가는 과학수준에 도달했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또 "외함의 도금막은 두께가 17㎛로 균일한 것으로 나타나 신라의 도금기술이 대단히 뛰어났음을 알아냈다"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미술사적 조사와 정밀 실측 조사, 제작기법 등을 조사한 후 보존처리 내용을 덧붙여 12월 말경 종합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몰 부다피아



◇보리수

'몰 부다피아' '부다월드' '보리수' 등

불교 쇼핑몰 '클릭' 하면 염주 · 향 등 싸게 사요

염주나 향과 같은 불교용품을 선물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구입해야 할까? 이 같은 고민을 하는 불자 네티즌이라면 인터넷으로 직행하는 것이 당연할 듯.

불교용품 사이트를 '클릭'한 것만으로, 다리품을 팔지 않아도 여러 유통업체의 물건을 한 눈에 비교하고 구입할 수 있다.

국내 불교용품 전문 쇼핑몰로는 부다월드, 보리수, 몰 부다피아 등이 있으며, 국외 사이트로는 트라이씨클, 삼발라선 등이 있다. 이들 사이트들은 깔끔한 화면으로 불자 네티즌의 시선을 잡는가 하면, 실제 크기의 영상까지 갖추고 있어, 물건을 고르는 맛도 느낄 수 있게 한다. 물론 가격도 저렴하다.

보리수는 미술용품, 괜시, 장신구, 음반 등이 잘 정리돼 있어 청소년 불자 네티즌들이 즐겨 찾는 사이트다. 그런만큼 신세대 불자들을 위해 게시판을 마련하는 등의 세심한 노력도 아끼지 않는다. 부다월드는 불상, 등, 초등사찰에서 필요로 하는 불구를 주력상품으로 삼고 있다. 상품을 실제 크기로 볼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이트의 자랑이다. 몰 부다피아는 두 사이트를 아우르는 사이버 불교백화점. 법문 테이프에서부터 불교공예품, 괜시용품까지 다양한 상품으로 불자네티즌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불교용품 쇼핑 공간을 제공하는 국외 사이트인 트라이씨클과 삼발라선에서는, T셔츠 등 불교 상징이 그려진 옷을 구매할 수 있으며, 금강저와 같은 티벳불교용품도 살 수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보호지침'을 마련할 뜻을 밝힌 것으로 볼 때, 빠른 시일내에 가상 공간에서의 소비자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보리수 www.borisoo.com
부다월드 www.buddhaworld.co.kr
몰 부다피아 mall.buddhapia.co.kr
트라이씨클 www.tricycle.com
삼발라선 www.shamblasun.com

경주 남산 통일신라 절터 3곳 발견

불교유산 465곳 산재

세계문화유산 지정 '청신호'

신라의 영산인 경주 남산(사적 311호)을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국립 경주문화재연구소는 최근 9개월 동안 남산 보존책을 마련키 위한 유적 조사 결과, 국사골·대골·대마골 등 3곳에서 통일신라시대 절터를 추가로 발견하는 개가를 올렸다고 발표했다.

대골 절터는 축대·석탑부재·건물 기단석이 매몰된 채 발견돼 발굴조사가 계속되면 중요한 단서가 잡힐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용장계곡 입구 절터에서는 석탑 1기를 확인했고, 석불 1기도 새로 발견했다. 2000년 5월 유네스코로부터 세계문화유산 실사를 받기로 돼 있는 상황에서 '세계유산' 지정 가능성에 다가선 좋은 징조들이다.

수리봉을 중심으로 내리뻗은 44개 계곡을 감싸안은 남산. 절터 127곳, 석불 87구, 석탑 71기 등 모두 465곳에 달하는 신라 불교유산이 산재해 세계 최대의 불국토로 꼽히는 곳이다. 이번 발굴은 연구소 직원은 물론 향토사학자 등 20여명이 함께 참가해 100여차례에 걸쳐 산을 오르내린 결과이다. 특히 '남산사랑 시민모임'(김구석 회장), 송재중(신라중 교사), 이근직(경주대 교수), 최민희(계림고 교사)씨 등 민간전문가들은 참여의 수준을 넘어 그간 쌓아온 조사자료를 선뜻 제공했다.

이들 활동에 대해 이은석 학예연구사는 "경주인들의 남산사랑이 아니었다면 현장조사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한다. 연구소측은 또 남산 유적·유물 보존을 위한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석불 87구의 보존상태를 확인하고 머리부분이 없어진 용장골 석불좌상(보물 제187호), 약수골 석불좌상 등 석불 7구도 정밀실측하고 있다. 석탑 부재가 무너진 석탑 7기는 복원작업에 돌입했고, 용장골 모전석탑·국사골 1사지 석탑은 복원을 끝낼 경우 보물지정이 가능할 만큼 상태가 양호하다.

연구소측은 내년 5월까지 '남산 보존·정비 종합보고서' '남산유적도록'을 발간해 구체적인 보존사업의 연도별 계획을 완성할 예정이다.

성철스님사리탑 '환경문화상' 수상

성철스님 사리탑 '선의 공간'이 한국경제신문 주최 제10회 대한민국환경문화상을 수상했다. 환경친화적 구조를 보이면서도, 역동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는 점이 수상 이유. 시상식은 20일 오후 2시 30분 한국경제신문 18층 다산홀.



◇통일신라시대의 '석조인왕상' 호암미술관 소장.



◇신라시대의 '인연문 수막새'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불상서 찾은 한국인의 자화상

호암미술관 '인물로 보는 한국미술전'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불상·초상화등 전시

7,000년 세월 동안 우리의 얼굴은 어떻게 변해왔을까? 또 시대의 전형적인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

호암미술관이 10일부터 2000년 2월 27일까지 80일간 '새 천년 특별기획-인물로 보는 한국미술' 展을 연다. BC 5,000년께 제작된 인면장식 조개로부터 비디오아티스트 백남준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고대·현대 미술작품 201점에 녹아 있는 한국인의 자화상을 찾아보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이번 기획전에는 '신라인의 미소'로 알려진 흥륜사지의 '인면문 수막새'와 본격적인 인물상의 시작이랄 수 있는 불상 28점이 전시돼 주목된다.

불상 가운데 신라시대의 금동관음보살입상(보물 제780호), 고구려시대의 금동보살반가상(국보 제108호), 통일신라시대의 금동관음보살입상(보물 제927호)과 금동여래입상(보물 제779호) 등은, 부처님의 상호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고 표현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 흥미를 더해준다.

이외에도 이번 기획전은 조각 뿐만 아니라 전남 해남의 녹우당 소장 '미인도'가 처음으로 공개되며 김홍도의 '평생도병', 우리 나라 최초로 서양화를 도입한 고희동의 '자화상', 한국의 전통과 소재를 즐겨 그린 박생광의 '무녀' 등 회화도 소개한다.

삼성문화재단 김영희씨는 "인물은 미술사의 주요 소재로, 민족과 시대의 보편적인 미의식을 반영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한국적 미의 세계를 가장 뚜렷이 나타낸 작품들을 엄선했다"고 설명한다. 조각과 회화를 망라한 이번 기획전은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출품작들은 호암미술관 소장품을 비롯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대박물관, 호림미술관, 해강도자박물관 및 개인 소장품을 두루 모은 것이다.

이번 기획전의 조각 작품은 서울 순화동 호암갤러리(02-771-2381), 회화 작품은 태평로 로댕갤러리(02-2259-7781)에서 각각 전시되며, 티켓 1장으로 양쪽 전시를 모두 관람할 수 있다.

2000년 맞이 축하 행사

행사 기간 : 1999년 12월 1일부터 2000년 1월 31일까지
본 행사는 주문 판매에 한합니다

도서출판 황금꽃
전화 02)711-4227,8 / 팩스 02)711-4229
E-mail : oshok@chollian.net

'티벳 死者의 書(Bardo)' 오디오 북 특별 할인 판매

▶ CD(3장) : 정가 50,000원 → 30,000원
▶ TAPE(90분 테잎 2개) : 정가 28,000원 → 18,000원



바르도에 대한 오쇼의 강의 테잎5,000원과 함께 들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바르도는 죽음에서 탄생까지의 중간 상태를 말하며, '중음기(中陰期)', 혹은 '아스트랄(Astral)계' 라고도 한다. 이 바르도 명상은 바르도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갖가지 현상들을 미리 들려 줌으로써 바르도의 과정에서 깨어 있을 수 있게 만들어 준다. 단 한 번 듣는 것만으로도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명상법이다.
단순히 듣는 이 명상법은, '티벳 사자(死者)의 서(書)'를 기초로 하여, 오쇼의 명상에 대한 현시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오쇼 삶과 죽음을 위한 학교'의 비트만(Veetman)에 의해 만들어졌다.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다.

배경 음악 : 친마야(Chinmaya) / 번역 : 최항식 / 목소리 : 장두석



2 2,000명에게 오쇼 타임즈를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선착순 2,000명에게 격월간으로 발행되고 있는 '오쇼 타임즈 한국어판' 2호에서 7호 중에서 1권을 선택하시면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지금 전화 주시요!

▶ 1호 - 제3의 눈(절판) / 2호 - 전생(前生) / 3호 - 최면 / 4호 - 요법과 명상 / 5호 - 관계, 유명한 20가지 요법 / 6호 - 아틀란티스의 비밀 뉴에이지와 명상 / 7호 - 탄트라의 시대가 오고 있다. 삶은 환희이다. 유명한 사람들의 별자리



3 2,000원을 돌려 드립니다

2,000년을 맞아, 전화나 팩스, E-mail로 2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시는 분들에게 2만 원 단위로 2,000원을 돌려 드립니다 (예 : 20,000원 구입시 2,000원, 40,000원 구입시 4,000원...).

▶ **대상** : 도서출판 황금꽃에서 제작된 전 품목(바르도와 다이어리는 품목에서 제외됩니다)
▶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상품 목록이 들어 있는 '황금꽃 소식지'를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4 2000년, 인도 '오쇼 명상 휴양지'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도서출판 황금꽃에서 판매되는 책이나 테잎들을 전화나 팩스, E-mail로, 1회 주문시 3만 원 이상 구입하는 분들 중 매년 4명을 추첨하여 인도 푸나에 있는 '오쇼 명상 휴양지'로 초대합니다.
추첨은 매년 4회(1월, 4월, 7월, 10월 16일)에 걸쳐 실시됩니다.

▶ **1차 추첨일** : 2000년 1월 17일(월), 오후 1시



5 축제를 위한 축제 밀레니엄 송년 파티

천 년의 마지막 토요일 밤을 함께 보낼 독자분들을 초대합니다. 음악과 노래 그리고 춤이 있습니다.

▶ **날짜** : 1999년 12월 25일(토) / 오후 6시 ~ 10시 ▶ **회비** : 2만 원
▶ 미리 예약하십시오

'새로운 2000년'을 예약하십시오

2,000년도 오쇼 다이어리와 캘린더, 아름다운 오쇼의 사진들이 실려 있는 '인도판 오쇼 타임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예약 마감** : 1999년 12월 15일
▶ **판매가** : 4만 원

황금꽃의 책과 테잎들

책

거위는 밖에 앉디	12,000
깨달음으로 가는 일곱 단계	12,500
누구도 죽지 않는다	12,000
제3의 눈을 찾아서	12,000
무심(無心), 그 영원의 꽃들	9,000
오쇼 젠(禪) 타로(Tarot)	37,000
비의(秘儀)의 심리학	8,000

명상 음악(몸/마음을 이완시켜주는 편안한 음악)

CD	사랑하는 이의 정원	13,000
	바쇼의 연못	"
	민명의 붓다들	"
	자유를 즐기는 붓다	"
	장미꽃 향기	"
	신성무(神性舞)	"
TAPE	사랑하는이의 정원	5,000
	바쇼의 연못	"
	민명의 붓다들	"
	자유를 즐기는 붓다	"
	장미꽃 향기	"
	신성무(神性舞)	"
	소나무 그림자	"
	다섯 손가락	"
	흐르는 강물에게 Yes	"
	이것! 대나무가 전하는 말	"
	순간에서 순간	"
	웃고 있는 복돌	"
	직관(直觀)	"
	새벽을 날다	"
	열린 창문	"
	내면의 붓다	"
	구름 지켜보기	"
	피안(彼岸)	"
	사랑은 초대이다	"
	빈잔의 차, 십우도 (90분)	6,000

	본래의 얼굴 (90분)	6,000
	침묵의 꽃들 (")	"

명상법(명상을 직접 하는 데 사용되는 배경음악)

CD	디이나믹(동적) 명상	13,000
	쿤달리니(몸의 떨림) 명상	"
	나다브라마(허밍) 명상	"
	니타라지(춤) 명상	"
	바르도 오디오 북(180분)	50,000
TAPE	디이나믹/쿤달리니 명상	6,000
	구리상카/데바바니/기도 명상	"
	나타라지/나다브라마 명상	"
	만달리(중심)/칠링(회전) 명상	"
	차크라(chakra) 소리 명상	"
	차크라 호흡 명상	"
	일곱 차크라를 위한 소리	"
	황금꽃의 비밀	"
	미스틱 로즈(웃음) 명상	"
	무심(無心) 명상	"
	저녁 사트상(Satsang) 1~7번	각 6,000
	바르도 오디오 북(180분)	28,000
	바르도에 대한 오쇼의 강의	5,000
	비파싸나 명상법(강의)	6,000

특집 비디오 시리즈

1	인도 오쇼코뮨 인터내셔널	20,000
2	디이나믹 명상	14,000
3	떠오르는 달	17,000
4	신성무(神性舞) 공연 실황	20,000
5	신인류에 대한 선언	20,000
6	내 꿈을 그대에게 맡기노라	16,000
7	아침 저녁 명상	20,000

강의 비디오 시리즈

오쇼의 선별된 강의 시리즈 1~16번(각 1시간 20분)	각 20,000

오쇼 타임즈 1년 구독료 10,000

상품화에 밀려 하향 평준화

결산 '99

반성적 시각으로 본 불서출판 현주소

잘 팔린책 대부분 일반출판사 기획물

불서 대중화·질적향상 여전히 숙제

IMF·조계종사태등 교계 출판시장 악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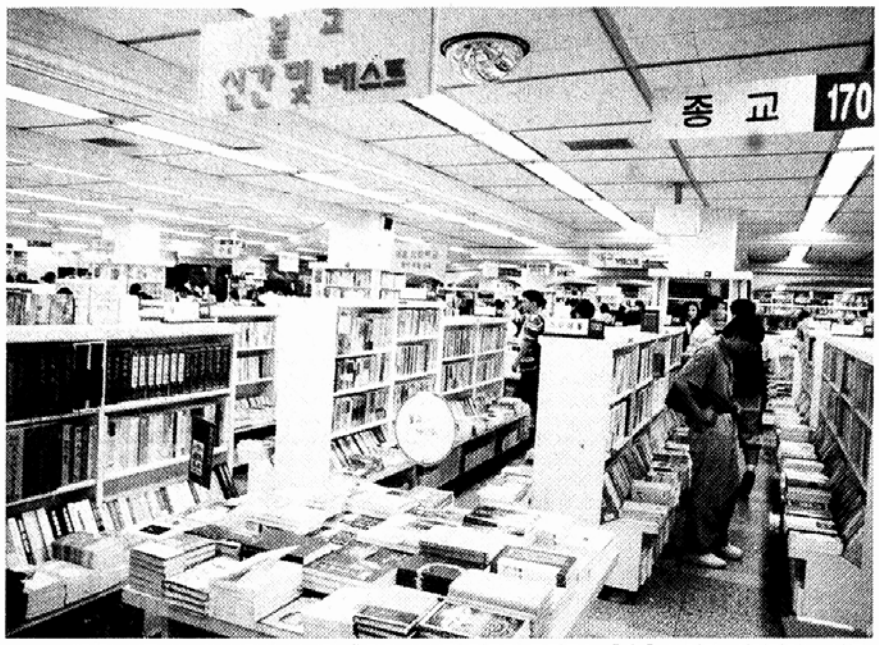
새 천년이 눈앞에 다가왔다. 그래서인지 밀레니엄의 끝을 매듭짓는 99년은 세기말이라는 단어가 풍기는 절박함과 함께 불교 문화의 새 세기를 전망하라는 조금은 거창한 숙제를 던진다.

출판물이 모든 문화현상을 대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다양한 문화의 층위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금석'의 구실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99년 한해동안 불교 출판계를 이끌어간 큰 흐름을 짚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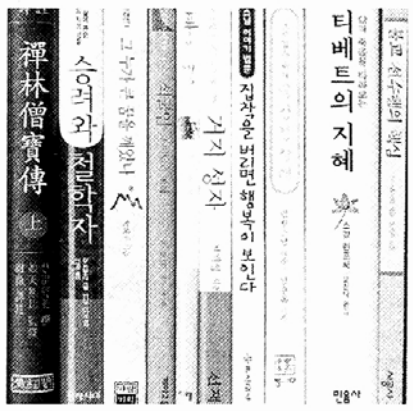
'풍경' '만행' 베스트셀러

80년대 까지의 베스트셀러가 출판인들의 모험과 직감의 산물이었다면, 90대 말의 베스트셀러는 철저히 전략적 산물이다. 이러한 점은 베스트 불서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일반 출판사가 불서를 낼 경우는 더욱 그렇다. 올 한해동안 베스트불서로 손꼽혔던 불서 가운데 90% 이상이 마케팅 능력이 뛰어난 일반출판사의 책이란 점이 그것을 증명한다. 새 천년도 이같은 흐름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돼 불교 출판계의 대응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교계의 반응은 찬반양론으로 엇갈리고 있다.

긍정적인 측면은 포교의 영역을 확대했다는 점이다. 불서는 불자만 읽는다는 한계에서 벗어나 비불자들까지도 쉽게 읽게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금 엄격한 시각에서 보면 이런 독자들을 포교했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불교라는 종교의 매력을 맛보게 했다는 선에서 만족해야 할 것이다.



◇세기말 시중에는 500여권의 불서가 출간돼 20여권 정도가 독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외면당하는 시중 서점의 불교코너. 이것이 불서출판의 현주소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부정적인 측면은 일반출판사들이 '스님'을 지나치게 상품화시킨다는 점이다. 이들에게 불교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책만 많이 팔면된다. 이로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몇몇 스님들의 책이 '장기간 인기 상한가'를 장악하면서 너무나 큰 그늘을 만들어 불서의 질적 성장과 다양성을 줄이고 있다는 점이다. 원성스님의 〈풍경〉(이레), 법정스님의 개정판 〈무소유〉(범우사), 현각스님의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열림원) 등도 이런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책이라 할 수 있다.

IMF 환란과 두 번의 조계종 사태도 출판시장 흐름에 큰 영향을 미쳤다. IMF 환란으로 출판사에서는 명상서나 경전속의 명구들을 가려뽑아 독자들에게 잔잔한 감동과 희망을 주었다. 이처럼 '가볍게 읽고 진한 감동받기'도 올해 베스트불서 특징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연초 재연스님의 〈입산〉(문학동네)을 시작으로 〈승려와 철학자〉(창작시대), 〈지지성자〉(선재),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불교시대사), 〈영가천도〉(효림) 등이 대표적인 예이며 이러한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또 〈티베트의 지혜〉(민음사), 〈티베트의 성자와 보낸 3일〉(솔), 〈티베트에서 온 행복의 열쇠〉(정우사) 등 티베트 관련 책이 인기를 끈 것도 이런 흐름의 샛강이라고 볼 수 있다.

간간히 출간되는 경전과 선(禪)해설서 또한 독자들이 즐겨 찾는 불서 목록이다. 올해도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여시아문)을 비롯 〈선림승보전〉(장경각), 〈파란눈 스님의 한국 선 수행기〉(예문서원), 〈금강경 강해〉(통나무), 〈불교선수행의 핵심〉(시공사) 등이 출간돼 요란을 떨지 않고도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올랐다.

禪해설서 꾸준히 인기

하반기를 접어들면서는 논쟁적인 내용을 담은 책들이 속속 출간돼는 흥미로운 현상도 나타났다. 성낙주씨의 〈석굴암 그 이념과 미학〉(개마고원)과 혜봉스님의 종정열전 〈그 누가 큰 꿈을 깨었나〉〈천고에 자취를 감춘 학처럼〉(가람기획)이 그 주인공들이다. 성낙주씨가 펴낸 〈석굴암 그 이념과 미학〉은 미학적인 상상력으로 가득한 '석굴암론'을 제시해 학자들간의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혜봉스님은 종정열전을 통해 효봉스님을 비롯 근대 고승들의 전기중 잘못 알려진 부분을 과해쳐 교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베스트셀러를 만드는 주체는 크게 독자, 필자, 출판사로 볼 수 있다. 이 셋이 긴장과 조화를 이루며 키를 높일 때 출판문화는 성숙할 수 있다. 그러나 불교 전문 출판계는 이러한 축이 하향 평준화되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 이에 대해 불교 전문 출판계의 한 관계자는 "교계출판계가 불황의 종지부를 찍으려면 무엇보다 교단과 승가의 풍토가 변해야 한다"며 "이것이 불서출판의 하향 평준화 현상을 극복하는 지름길이다"고 분석했다. 불교계에서 스님이라는 존재는, 수행자이면서 성직자이고 인생의 교사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그러한 분석의 근거로 들었다.

다가오는 새 세기에도 불서의 대중화와 질적 향상이라는 까다로운 숙제는 여전히 따라다닐 것이다. 명쾌한 답은 없다. 독자와 필자와 출판사가 지적 줄다리기를 하면서 서로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격려하는 것 말고는.

김종근 기자(gamja@buddhapia.com)

왜곡된 20세기초 불교 '바로알자'

박희승씨 '이제 승려의…'



1876년 개항에서 1912년 사찰령 시행까지 한국근현대사를 새롭게 조명한 〈이제, 승려의 입성을 허함이 어떻는지요〉(들녘)가 출간돼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불교근대사 연구모임의 회원인 박희승씨는 이 책을 통해, 갑오경장 때 도성 출입금지 해제 조치는 일본승 사노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박영효씨가 성사시켰다고 주장했다. 박영효씨는 사찰과 승려 관리 부서 책임자로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고종실록〉의 기록을 보면, 박영호씨가 "이제 승려의 입성을 허함이 어떻는지요"라고 고종에게 아뢰자 고종이 "그렇게 하라" 했다는 기록을 그 근거로 든다.

이와함께 박희승씨는 △원종은 친일적인 종단이 아닌 근세 최초의 자주적 종단 △개화승 이동인 스님은 친일파가 아니라 애국자 △개화당은 조선사회를 혁신하려던 불제자들의 정치결사 △최초의 교단 분규는 1910년 원종과 임제종의 대립 △1899년 해인사에서 경허스님을 중심으로 시작된 결사와 선방 재건 운동이 오늘날 조계종단의 정신적 뿌리 등의 주장을 펼치며, 검증없이 정설로 왜곡돼 온 한국불교근대사에 이의를 제기한다.

'불교기자협회 십년사' 불교언론 발자취 정리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하춘생)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불교 언론의 효시를 이룬 최초의 불교잡지 〈원종〉에서부터 오늘에 이르는 불교언론의 발자취를 정리한 〈불교기자협회 십년사〉(한국불교기자협회)를 펴냈다.

〈불교기자협회 십년사〉에는 사진으로 보는 불기협 10년을 시작으로 특별논단 '교계현실과 불교언론이 나아갈 방향', 일제치하에서부터 90년대까지 불교언론을 정리한 '한국 근현대 불교언론 변천사'를 조목조목 담고 있다. 또 불기협의 창립 배경과 활동, 매년 연수회와 강연회에서 실시한 강연 전문 등을 실어 한국불교기자협회의 10년간 활동을 자세히 알 수 있게 한다.

이밖에도 부록으로 회원사 약사, 역대 불교언론인 명단, 불교계 신문·잡지 목록, 불교언론사 연표 등이 수록돼 불교언론의 현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하춘생 회장은 "종교언론이라는 특수성 속에서 언론 보편의 역할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며 "한국불교의 발전을 선도할 성숙한 언론을 구현하는 단체로 거듭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값 7만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현 각	열 림 원
2	금강경 강해	김 용 옥	통 나 무
3	풍경	원 성	이 레
4	노자 21세기	김 용 옥	통 나 무
5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	일 타	불교시대사
6	원효어록 100선	이 영 일	불교춘추사
7	영가천도	우 용	효 림
8	부처님께 재를 털면	스티븐미첼	여시아문
9	죽음을 준비합시다	현 장	우 리
10	무소유(개정판)	법 정	범 우 사

도서 안내:(02)737-0695

새로나온 책

▲불교와 인생(운덕스님 지음)=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이 회갑을 맞아 내놓은 신행 지침서. 불교와 현대인, 정진하는 자세, 불교와 사회, 생활과 불교 등 6장으로 구성돼 있다. 운덕스님이 10년동안 천태종보 '지상설법'란을 통해 설한 내용으로 '신앙즉생활(信仰卽生活), 생활즉신앙(生活卽信仰)'을 강조하고 있다. 비매품.

▲숫타니파타(법정스님 옮김)= 최초의 경전으로 불교의 진리 1148수를 시에 담고 있다. 91년 법정스님이 샘터에서 간행했다가 절판 된 것을 새롭게 정리했다. 불교가 싹트기 시작할 때의 상황, 그리고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의 원형이 어떤 것인지도 자세히 알 수 있게 한다. 이레. 값 9천8백원.

▲절 알고보니 세상속에 있더라(성재도 지음)= 사찰을 참배하는 순서대로 불교 문화의 이모저모를 살피게 하는 책이다. 절에서의 예절을 다룬 '절로 가는 길'을 시작으로 각종 불구의 의미를 담은 '어떤 마음이 담겨 있길래'까지 불교 신자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담고 있다. 날마다 좋은날. 값 5천원.

▲나무(김정빈 지음)= 한 아이와의 만남을 통해 삶의 본질, 그리고 순수한 행복에 이르는 방법 등을 깨닫게 된 나무를 통해 삶의 진실을 얘기하는 동화. 명상과 구도에 관한 책을 꾸준히 써온 저자 특유의 문체와 최병용씨의 삽화가 어우러져 읽는 재미를 더해 준다. 책이 있는 마을. 값 5천5백원.

▲가시연꽃(이동순 지음)= '덧없이 떠나보내고 놓쳐버린 것들'이 이 시집의 주제. 아주 가까운 데서 벌어지는 작은 일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이 시의 자양분. 저자는 일상의 자잘한 것들을 따뜻하게 끌어안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창작과 비평사. 값 5천원.

여시아문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 선(禪) 302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37-0695 팩스 (02)737-0696

'어떻게' 도업(道業)을 이룰 것인가

깨달음 그 자체보다는 '어떻게' 궁극에 도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시종일관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허운 스님의

방편개시
方便開示

도업은 이루기 어려운데,
처음 출가했을 때는 도심(道心)이 좋았으나
날이 갈수록 게을러지고 맙니다.
그래서 "출가 1년에는 부처님이 눈앞에 있고,
출가 2년에는 부처님이 서천(西天)에 있으며,
출가 3년에는 부처님한테 돈을 달라고 한다."고 한 것입니다.
도심이 오래가지 않으면 도업은 이루기 어렵습니다.
이슬 같은 도심으로 어떻게 생사를 끝낼 수 있겠습니까?
— 본문 중에서

허운 스님은 누구인가?

허운(虛雲)스님은 1840년에 중국의 복건(福建) 천주(泉州)에서 태어나
1959년 세수 120세 승랍 101세로 운거산에서 입적하였다.
청말(淸末) 이후 쇠미해진 중국 불교를 다시 일으킨 고승으로 추앙받는 허운 스님은,
19세에 출가하여 30대부터 여러 곳을 두루 돌며 참학하다가
43세 때 3보 1배(三步一拜)로 오대산을 참배한 뒤,
티베트, 스리랑카, 미얀마 등지의 불교 성지를
순력하였고, 56세 때 찻잔이 떨어져 깨지는 소리에
문득 깨쳤다 한다.
특히 스님은 외세의 침략과 공산 정권의 억압하에서도
불법을 수호하고 사찰의 파괴를 막았으며,
수십 개의 가람을 복원하였다.



허운 스님 지음 / 대성 스님 옮김
B6 변형 330쪽 / 값 6,000원

인터넷 고려대장경 시대 '열린다'

고려대장경硏, 상설사이트 31일 개설

정부 종단 지원받아 3년여 준비
'한국불교 우수성' 네티즌에 홍보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는 31일 인터넷 상에 '고려대장경' 상설 사이트(http://www.sutra.re.kr)를 개설, 새 천년 새 해를 '디지탈 고려대장경'의 원년으로 선포한다.

연구소가 3년 동안 종단 및 정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해온 인터넷 서비스가 본격 실시됨에 따라 고려대장경 내용 및 해제 검색은 물론, 이를 이용한 팔리·산스크리트·티벳경전등과 비교·연구가 가능해져 '고려대장경학(學)'의 반석을 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세계 불교학계에서 신수대장경과 불광대장경 등에 밀려왔던 고려대장경이 대장경학을 개척하고, 한국불교의 학문적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고려대장경은 가장 정확한 판본으로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불교학계에서는 일본의 신수대장경이나 대만의 불광대장경 만을 기본 텍스트로 선호해 왔던게 현실이다.

따라서 디지털 고려대장경이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찾아보고 연구할 수 있는 신기원을 마련한 셈이다.

이 사이트는 고려대장경의 △경판 이미지 △해설 사전 △색인 목록 △한자 사전 △불교용어 사전 △전산본 다운로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판 이미지'는 낱낱의 인경본을 고화질 그래픽으로 제공하며, 검색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매력이다.

'해설 사전'은 대장경에 수록된 1514개 경전을 알기 쉽게 해설한 경전 해제 사전의 기능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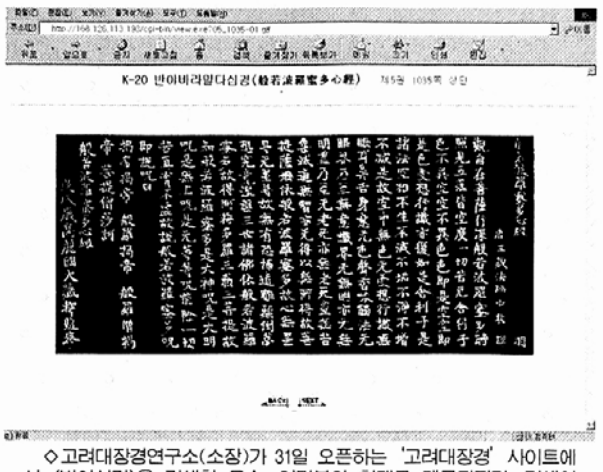
또 '불교용어 사전'은 대장경에서 자주 사용된 술어에 대한 사전적 해설을 하고 있으며, '전산본 다운로딩'은 훈민정음으로 작성된 전산본 대장경을 불자 네티즌에게 쉽게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메뉴.

종립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목판본이라는 문화재적 가치 뿐만 아니라 정보로서의 가치로 새롭게 태어났다"며 "전세계에서 불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고려대장경을 저본으로 삼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며 사이트 개설의 의미를 밝혔다.

연구소는 인터넷 서비스를 계기로 2000년 12월경이면 정자와 이체자 구분 검색 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문장부호의 수용으로 경전 이해도를 높이는 등 다양한 부가기능을 추가한 고려대장경 CD롬을 제작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불교계는 고려대장경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한문본 뿐만 아니라 한글본이 함께 제공되는게 바람직하다며 〈한글대장경〉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동국대 역경원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가 31일 오픈하는 '고려대장경' 사이트에서 〈반야심경〉을 검색한 모습. 인경본의 형태로 제공되지만, 검색이 가능하다.

"석굴암 본존불 十佛을 표현"

박찬흥-배진달 교수 주장

석굴암 본존불은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비로자나불 등 특정 부처님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우주에 두루 계시는 십불(十佛)을 표현한 것이라는 주장이 한 세미나에서 두 학자에 의해 동시에 제기돼 관심을 모았다.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가 10일·11일 경주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고려대 박찬흥 교수와 용인대 배진달 교수는 각각 '석굴암의 연구사 정리'와 '석굴암과 중국 석굴사원의 관계'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사적(史的) 측면에서 석굴암을 정리한 박 교수는 "석굴암의 본존불은 초기에 일반적으로 석가불이라고 불리워졌으나 〈화엄경〉을 사상적 기반으로 할 때 아미타불로, 도상적으로는 비로자나불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다"며 "석가불에 한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배 교수는 중국과 인도 석굴과의 상호 비교를 통해 석굴암 구조의 연원과 특성을 밝히고 석굴암이 아닌 '석불사'가 옳다는 견해를 밝혀 박 교수의 주장을 구체화 했다. 배 교수는 "8세기 중엽의 상황이나 당시 화엄사상을 주도했던 의상계열 스님들이 석가모니불이나 비로자나불의 명호를 사용하기보다 오히려 십불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며 "본존불의 본존상은 특정한 부처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석불(石佛)이라는 사명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우주의 어느 곳에나 계시는 십불 즉 변만불(遍滿佛)을 표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도필선 기자(psdo@buddhapia.com)

"인도철학 연구는 불교학 발전 초석"

이지수 교수 주장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인도철학 연구가 바로 서야 한다." 3일 동국대학교 동국관 401호에서 열린 인도철학회 제10회 연구발표회에서 이지수(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는 인도철학 연구가 위축되면서 선학과 불교학 마저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해, 학계의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고수의 '한국의 인도철학 연구와 논문의 개념'에 따르면 인도철학은 불교의 심연을 이해하는 필수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불교와 무관한 학문으로 소외되어 왔다는 것이다. 반면 일본은 9개의 국립대학에 인도철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인도철학과 불교학이 급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교수는 인도철학에 대한 교계의 관심이 커져야 하고, 또 인도철학계는 고전적 텍스트에 대한 번역과 설명이라는 해석학적 연구방법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도철학 역사가 10년 정도밖에 안된 우리는 선진국의 연구성과를 정리하고 편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발표회에서는 △Jnana-yoga 패러다임으로 본 금강경의 아뇩다라삼먁삼보리(김선근) △미투나 상의 사상적 배경과 의의(정승석) △상카라의 유식설 비판의 근거(이호근) △분할과 조합, 용수의 연기설과 분석철학(홍성기) △샹카라철학에서의 마야 개념(박영길) 등 논문이 발표됐다.

오종욱 기자

학술단신

비판불교 6차 발표회

여래장, 본각, 해탈 등 전통적으로 불교의 핵심 사상을 담고 있는 것으로 여겨 왔던 개념들에 대해 반불교적이라는 '비판'을 제기해 일본 불교학계에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마츠모토 시로 교수(일본 고마자와 대학)와 국내학자 및 불자들간의 진지한 토론의 장이 열릴 예정이다.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는 18일 오후3시 동국대 학술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비판불교의 비판적 검토'을 주제로 마츠모토 교수의 공개강연과 토론을 개최한다. 이번 제6차 발표회에서 마츠모토 교수는 '비판불교 관련 논쟁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주제로 발표한다. 02)797-0585

사찰조경硏 학술회의

사찰조경연구소(회장 홍광표)의 제3회 정례학술회의가 18일 동국대 도서관 3층 교육매체실에서 열린다.

'불국사의 건축과 조경', '불국사의 보존과 복원'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불국사의 경관(정기호)', '불국사의 수경관 복원(홍광표·이상윤), '불국사의 직재(김남철·하재호)' '불국사의 보존(한삼건)' '불국사의 건축적 복원(김봉건)'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0561)770-2521

동악미술사학회 창립총회

한국미술사학 및 인접 학문의 연구활동과 그 발전을 위한 동악미술사학회가 15일 오후3시 동국대학교 90주년 기념관 덕암세미나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한병삼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의 축사와 '뉴밀레니엄 시대의 불교와 문화'를 주제로한 송석구 동국대 총장의 특강이 있을 예정이다. 02)2260-3845

中 신강 '제2돈황석굴' 발견

중국 신강 위구르족 자치구의 고차에서 돈황석굴에 버금가는 당(唐)대의 불교석굴이 발견됐다고 북경신보가 7일 보도했다.

석굴이 발견된 곳은 천산산맥의 지맥인 커즈리야 산(山)의 한 협곡으로, 이곳은 구 서역 구자국의 북쪽 경계선 도로가 있던 곳이다.

석굴의 벽면에는 15㎡ 넓이의 채색 벽화가 온전한 상태로 보전돼 있고, 이 벽화 속에는 묵으로 내리 쓴 다량의 한문기록이 발견됐다. 한문 기록에는 배(裴) 조(趙) 양(梁) 구(寇) 이(李) 백(白) 신(申) 부(傅) 사(似) 등 성씨에 관한 기록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다피아 사이버 기행

유럽불교연맹

유럽불교단체 활동-역할 '한눈에'
타종교 단체와 대화의 장도 마련

유럽에서 부처님의 수행과 교리를 펴고 있는 단체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곳은 바로 유럽불교연맹(The European Buddhist Union, 이하 '연맹')이다.

연맹은 유럽의 모든 불교 조직이 망라된 센터로, 이들 단체의 우산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연맹의 활동과 사업을 열람할 수만 있다면, 유럽 불교단체의 위상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당연히 인터넷 상에 개설된 연맹 사이트를 '클릭'하면 된다.

연합체 성격을 띠고 있는 연맹은 모든 불교종파에 대해서 개방적이다. 이 곳에서는 연맹의 '연혁' '목표' '산업' 등을 일목요연하게 열람할 수 있다.

연맹은 1975년에 설립돼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연맹은 매년 유럽의 불교단체들이 참여하는 총회를 개최하는 한편 '유럽불자대회'를 마련하면서, 유럽 불교인이 서로 협력하고 친분을 나누는 공간을 만들어 왔다. 유럽 불자들의 공감대 형성에 상당히 효과적인 활동을 전개한 셈이다.

'사업' 메뉴에서는 연맹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두 가지, 즉 유럽불교단체와 기관에 대한 '옐로우 북(yellow book)'을 만들고, 유럽 불자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다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사업을 소개하고 있다.

△유럽불교 목록집 발간은 유럽에 있는 각종 불교 관련 단체, 센터, 기관, 불교학자 인명 등의 목록을 최신 정보로 정리, 사람들이 유럽 불교의 실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 정보는 2000년부터 인터넷으로도 제공된다.

또 △불교와 교육은 유럽 불자들이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불교 교리 교재를 발간하는 사업이다. 이렇다할 교재가 없어 시작된 이 사업은 아직까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불교교육 관련 교재 목록과 불교 교수법 관련 목록집을 준비해 불교 교육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맹은 불교 종파간 이질적인 교리에 대한 관점을 서로 교환하고 배우며, 다양한 연석회의를 통해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있다. 97년 베를린에서 열린 연맹의 연석회의에서는, 티벳불교 인도불교 등 다양한 종파에서 재가불자에게 권하고 있는 생활선(禪)에 초점을 맞춘 세미나를 열어 호응을 얻었다.

이외에도 연맹은 유럽에서 활동하는 타종교 단체들 간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데도 남다른 노력을 보이고 있다. 종교간 이해와 조화를 모색하는 모임인 연맹 부설 '유럽의회'는 유네스코(UNESCO)와 같은 국제기관으로서의, 대표성을 지닐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유럽불교연맹의 라마 데니스 툰드로프 공동회장은 "유럽에 있는 불교 단체들의 상호협력과 우의를 증진시키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연맹의 방향을 설명했다.

오종욱 기자

△http://www.sbg.ac.at/budd.ebu.htm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솔선식(2개월 50만원), 솔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100만원), 치신왕기환(3개월 50만원)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뵈온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명 합장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가 격 :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대구여래한방)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 박 법륜 합장

여성중앙 99년 6월호

지금 일본에서 최고 인기!
'크로스 건강법'을 아시나요?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

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금까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 (053) 655-2227
(011) 808-8880

보리심 내어 佛身 구현하라

경전 속의 禪 사상 45 · 끝

금강정경 (下)

번뇌없고 정신집중 돼야 금강삼매
日月輪 관해 부처의 덕 · 지혜 얻어

글쓴이



정 태 혁
〈동국대 명예교수〉

오상 가운데 통달보리심 · 수보리심 · 성금강심은 마음에 속하고, 중금강신 · 불신원만 등의 금강견고신(金剛堅固身)은 몸에 속한다. 중금강신은 심신일여(心身一如)의 증득이요, 금강견고신은 심신일여의 묘용이다.

오상성신관은 부처님의 지혜를 증득하여 깨달음을 얻는 관법인데, 점수(漸修)와 돈오(頓悟)를 포함한다. 지난 호에서 일체의 성취보살이 '아스파나카사마디'의 경계에 있다가, 그 곳에서 벗어나 오상성신관을 닦은 것을 계기로 부처로 거듭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스파나카사마디는 점수요, 오상성신은 돈오의 단계다. 아스파나카사마디는 무식신평등(無識身平等 혹은 無識定身)으로 볼 수 있는데, 마음과 몸이 움직이지 않고 번뇌가 없어진 상태를 뜻한다. 이러한 수행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숨을 조절하고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유가안나관나(瑜伽安那般那)라고도 부른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숨과 마음 그리고 몸이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상태에 들어가는 지관(止觀)법이 기다린다. 이 상태가 이루어지면 인식작용도 그쳐서 무의식의 상태에 들어가서 한 곳에 집중하게 된다. 바로 금강삼매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다시 오상성신을 증득하지 않으면 안된다. 아스파나카법은 점수의 단계요, 오상성신이야말로 돈오의 단계이기 때문이다. 지(止)에서 관(觀)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오상성신관은 이 같은 심신일여의 경지에서 원만하고 견고한 청정보리심을 얻는 것으로, 먼저 마음을 닦기 위해서는 월륜관(月輪觀)이나 일륜관(日輪觀)으로 수행을 해야 한다.

〈보리심론(菩提心論)〉에서 "수행자는 마음 속에서 일월륜(日月輪)을 관하여 본심을 조견한다. 담연(湛然)청정하여 마치 보름달이 허공을 두루 비춤에 분별함이 없는 것과 같다"고 했듯이, 만월은 본래 마음인 '여래의 지혜'를 상징한다. 그러므로 금강정경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월륜과 같이 보라고 하였다. 일륜관은 부처의 덕을 얻는 관법이고, 월륜관은 부처의 지혜를 얻는 관법이다.

〈제불경계섭진실경(諸佛境界攝眞實經)〉에 이르기를 "대보리심의 모습은 마치 50유순의 원만월륜과 같이 청량교결하여 구름이 없다"고 했다.

이와 같이 보리심을 발한 수행자는 다시 그 보리심의 성취를 위해서 제3의 성금강심과 불신원만으로 나가야 한다. 성금강심이란 보리심이 견고하게 이루어져서 부처의 마음으로 활동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되려면 마음 속 부처의 활동인 금강저관(金剛杵觀)을 닦아야 한다.

〈금강정경〉에서는 이런 마음을 발현하기 위해서 오고금강저(五股金剛杵)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바로 오지(五智)의 상징이다. 따라서 금강저관을 닦을 때, 오고금강저를 월륜속에서 관하면서 입으로 '머물라, 금강이여(tistha vajua)'라는 진언을 염송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행자의 마음은 금강심이 된다.

이러한 금강저가 자기의 마음속에 얻어지면 자신이 관하는 금강저와 하나가 되어, 마음에 불심이 충만하게 되니 이른바 중금강신이 된다. 이때 '옴, 나는 금강의 자성이다(om vajratmakoham)'는 진언을 외우면 그대로 된다.

다음에는 불신원만을 관하게 되는데, 부처님이 무수한 나라에 무수한 몸을 나타내어 중생을 교화하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바로 부처가 되어서 활동하고 있다고 관한다. 이때 손은 비로자나의 지권인(智拳印)을 맺고, 입으로는 '옴, 나는 일체여래와 같이 되겠노라(Om yotha sarvataag ataotatha ham)'하고 염송한다.

〈금강정경〉의 종지(宗旨)를 나타내고 있는 오상성신관이 법계의 모든 함식(含識)에게 널리 회시(廻施)되기를 바란다.

과 학 산 책

약한 상호작용



파도 가라앉으면 바닷물로 하나되듯
소립자 붕괴되면 경입자장으로 통일

양자역학에서는 소립자에 작용하는 힘을 특정 양자가 서로 힘을 교환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소립자가 다른 소립자로 변환하는 과정은 일종의 '붕괴 과정'이다. 즉 '약한 상호작용' 역시 방사성 물질의 붕괴인 셈이다.

약한 상호작용은 W, Z 보즈입자를 주고 받음으로써 일어나고, 전자기적 상호작용은 광자를 주고 받음으로써 생긴다. 이때 W, Z 보즈입자와 광자를 아교 입자(glu0on, 그루온)라고 부르거나, 상호작용을 매개한다는 관점에서 '매개 입자' 혹은 '힘 전달 입자(force carrying particle)'라고 한다.

1960년대 후반에 그라쇼(Glashow), 사렘(Salem), 와인버그(Weinberg)는 전자기적 상호작용과 약한 상호작용을 통합하는 이론인 약한전자기 이론(Electroweak theory)을 제안, 그 공로로 1979년에 노벨상을 수상했다. 이 이론은 약한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W, Z 보즈입자를 가설로 펴고 있는데, 4년 후인 1983년 이 입자가 유럽의 입자가속기 실험소에서 발견돼, 이 이론은 실험적으로 증명될 수 있었다.

약한 상호작용, 즉, W, Z 보즈입자의 경입자인 전자와 중성미자는 서로 상대방으로 변환될 수 있다. 이는 다른 경입자인 뮤온과 그 짝인 뮤온 중성미자, 타우온과 그 짝인 타우온 중성미자끼리의 변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경입자는 다음과 같이 3세대로 나눌 수 있다. 1세대는 '전자, 중성미자', 2세대는 '뮤온, 뮤온 중성미자', 3세대는 '타우온, 타우온 중성미자'이다. 경입자의 다음 세대는 질량이 무거운 것을 빼고는 앞서 발견된 경입자들과 똑같다. 그러므로 약한 상호작용 매개 입자인 W, Z 보즈입자에 의해 경입자들이 하나의 경입자장(場)으로 표현 가능해진다.

또 W, Z 보즈입자의 흡수나 방출에 의해 쿼크의 향(flavor)이 바뀐다. 앞에서 우리는 중성자 붕괴 과정이 바로 이렇게 향이 변해 생긴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하드론들이 붕괴하며, 궁극적으로 안정된 하드론인 양성자만이 남게 된다.

쿼크도 경입자와 같이 3세대로 나눌 수 있다. 제1세대는 '업 쿼크, 아래 쿼크', 제2세대는 '기묘한 쿼크, 매력적 쿼크', 제3세대는 '꼭대기 쿼크, 밑바닥 쿼크'이다. 또 쿼크의 다음 세대는 무거운 질량을 빼고는 앞서 발견된 쿼크들과 똑같다. 세대간의 통일, 즉 한 세대에서 나머지 두 세대의 쿼크나 경입자를 유도하는 것은 초끈 이론에서나 가능하다.

이러한 약한 상호작용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무거운 W, Z 보즈입자가 기능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고에너지는 불확정성 이론에서 가설하고 있듯이, 매우 짧은 공간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다. 물리학자들은 전자와 중성미자의 교환은 '10의 마이너스 16승 센티미터' 이하에서 일어난다고 말한다. 즉, 경입자의 통일성 그리고 통일의 속성인 대칭성은 더욱 섬세한 영역에 다가갈수록 회복된다. 마치, 바닷물 표면의 파도들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보이지만, 바다 밑바닥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원래의 모습이 회복돼 단지 바닷물(근원)만 있는 것과 같다.

이러한 약한 전자기 이론을 만든 와인버그는 자연의 근본에 깔려 있는 통일성에 대한 경의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비록 대칭성이 우리들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그것이 자연 가운데 갖춰져 있으며, 우리들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자연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단순하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신나는 착상이다."

조원희 〈본사 전략정보실장〉

태국 나나삼판노 스님이 쓰는

중생이 우주라지만 (26)

행복이 있는 곳 (2)

모든 현상은 덧없다

욕망에 대한 집착 단호하게 끊어야

모든 현상은 '덧없음(無常), 만족스럽지 못함(苦), 나라 할게 없음(無我)'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물을 좋고 싫음의 관점에서 보는 마음은 버리고, 대신 마음챙김(正念)이라 불리는 초연한 관찰이 그 자리를 메우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한 사람들조차 이론에서 실천으로 나아가는 데 완강히 저항하는 경우가 있다. 갈애의 지배력이 워낙 모진 탓에 진실과 환상 어느 쪽도 놓치지 않고 양다리를 걸치고 싶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감각적 쾌락은 그 자체로는 해로운 것이 아니니까 절도있게 즐기기만 하면 괜찮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을지 모른다. 그럴 듯한 말이다. 하지만 그것을 인간적인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한, 그 사람은 고통의 질곡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 마음 속에는 즐거운 느낌, 즐겁지 않은 느낌, 그 어느 쪽도 아닌 중립적인 느낌이 항상 일어나고 있다. 그것들은 지켜보아야 하는 것이지 추구할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추구가 고의 수레바퀴를 계속 돌리기 때문이다.

다른 예로 '일반적 통념'을 들어보자. 불교를 잘못 이해하다 보면 우주가 대단히 조화로운 존재처럼 비쳐져 각 개인의 생까지 미화시키는 엉뚱한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것은 두 가지 점에서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은 사물에다 즐겁고 편안한 얼굴을 씌우려 했던 것이 아니라, 인연따라 생겨난 모든 존재의 궁극적 무가치성을 일깨우려 했기 때문이다.

또 감각적 쾌락이 가치있는 목표의 일부가 된다면 추구해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자기 합리화일 뿐이다. 비록 추구하는 바가 대단히 건전해 보일지라도 결국 그것 또한 갈애를 살아나르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건전성'이라는 말로 거창하게 포장을 해도 결국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고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아와 세계, 그 두 가지로부터 공히 초연하다. 그는 어떤 보상도, 알아주기도 바라지 않고 자신과 남들의 안녕을 위해 행동한다. 그는 결과에 무관심하며, 즐거움이나 괴로움에 휘둘리지 않는다. 따라서 부지런히 정진하는 불자라면 마땅히 좋다 싫다 하는 생각을 깡그리 버리고, 그런 생각은 품기조차 그만 두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행동은 어떠한가. 흔히 "어쩔 수 없어! 위험하다는 것은 알지만 어쩔 도리가 없다구"하면서 자기 변명을 일삼는다. 쾌락을, 재미를, 만족감을 게걸스럽게 탐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무력감을 경험해 봤을 것이다. 집착에 오래 길들여진 마음은 단순히 이론적 납득만으로 집착을 그만두지 못한다. 속절없는 행복을 찾아 이런저런 입질을 하면서 '습'이라는 코뚜레에 꿰여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이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문제는 바로 자기 기만이다. 말로는 감각적 탐닉의 위험성과 절제의 이로움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지만 막상 결단의 순간을 맞닥뜨리면 도로아미타불이 되고 마는 것을 보건대, 우리가 실제로 사물의 실체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다. 지혜는 결단코 마음의 때와 양립할 수 없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일타큰스님의 열반…. 큰스님의 가르침을 길이 새기오리다.

불자의 기본 예절

바른 수행을 위한 불자 예절의 길잡이 !

바른 수행의 밑거름이 되는 불교집안의 예절. 불가(佛家)의 독특한 예절에 담긴 깊은 상징성과 깨달음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불교예절의 근본이 되는 마음가짐과 말씨, 걸음걸이와 앉음새, 합장법, 절하는 법, 법당에서의 예법, 법문 듣는 법, 세수 · 목욕 · 입측법 등 절집안의 생활예절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많은 이야기를 곁들여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4×6 판 / 3,500원

맑고 향기로운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 일타큰스님 법어집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부처님의 말씀을 보다 쉽고 가깝게 대중들에게 전하고 계신 일타 큰스님.
월간 《법공양》에 연재되었던 일타 큰스님의 주옥같은 법문을 한 권에 담았습니다.
고된 삶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방황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열어드립니다. 법(法)의 향기 가득한 일타큰스님의 말씀, 삶의 지표를 다시금 세워보십시오.

신국판 / 5,000원

불교출판계의 스테디셀러,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

祈禱

사람의 한평생 중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란 지극히 적습니다. 그러나 살다보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꼭 이루어야 할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절을 다닌 신도들조차도 기도가 어렵다고 말하거나 방법이 잘못되어 제대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신국판 / 5,000원

총 52가지의 기도성취 영험담 이야기 !

이에 일타스님은 자신과 도반 · 선배 · 제자 · 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성취 영험담들을 모아 이 책을 간행하였습니다.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로 엮어진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이야기 끝에 붙인 큰스님의 해설을 통하여 올바른 기도법과 함께 기도성취의 지름길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기도」 출간 이후, 계속되는 독자들의 기도법에 관한 문의에 다시 집필을 시작하신 스님의 기도 방법 지침서.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 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생활속의 기도법

4×6 판 / 3,500원

일타 큰스님의 알기쉬운 불교책

· 윤회와 인과응보 이야기 신국판 / 값 5,000원
일타큰스님 자신과 가족 · 제자 · 신도들이 체험했던 윤회와 인연이야기를 53가지로 가려 뽑아 엮은 책. 이 책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윤회와 인과응보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된다.

·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신국판 / 값 5,000원
야운비구의 《자경문 自警文》을 알기 쉽게 푼 해설집

· 시작하는 마음 신국판 / 값 5,000원
초보자를 위한 불교입문의 지침서 보조국사 《초심 初心》의 해설집

·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신국판 / 값 5,000원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에 대한 일타스님의 강설집

· 범망경보살계 1 - 5 신국판 / 각권 6,000원
보살계 산림법회에서 강설하신 일타스님의 무애변(無碍辯)을 담은 책

· 법공양문 신국판 / 값 5,000원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아 엮은 책

· 금로법문 (5개 1세트) / 값 12,000원
일타큰스님의 육성법문 테이프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587-6612 · 팩스 : 586-9078

시방세계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함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격 동네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인터넷 전자신문 현대불교 http://news.buddhapia.com

새천년 첫아침 절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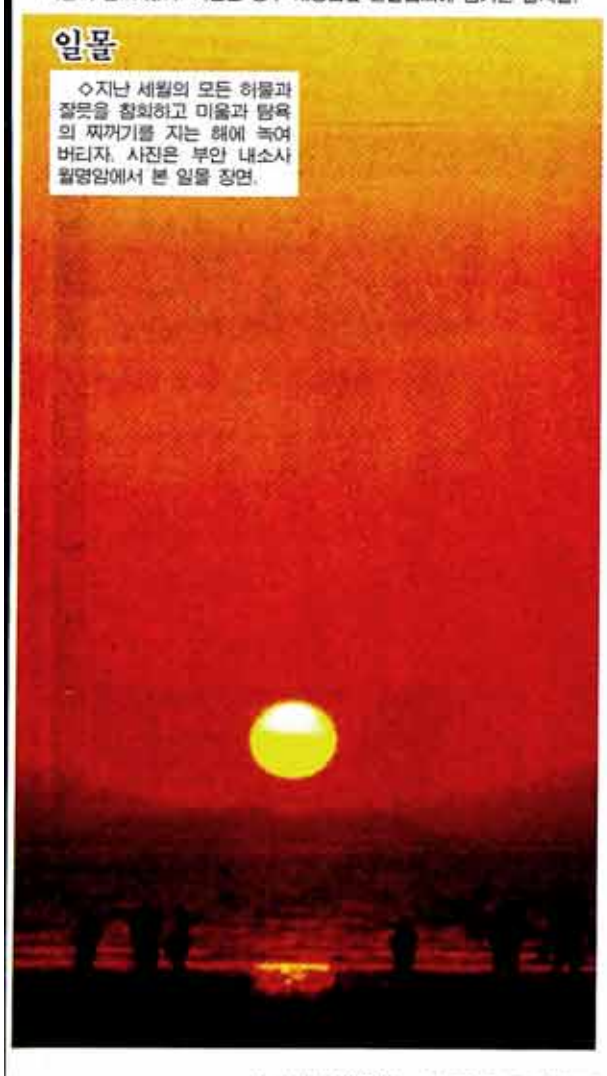
일출

◇그 어느때보다 큰 기대와 발원을 안고 찬란한 새해를 맞도록 하기위해 석굴암 등 각 사찰들은 다채로운 행사로 새천년 해맞이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은 낙산사 의상대에서의 일출장면.
사진=고영배기자

해맞으며 불국토 기원



◇철야기도정진 등 경건한 발원을 위해 사찰에서 새해를 맞는 불자들이 늘고 있다. 사진은 경주 대왕암앞 일출법회에 참가한 불자들.



일몰

◇지난 세월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참회하고 미움과 탐욕의 찌꺼기를 지는 해에 녹여 버리자. 사진은 부안 내소사 월명암에서 본 일몰 장면.

지구촌 곳곳이 뉴 밀레니엄을 맞는 준비에 한창이다.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를 여는 첫 해인 2000년 경진년에 거는 기대와 희망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6년 고행끝에 새벽녘 계달음을 얻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맞았던 찬란한 해처럼 밝고 희망찬 해를 경건하고 보다 의미있게 맞기 위해 해맞이와 해넘이를 떠나고자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다. 석굴암 낙산사 보문사 등명낙가사 보리암 등 동해안과 남해안에 있는 사찰들은 불자들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이미 유명한 해맞이 명소가 되었다. 이들 사찰 외에도 범어사 금강원 내소사 관음사 능인사 건봉사 등에서 장엄한 불교의식과 다양한 문화행사를 곁들인 새천년 해맞이축제를 대대적으로 펼친다. 사찰에서는 31일부터 연등을 밝히고 철야정진기도는 물론, 범종타종식, 새천년발원문 낭독, 촛불밝히기, 소지공양, 사물패 공연, 탑돌이, 찬불가, 무용제, 초청가수 공연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벌인다.

'광상심이 도'임을 잘 알고 있는 불자들이지만 해바뀜을 계기로 각 사찰에서 펼치는 해돋이 해넘이 축제에 동참해 지난 세월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참회하고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이땅에 불국정토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등불을 켜 발원해보자.

2000년 첫 해뜨는 시각

울릉도 금강원	7시 24분 48초
가지산 석남사	7시 26분 16초
독도	7시 26분 19초
금정산 범어사	7시 26분 53초
토함산 석굴암	7시 27분 13초
한라산 관음사	7시 29분 18초
지리산 법계사	7시 29분 20초
설악산 신흥사	7시 34분 4초
정동진 낙가사	7시 38분 52초
양양 낙산사	7시 41분 45초

한국천문연구원 발표

금강원 해맞이불공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를 볼 수 있는 곳은 진각종 종조인 회당대종사 탄생성지인 울릉도 금강원이다. 금강원 총지심인당(정사 상명)을 비롯 울릉군지역 심인당은 31일 밤 11시부터 아침해가 떠오르는 아침까지 새해맞이 불공을 올리고 금강원에서 합동 해맞이법회를 갖는다. 0566) 791~2465

석남사 해맞이 기도정근

육지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 울주군 가지산. 가지산 석남사(주지 영운)는 31일 타종을 시작으로 2일까지 3일간 쌀바위에서 지역민들과 함께 연등축제및 해맞이법회, 기도정근행사를 개최한다. 석남사는 불자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풍물놀이등을 열 계획이며, 새천년 희망의 기원을 담은 연등을 가지산 정상까지 매달아 불을 밝힌다. 052) 264~8900

석굴암 토함산 기원대축제

동해에 면한 토함산이 위낙 높아 일출이 장관이라 매년 수천명의 해맞이 인파가 몰리는 토함산 석굴암(주지 종상)은 경주시와 함께 통일대종앞 광장에서 새해맞이 기원 대축제를 개최한다. 조계종 종정 혜암스님이 법어를 내리고 총무원장 정대스님이 참석하는 새해맞이 대축제는 31일 밤 11시 법회를 시작으로 12시 장각에 33번의 타종을 울린다. 기원의 시간과 문화행사를 아침까지 열며 멀티폭죽쇼와 다채로운 대동한마당 행사가 이어진다. 석굴암 해맞이 축제는 인터넷으로 생중계된다. 0561) 746~9933

낙산사 일출축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일출명소인 낙산사(주지 지홍)는 1일 오전 7시 40분 일출에 맞춰 의상대에서 지역단체장및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맞이법회를 갖고 새 연등에 불을 밝힌다. 31일 타종을 시작으로 해맞이법회, 연예인 공연순으로 진행된다. 0396) 672~2448

내소사의 만등 밝히기

전국사찰중 진입로가 가장 아름답기로 유명한 내소사(주지 진원), 일주문에서 경내까지 일렬로 선 전나무숲에 1만개의 연등을 매달아 1999년의 마지막 밤길을 참회정근을 하며 걸을 수 있게 하는 이벤트가 마련된다. 31일 11시부터 12시까지 대웅전 앞에서의 묵은 천년보내기 행사는 큰북공연, 관소리, 살풀이, 타종제가 펼쳐진다. 1일 12시부터는 메시지낭독, 시낭송, 대동제, 공등제, 초청가수 공연등의 순으로 열리며 월명암에서 일출행사를 갖는다. 0683) 583~7283

범어사 천년맞이 축제

부산불교계의 정신적 지주인 금정산 범어사(주지 성오)가 제야·해맞이 축제를 연다. 31일 오후 5시부터 법고소리가 울려퍼지면 새천년 기원등이 범어사 경내에서 금정산 정상까지 점등된다. 천년을 보내는 천명의 대합창과 함께 산사에서 울리는 천년의 소리와 몸짓이 펼쳐진다. 108번의 타종에 이어 고당봉에서 새천년 기원제및 고당할미·야기장수열린극도 열린다. 051) 462~5080

육지장사 108범종 타종식

도리산 육지장사(주지 지원)는 108 소범종을 타종하며 희망의 새천년을 맞는다. 31일 12시부터 열리는 새천년맞이 축제는 사물패공연, 찬불가합창, 춤사위, 발원문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와함께 소망성취 연등축제와 축하폭죽행사가 펼쳐진다. 02) 352~6406

갑사 계룡산 일출등반법회

계룡산 갑사(주지 장곡)는 31일 철야용맹정진법회와 1일 계룡산 삼불봉 일출 등반법회를 개최한다. 특히 사부대중이 함께 범종을 타종하면서 새마음과 새삶을 다짐하는 발원문 낭독 및 소지공양을 올릴 계획이다. 0416)857-8981

관음사 천년맞이 점등법회

제주불교총연합회(회장 수암)는 한라산 관음사에서 천년회향및 천년맞이 점등법회를 개최한다. 2000년을 상징하는 2천불자가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며 펼치는 제등행렬은 관음사에서 제주시 중앙동까지 진행된다. 중앙로에서는 영산재스님들의 범패시연과 천진불어린이 무용공연, 새천년 불자발원문이 낭독된다. 064) 783~3202

보문사 용머리 일출법회

제주 산방산 보문사(주지 용산)는 1일 안근 용머리해안에서 새천년의 소망을 기원하는 일출맞이 불공과 남북통일기원 평화대법회를 개최한다. 사물놀이및 국악한마당을 펼쳐진다. 064) 794~3088

능인사 새 해맞이 영산대제

인천 능인사(주지 능화)는 31일부터 1일까지 감화 낙조대와 신륵사, 낙산사에서 해넘이 참회의 밤 행사와 제야의종 타종식, 해돋이 행사를 개최한다. 특히 1일 오전 9시부터는 낙산사 해수관음상 앞에서 새 즈믄맞이 영산대재와 합동조상차례를 지낼 계획이다. 032) 772~7029

건봉사 새천년 염불기도

전국염불만일회(회장 김재일)는 건봉사 등공탑과 낙산사 의상대에서 새천년 새아침 무량광 무량수 아미타불 염불기도를 펼친다. 신라시대 의상대사가 일출을 관하며 기도하던 낙산사 의상대에서 새 천년맞이를 하고 건봉사에서 염불정근을 하며 새해 소망을 발원한다. 02) 732~1206

김원우 기자(wwkim@buddhapia.com)



◇3중의 원형두광과 타원형 신광을 조화시켜 키모양의 독특한 광배를 갖추고 있는 석남사 마애불입상.

마애불을 찾아서

석남사 마애불입상

3중 원형두광과 타원형 신광 조화
눈코입 작게 묘사…고려초 제작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에 있는 이 마애불은 거대한 암벽위에 양각한 고려초기 대표적인 마애불이다. 광배와 대좌를 모두 갖추고 있으며 3중의 원형두광과 타원형 신광을 조화시켜서 키 모양의 독특한 광배를 이루고 있다.

소발머리에 큼직한 육계를 얹었고 완만한 얼굴에 눈 코 입 등이 비교적 작게 묘사되어 이 불상의 시대적인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당당한 체구에 비해 작은 두 손은 가슴께에서 설법인(說法印)과 같은 손모양을 하고 있다.

불의는 양 어깨를 감싸고 배 부분까지 U자형을 이루었고 두 다리에 각각 비긴 U자형을 표현했으며 내의를 묶는 띠매듭도 나타내었는데 모두 세련된 솜씨를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 유형문화재 109호.

글·사진=불자포교사진연합회 (011-337-7312)

신비의 달마도를 행운의 순금(99.9%)카드에..



▲앞면 달마도



▲뒷면 반야심경

달마는 禪을 대표하는 인물로 계달음을 상징하며 부처님 다음으로 불교의 가장 위대한 스승 가운데 한 분으로 손꼽힌다. 또한 달마도는 TV 방영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신비스러운 기(氣)를 발산하여 수맥을 차단하는 등 건강과 함께 부와 명예를 돌려 주는 힘이 있다고 한다. 이에 착안하여 (주)한국 지앤씨에서 신비의 기를 지닌 "달마도" 등을 행운의 "순금카드"위에 새겨서 상품화(실용신안등록 No24366호) 했다. 천만불자 특별 보시 보급품으로 선보여 큰 관심과 인기를 끌고 있다. 순금카드는 앞면에 달마도의 대가 매헌 윤종우 선생의 원본 작품을 카드용 크기 (대형 5cm×7.5cm), 소형 3cm×5cm)에 새기고 뒷면에는 반야심경을 새겨 비닐합착코팅함으로써 찢어지거나 구겨짐없이 지갑에 소지하기 쉽다.

사찰이나 불자님들의 불사 보시용으로 다량 주문시에는 가격할인은 물론 앞뒷면에 원하는 사진, 그림, 글씨본, 부적, 이름 등 어떠한 문안이나 색상도 크기에 관계없이 원본 그대로 제작 가능하다. 개인 소지용 및 선물용으로 최적이며 가격은 대형 20,000원, 소형 15,000원, 대소셋트 구매시 특별 보시 가격으로 20% 할인된 28,000원에 판매한다.

부처님의 말씀과 신비의 달마도를 품안에 가까이…

전화주문 접수후 전국 어느곳이나 5일내 우편배달 가능하며 최고의 전신 달마도를 고급 표구액자(27cm×32cm)화한 액자용도 한정 판매한다.

※ 또한 매헌 윤종우선생님의 달마도 원본도 판매합니다.

순금판 열쇠고리 — 순금판 상반신 달마도 열쇠고리 1개 : 1만원, 3개(set) : 2만원에 판매

※유사품과는 다릅니다. (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 제조판매원: 한국 지.앤.씨 (24시간 공유일 접수가능)

⊙ 구입문의 본사: 02)922-4804~5 ※영업점 모집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선경어(禪警語) ②

做工夫 要中正勁挺 不近人情
주공부 요중정경정 불근인정
苟循情應對則工夫做不上
구순정응대즉공부주불상
不但工夫做不上 日久月深
부단공부주불상 일구월심
必隨流谷 阿師無疑也
필수유곡 아사무의야

참선하는 데는 중심을 바르게 하고, 굳건하여 인정에 매이지 말아야 한다. 만약 인정에 이끌리게 되면 공부에 진취가 없을 것이다. 공부에 진취가 없을 뿐아니라 세월이 깊어지면 반드시 세속의 속물로 떨어질 것은 뻔한 일이다.

做工夫人 擡頭不見天 低頭不見地
주공부인 대두불견천 저두불견지
看山不是山 見水不是水 行不知行
간산불시산 견수불시수 행부지행
坐不知坐 千人萬人之中
좌부지좌 천인만인지중
不見有一人 通身內外 只是一箇疑團
불견유일인 통신내외 지시일개의단
疑團不破 鞏不休 此爲工夫緊要也
의단불파 서불휴 차위공부긴요야

공부하는 사람은 머리를 들어도 하늘을 보지 못하고, 머리를 숙여도 땅을 보지 못하며, 산을 보아도 산이 아니요, 물을 보아도 물이 아니다. 가도 가는 줄 모르고, 앉아도 앉은 줄 모르며, 천 사람 만 사람 가운데 있어도 한 사람도 보지 못해야 한다. 몸과 마음이 온통 한 개의 의심덩이 뿐이니, 의심덩이를 부수지 않고는 맹세코 쉬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做工夫 不怕死不得活 只怕活不得死
주공부 불파사부득활 지파활부득사
果與疑情 團結在一處乎
과여의정 시결재일처호
動境不待遣而自遣 妄心不待淨而
동경부대견이자견 망심부대정이
自淨 六根門頭自然虛豁豁地
자정 육근문두자연허활활지
點着卽到 呼着卽應 何愁不活也
점착즉도 호착즉응 하수불활야

참선하는 데는 죽기를 두려워 말고 살기를 바라지 말라. 다만 살기만 하고 죽지 않을까를 걱정하라. 진실로 의심덩이와 더불어 한 곳에 매여 있기만 하면 시끄러운 환경은 쫓아내지 않아도 저절로 물러갈 것이요, 망령된 마음은 맑히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맑아질 것이다. 육근(六根)의 문턱이 자연히 텅비고 넓어서 손짓만 하면 즉시 오고, 부르면 즉시 대답할 것인데 어찌 살지 못할 것을 걱정하겠는가.

做工夫 擧起話頭時 要歷歷明明
주공부 거기화두시 요역력명명
如猫捕鼠相似 古所謂不斬 奴
여묘포서상사 고소위불참여노
誓不休 不然則坐在鬼窟裏 昏昏
서불휴 불연즉좌재귀굴리 혼혼
沈沈 過了一生 有何所益
침침 과료일생 유하소익

참선을 하되 화두를 들 때는 반드시 화두가 뚜렷하고 분명해야 한다. 마치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처럼 해야 한다. 옛사람이 '살쾡이(여기서는 삿된 생각을 비유했음)의 목을 베지 못하면 결코 쉬지 않으리라' 하였다. 그렇지 못하면 귀신굴에 주저앉아 흐리멍텅하게 일생을 마칠 것이니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猫捕鼠 睛開兩眼 四脚撑撐
묘포서 정개양안 사각탱탱
只要拿鼠到口 始得 縱有鷄犬在傍
지요나서도구 시득 종유계견재방
亦不暇顧 參禪者 亦復如是 只是
역불하고 참선자 역부여시 지시
憤然要明此理 縱八境 交錯于前
분연요명차리 종팔경 교착우전
亦不暇顧縱 有別念 非但鼠
역불하고 종유별념 비단서
喪走却猫兒
겸주각묘서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는 두 눈을 부릅뜨고 네 다리를 딱 버티고, 어떻게 하면 쥐를 잡아 먹을까만을 생각한다. 비록 곁에 닭이나 개가 있다 해도 눈 한번 팔지 않는다. 참선하는 사람도 이같이 하여 분연히 이런 도리를 밝히겠다는 각오로 어떠한 역경(八境)이 눈 앞에 나타나더라도 역시 한눈을 팔지 말아야 한다. 만약 딴생각을 일으킨다면 쥐뿐만 아니라 고양이 새끼도 놓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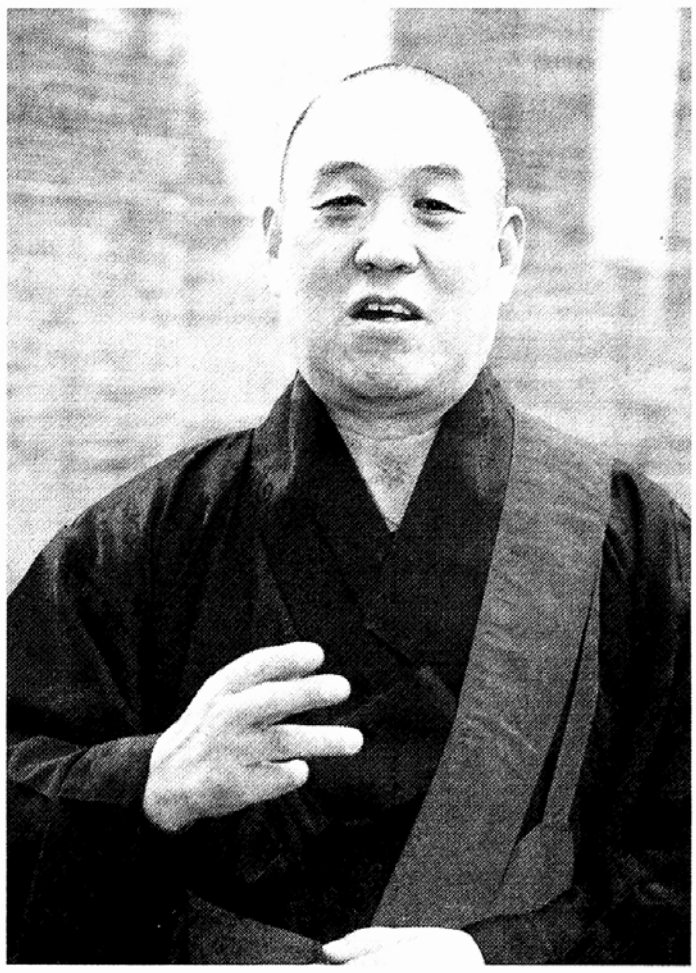
김원각〈시인 · 역경위원〉

참선함에 인정에 이끌리지 말고 의심덩어리와 더불어 오직 한곳만

큰스님 수행한담

"자기의 위치 지킬때"

혜흡스님〈한국법화본종 법주〉



- 악 · 29년 4월8일 수원 生
- 력 · 41~47년 일본 코오베서 수행
- · 48년 법화사 수공스님을 계사로 득도
- · 65년 한국불교법화종 교육부장 취임
- · 80년 (재) 한국불교법화본종(구 법화종)유지재단 이사장 및 총무원장 취임
- · 94년 일본 법화종으로부터 승정호 받음
- · 98년 한국불교법화본종 법주 취임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부처님 말씀 더욱 간절 확고한 믿음으로 사세요"

올 한해도 수많은 시시비비로 얼룩진 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일찍이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으로 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의 근원적 행동이며 원동적 구실(口實)을 움직이는 것이 오직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이 짓는 파편이라고 할 것입니다.

세기 말을 맞은 올해는 그 파편의 의미가 또 남달랐다고 봅니다. 유난히 자연환경의 오염과 핵전쟁, 그리고 지진과 화산폭발 등의 지각 변동과 이상 기후로 인류 멸망의 위기감이 팽배해졌던 한 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기 말에 대한 불안심리 때문이었죠.

종말론과 같은 세기 말의 현상은 제 마음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우리의 나약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본래의 자기라는 것은 지극히 적기도 하고 미미한 것 같기도 하지만 실로 우주보다 더 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생명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자기 회복은 곧 인간의 회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를 잃고 사는 사람이야말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위치를 잃을 때 엄청난 사고를 저지르게 되고 시시비비가 끊어지지 않으며 투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세기 말 현상 또한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의 어느 시인이 쓴 안면문답(顔面問答)이라는 수필이 있습니다. 이 수필 내용은 '입, 코, 눈, 눈썹'의 문답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어느날 입, 코, 눈이 눈썹의 존재가치에 대해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어째서 너는 우리들 위에 있어 거만을 부리고 있는 것이며,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며 눈썹에게 불평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눈썹이 "자네들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입으로는 음식물을 먹고, 코로는 숨을 쉬며, 눈으로는 사물을 보는 등 자네들의 수고로움에 항상 감사하고 있네"라고 말했습니다.

눈, 코, 입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니."

"나는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하네.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나 자신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대답을 할 수 없네. 다만 조상대대로 물려 준 자리를 지키며 미안하다, 미안하다 생각하면서 열심히 내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이네."

한토막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조상대대로 물려준 자기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을 뿐 이라는 말 속에 깊은 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를 발견하는 수행, 자기를 지키는 수행, 자기를 성찰하는 수행, 이 모두는 곧 자기회복의 길이며, 자기 자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모든 시비의 근원은 자기를 지키지 못한데서 오며 수행의 부족으로 오는 것임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스님을 아버지로 태어나 어릴 적부터 절 집안의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아버님은 지금은 종명을 '법화본종'으로 바꾸었습니다만 〈법화경〉 연구에 일가를 이루신 '법화종'의 창종주이신 혜선스님이십니다. 법화본종 소속 스님들은 어릴 적부터 스님과 똑같이 공부하고 수행을 하는데 나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공부가 너무 힘들어 출가를 하지 않으려고도 해 보았지만 결국 스님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전생의 인연공덕이 있었던 같습니다.

5~6세 때부터 불경을 읽었고 절에서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해방 전까지 〈법화경〉 공부를 위해 일본 법화종 사찰에서 살기도 했죠. 일본에서 승직을 가지려면 오랜 행자 생활을 거쳐야 하는데 요즘의 우리 나라 행자생활과는 그 내용면에서 차이가 컸지요. 일본 스님의 가족까지도 그 스님 섬기듯 해야 했고, 집안의 갖가지 허드렛 일을 모두 해야 했습니다. 힘든 날들이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라는 시대적 상황은 타지에서의 외로움을 더했죠. 작은 실수에도 다른 스님들로부터 '조센징'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외톨이박이가 돼야 했고, 일본 스님의 딸들과 한 집안에서 살아야 했으니 그에따른 불편함 등을 모두 감내해야 했습니다.

고오베의 간음교회(포교당 형식의 일본 절을 당시에는 교회라고 이름했다)에서 살 때였는데 모모이(陶井) 스님에게는 딸 들이 많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 가기 전에 아침 예불 보고 법당 청소며 도량 청소를 마치고 밥 한 술 뜨려고 하면 그 스님의 딸들이 빙 둘러앉은 밥상에서 밥을 먹어야 했는데 그게 얼마나 고역이었던지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한 것 같습니다. 한참 먹성이 좋을 나이에다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일을 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런데도 행여 그 여자들이 '조선사람들 밥 많이 먹는다'고 흉을 볼까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배 고픈 설움까지 이겨내야 했습니다. 나중에는 생각 끝에 더 일찍 일어나 할 일을 마치고 혼자 공양간에 들어가 몰래 밥을 챙겨 먹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는 힘들기만 한 일들이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렇지도 않으니 나이가 들긴 했나 봅니다.

일본의 스님들은 출가자에게 처음부터 경을 읽거나, 염불을 하거나 수행정진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스님이 살아

이제는 집에서도 온 가족이 손쉽게 법회를!

가정법회

모든 불자들을 위한 가정법회 안내서

삼귀의 · 반야심경 봉독 · 5계 수지문 낭독 ·
찬불가 · 성구 및 해설 · 발원문 · 사홍서원



신행활동에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삶의 지침이 되고 교훈이 될만한 내용을 아함부경전에서 가려뽑은 성구와 그 의미를 드러내주는 해설,
축원이나 감사는 물론 각종 행사나 절기 등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작성된 발원문,
온 가족이 날짜나 요일을 정해놓고 혹은 특별한 날에 가정법회를 진행한다면 훌륭한 불자가정은 물론 삶의 지혜와 교훈,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학종 편저/신국판/350쪽/값 10,000원

중국과 대만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선학총서 첫 번째 권

불교와 유학

불교와 유교, 동아시아 사상계의 가장 큰 충돌,
그리고 중국화된 불교와 불교화된 유교!



불교와 유학은 장구한 역사 속에서 상호간의 투쟁, 배척, 흡수, 융합 등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 책은 바로 이 양자의 관계를 정확한 관점과 명쾌한 논리로 설명하고 있다.
즉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와 중국에서 발원한 유학이 갖는 각각의 특징, 불교의 중국화 과정에 유학이 미친 영향, 역으로 중국의 유학에 불교가 끼친 영향, 그리고 이러한 영향들의 결과 및 의의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賴永海 저 · 김진무 역/신국판/363쪽/값 12,000원

알기쉬운

한문해석법

현대 한문해석법의 완성과 반야심경에 대한
최초의 문법적 분석



불교경전 번역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

이 책은 한문의 기초부터 한시는 물론 허사에 이르기까지 한문해석을 위한 한문 문장의 구조와 문법을 총정리한 초보자를 위한 한문입문서이다. 특히 반야심경을 현대의 한문해석법에 문법적으로 적용하여 국내 최초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장분석과 해석을 시도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심재동 저/신국판/383쪽/값 12,000원

初發心自警文

누구나 쉽게 공부할수 있게 꾸민
초심자를 위한 안내서

번역 및 자해난은 물론 원문에 토를 달고, 원문 해석의 순서와 방점을 붙여 누구나 쉽게 읽고 해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혜공 편역/신국판/136쪽/값 4,500원

1999년도
불교서적
종합목록

현재 유통되고 있는 불교서적을
총망라한 국내 유일의 종합정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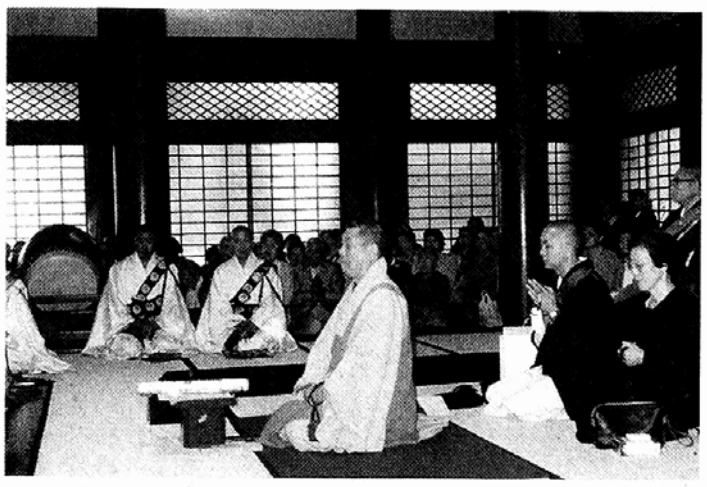
전 서적에 대한 내용별 분류를 시도하였으며
전체목록 색인란과 출판사별 색인란을 두어
목록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가까운 불교서점에 가시거나 운주사로 연락주시면
(우편발송비 2,000원 동봉)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1가 51번지 타운힐빌딩 ☎전화 : 3672-7181~5 팩스 : 3672-7186

큰스님 수행한담

시비 다툼 끊어져요"



◇ 1994년 4월 29일 일본 교토(京都)에 위치한 법회종 대본산 본능사에서 일본 법화종으로부터 승정 호를 받고 있는 혜흠스님(사진 가운데).

'자기'라는 것은 왜소해 보여도 실은 우주보다 크고 넓어요 시공초월한 영원한 생명이죠

'자아 발견'은 먼저 인간답게 사는데서 믿고 배우고 실천해야 진정한 불제자

가는 기술을 익히게 하지 않는 것이죠. 인간다운게 무엇인지 가르칩니다. 먼저 인간이 되지 않으면 제 아무리 잘 경을 읽고, 기도를 잘 한다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94년에 일본 법화종으로부터 승정 호를 받았습니다. 일본에 불교를 전파한 우리가 일본에 역으로 승정 호를 받았다는 사실은 아이러니컬 한 일입니다만 승정호를 받았다는 것은 철저한 일본 사람들이 내 법계를 인정했다는 것이니 이제 막 출가한 스님들이나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드려도 괜찮겠죠.

얼마전 한 스님이 "요즘 출가하는 사람들은 옛날처럼 혹독하게 행자생활을 하지 않아서인지 사미계, 비구계도 받지 않은 사람이 벌써 중입네 하고 건방을 떨더라면서 못된 송아지 엉덩지에 뿔난 꼴이지 뭐냐"며 개탄스러워 하더군요. 사실 요즘 절에서는 실제로 '행자조실'이라는 말이 있다고도 하니 그 스님 말씀이 헛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되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고, 그리고 인간이 먼저 되어야겠다는 마음가짐 없이 머리 깎고, 먹물 옷이나 입었다고 해서 중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중노릇 흉내에 불과한 것입니다.

재가불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경을 조금 알고, 염불을 조금 할 줄 안다고 해서 부처님 법을 모두 이해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신을 한 번 되돌아 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렸을 적엔 정말 힘든 수행정진도 많았습니다. 해방이후 없어졌습니다만 법화본종에는 한중(寒中)수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한에서 입춘까지 혹한기에 승려들이 모여 추위를 이겨가며 몇 시간씩 꼼짝않고 〈법화경〉을 읽거나 하루 3~4km씩 걸으며 탁발을 하는 수행입니다. 어린 나에겐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죠. 걷다가 걷다가 지쳐 선배 스님에게 업혀 절에 돌아간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어려서 득을 본 적도 많았습니다. 탁발을 나가면 사람들이 어린 스님이 고생한다며, 때로는 귀엽다며 보시를 나에게만 줘 다른 스님들의 몇 배가 되는 보시금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 때 보시자들의 각별한 마음 덕분에 나는 더욱 정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힘들었을 때 함께 했던 도반들도 쉽게 잊혀지지 않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의 일일 겁니다. 7월 백중에 일본 법화종 종정인 마쓰이(松井)스님의 아들인 우에다(上田)와 한강에 방생을 하러 갔는데 내가 타고 있던 배가 물살에 쓸려 떠내려 갔어요. 그것을 보고 다급해진 우에다가 나를 구해주려고 배의 줄을 당겼는데 그게 오히려 화를 자초했지 뭡니까. 배가 뒤집혔어요. 물에 빠져 허우적대며 죽을 지경인 나를 주위 사람들이 건져줘 겨우 살아난 기억이 있었요. 우에다가 후배 스님이긴 하지만 그 사건 덕분에 정이 더욱 돈돈해졌고, 나이 든 지금까지도 귀한 추억거리로 남아있습니다.

함께 공부했던 도반들은 이제 대부분 죽고 2명만이 남아 있지만 나에게 많은 깨달음을 준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타산지석이 돼 간접적으로 깨우침을 주었고, 때로는 따끔한 지적으로 나의 스승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심(下心)하며 받아들일 자세를 갖추고 있는 사람 또한 깨달음의 경지 가까이에 가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요즘 우리는 '인간성 회복'이라는 말을 자주 듣고 이를 촉구하는 글들을 많이 접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인간이 먼저 되야 한다'는 말도 모두 인간성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도로 발달한 기계문명과 극도로 분업화된 사회조직의 현실, 금전만능주의적 세태, 헤일 수 없이 급변하는 사회현상에서 인간관계는 복잡해지고 만연된 불신풍조에서 현대인은 앓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부처님의 말씀은 더욱 간절해집니다. 부처님 말씀은 크게는 '자아의 발견'이라고 하는 대도(大道)의 성취, 탐진치를 버리는 기초적인 인간본성 발견, 선악의 구분 등으로 무명에서 밝은 빛을 얻어 지혜롭고 슬기롭게 살 수 있는 진리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주상(無住相), 자비희사(慈悲喜捨), 사무량심(四無量心)의 실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육바라밀 보살행,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진리를 익히고 배워서 인간이 인간답게 걸어갈 수 있는 인생로(人生路)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일제 식민지, 6.25 사변을 겪은 이후 식량 기근으로 잘살고 못사는 사람의 구분없이 아침을 먹으면 점심을 걱정해야 했던 그때, 이웃 사촌도 있었고 한민족이라는 의리도 있었습니다. 서로 나눠먹을 수 있는 한조각의 따뜻한 마음씨가 있어서 길가는 나그네와 보리밥 한 그릇을 둘로 나누어 냉수에 말아서 배 채우는 인간다운 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기주의가 만연해 촌보의 양보도 없이 각박하기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것은 곧 인생이라는 외줄을 무리하지 않고 끝까지 잘가기 위함입니다.

불자라고 자처하려면 부처님이 깨달으신 도리를 배우고 실천하면 커다란 이익이 온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단호한 확신이어야 하며 이것을 우리는 신심(信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심만 있고 그에 따르는 행동이 없다면 씨앗을 뿌려놓고 가꾸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완전하지 못한 신심은 외부의 불리한 여건을 만나면 곧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배우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림 속의 떡을 아무리 바라보아도 배가 부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종교와는 달리 불교는 지식보다도 아는 만큼 실천하고 이해하여 '지혜'를 체득하는 종교입니다. 미치광이라도 즐겨 배우기를 힘쓰면 성인이 될 것이고, 성인이라도 배우지 않으면 미치광이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중요한 것은 자신이 배우고 익혀서 자신을 이롭게 하고 나아가 다른 사람을 이익케 하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일곱가지 보배를 수미산처럼 쌓아두고 베풀기만 하는 것보다 경전의 한귀절을 배워 전해 주는 것이 더 큰 공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힘찬 포교의 씨가 뿌려질 밭을 가는 농부의 자세로 부처님의 법음이 널리 그리고 깊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불자님들의 노력을 기대해 봅니다.

정리=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나의 수행일기



안 영 일 〈부산진구 구청장〉

불교와 만남은 나에겐 환희심 교리공부·신행통해 불심키워

편모슬하이긴 하지만 지극정성으로 자식의 성공을 위해 노심초사하는 어머님이 계시고, 평생의 반려자로 내조에 빠짐없는 아내가 있다. 그러나 밖에서 일어나는 일거수 일투족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었다.

평소 말이 없는 나를 어머니께서는 언제나 부처님처럼 따뜻한 자비로 품어주셨다. 그러나 물가에 내놓은 아이 돌보듯 염려를 놓지 못하셨다. 천태종 신도인 아내는 힘들 때 보라며 불교 홍보물을 넌지시 가져다 주기도 했다. 불교에 귀의하기 전에는 홍보물을 봐야 한다는 마음조차 내지 못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과의 인연인 것을 터득한 것은 지금부터 22년 전이다. 불혹을 바라보며 가정사와 사업 등에 혼신을 다하고 있을 때 보다 보람있는 일을 해보고 싶었을 때였다. 그 무렵 아내가 가져다 준 불교 홍보물을 우연히 읽게 됐다.



용어는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상월 원각스님의 수행담은 나를 전율케 했다. 나는 그때부터 불교서적을 읽기 시작했고, 아내에게 이것저것 불교에 대해 물어봤다. 어머니는 "지장도량인 남장사와 북장사에 다니며 기도한 공덕이 이제야 결실을 맺는다"며 대견해 하셨다. 결국 나는 〈소백산 구인사〉란 안내 책자를 보면서 "불교를 통해 나의 인격을 닦아야겠다"는 마음을 냈다. 가람불교에서 민중불교 지향, 출가불교에서 재가불교 지향, 염세주의 불교가 아닌 구세주의 불교를 지향하는 내용이 내 마음을 완전히 움직였다.

이제까지 불교는 비생산적이며 출가하여 특정한 사람들만 산중에서 수행하는 줄만 알고 있었다. 심지어는 여자들만 신앙하는 기복종교로 치부하기도 했다. 불교에 대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나는 홍보물을 통해 불교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갖게 됐다. 결국 나는 '불교는 남자들이 신행해야 할 종교다'는 결론을 내리고 아내를 졸라 사찰을 찾아 나섰다.

처음으로 찾아간 사찰이 부산 장전동 광명사였다. 그 사찰에서 또한번 깜짝 놀랐다. 여성불자들만 있을 줄 알았던 사찰에 많은 남자들이 관세음보살을 염송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선 부처님께 삼배를 올렸다. 그리고 아내의 안내를 받으며 법당 참배법과 예불을 비롯한 기초의식을 한가지씩 배우기 시작했다. 신행활동은 해를 거듭할수록 재미가 났다. 불교수행, 가정유지, 사회생활, 경제활동 등이 모두 부처님이라고 생각했다. 그러자 모든 것이 여법하게 이루어졌다.

초발심으로 사찰을 집 드나들 듯이 한 나는 어느날 불교교리를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큰스님법회가 있는 날이면 찾아가 법문을 메모지에 옮겨 적었고, 이를 다시 되새기며 교리공부를 시작했다. 또 불교서적도 읽었다. 한번 읽어 이해되지 않으면 몇번이고 거듭해 정독했다. 〈묘법연화경〉을 탐독할 때는 용어가 너무 난해해 〈불교사전〉을 뒤지며 이해했다. 읽다가 막히면 사전을 보고, 사전에서 막히면 옥편과 국어사전, 민족문화대백과사전까지 들춰가며 교리공부에 열중했다. 물론 사찰 참배 등 신행에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불교를 공부할수록 의문도 많이 생겼다. 그럴때에는 스님들을 찾아 가거나, 가까운 도반들에게 문의하여 궁금증을 풀곤 했다. 회사 운영과 사회봉사활동을 해가며 틈만 나면 불서를 탐독하니 아마도 남이 볼 때 '불교에 미친 사람' 쯤으로 여기지 않았나 생각된다.

각종 불서를 탐독하다 급기야는 금강불교대학의 법사과정과 교법사 과정을 수료했다. 그 인연으로 98년부터 삼광사 신도회장을 맡고 있다. 부처님의 가피라고 믿는다. 나는 삼광사 신도회장으로서 삼보의호와 불심증장에 진력하고, 부산진구청장으로서 종교간 균형있는 행정 편의 제공과 종교화합을 위해 정진하고 있다.

깨침의 혁명화 간결화
「하나한」



어떻게 구름사이로 하늘 본 것을 깨침이라 할 수 있는가?
구름걷는 법과 하늘사는 법을 익혀야 진정한 깨침 아닌가?

기존심성, 영성, 의식계발 프로그램 중입판 아닌 결정판
기독인 중생, 불도인 해탈, 그외분 여의주 모두 함박웃음

5박 6일만에 존재의 꽃을!
花微笑와 悟道頌과 自然舞로 즐겁게!

1부 : 자아 감옥 벗고 지금여기 무한이기
2부 : 대상과 하나되어 모두가 전체이기
3부 : 현상 속 근원으로 삶을 안무하기
- 얼시구 拜上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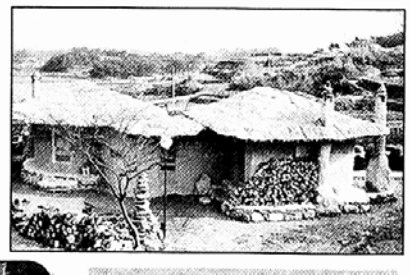
■일 시: 새해 1월부터 매 셋째주 월 15:00 ~ 토 11:00
('99.12월 셋째주 도움반 1/3액 실시)
■장 소: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천송리 517-1
전화 0337-885-1011/ 팩스 885-1022/ H.P 016-206-1001
■참가비: 99(求救)만원
(33만원선입금:나머지등록시 또는 매월 만원 회비 자동이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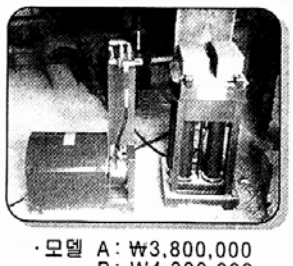
'99.12(8日,15日)19:00-22:00 정신세계원 (02)747-7033 질의응답실습(만원)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모델 A: ₩3,800,000
B: ₩4,300,000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생산량 1일 600~1,000장
■누구나 사용가능
■벽돌기본규격 : 30×14×14
■가정용 전기사용 및 앤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황토관련 전문회사
황토마을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

(魚山) 교육자 양성 전문교육
제1기 佛敎儀式(梵音·梵唄)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 정 (주·야간) ⊙

■기본과정(3개월) :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 법, 도량석,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등
■중급과정(6개월) :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구병시식등
■연구과정(6개월)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나비춤, 육법공양등 각종행사 및 의식에 동참할 수 있음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원서접수 : 99. 12. 26일까지
● 개 강 일 : 99. 12. 27일 오후 1시 정각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사진 3매, 입학원서 1통(본원)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 수료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후보생의 수계득도, 사찰(포교원)창건의 지도와 편의제공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전화, 서신, 문의하면 안내서 보내드립니다)

부산시 동구 초량4동 843번지(부산역 건너편, 선화여상후문 뒤)
☎ (051)467-3316 FAX (051)464-3355
大韓佛敎元曉宗 總本山 金水寺 海東元曉佛敎大學
海東元曉魚山儀式敎育院

숱한 애기꽃 피우려 마을로 간 '대간'

백두대간 속으로 〈5〉

정령치→복성이재

지리산을 벗어난 백두대간은 한참의 내리막길을 만들며 허리를 낮춘다. 그리고는 다시 고리봉(1,304.5m)을 향해 허리를 곧추세우기 전에 잠시 다리쉬임을 한다. 그 틈에 고개 하나가 대간을 가로지르니, 그곳이 바로 정령치(正嶺峙, 1,172m)이다. 남원과 지리산의 심원마을을 잇는 고개로, 서산대사의 황령암기(黃嶺岩記)에 의하면 기원전 84년 마한의 왕이 진한의 공격을 막기 위해 정 장군으로 하여금 고개를 지키게 한 데서 비롯된 이름이라고 한다.



◇대간이 처음으로 만나는 마을인 고촌의 아이들. 대간의 마루금을 밟으며 학교를 오간다.



◇고남산에서 오던길을 되짚어 보았다. 멀리 지리산의 봉우리들이 보인다.

사람이 그리운 걸까? 고리봉을 넘어선 백두대간은 도무지 대간의 등마루라고 믿기 힘들 정도의 평지로 몸을 바꾼다. 고촌, 주촌, 가재로 이어지는 마을을 지나며 이집 저집 담장 너머를 기웃거리기도 하고, 학교를 파한 후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헤찰을 부리는 아이들의 틈에 끼어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기도 한다.

가재 마을에서부터 백두대간은 다시 산을 오른다. 그러나 냉큼 꼭대기를 향하지는 않는다. 범접하기 힘든 위엄을 갖춘 우람한 소나무 사이로 산신을 모셔둔(비석) 것이다. 산악신앙의 한 보기라고 스쳐버리기엔 그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 산 자체를 신령스러운 존재로 여기는 이 마을 사람들의 미쁜 마음씨가 그대로 전해온다. 이에 비하면 대량생산이라는 마술에 걸린 오늘날의 농업이나 무분별한 개발 행위는 자연에 대한 테러에 가깝다 하겠다.

가재마을에서 수정봉(804.7)을 지나 고남산(846.4)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의 오른쪽으로는 크고 작은 마을들이 결쳐져 있다. 운봉! 이름만 들어도 한 무리의 구름이 눈에 어른거리는 듯한 바로 그 고을이다. 고원에 자리잡은데다 세걸산, 바래봉, 덕두산의 줄기를 병풍처럼 두른 탓이어선지 곧잘 구름으로 하늘을 삼는다.



◇고남산에서 바라본 운봉의 아침. 이내처럼 마을을 덮은 구름이 '운봉'이라는 이름에 참으로 잘 어울린다.

운 봉 호쾌한 소리 동편제 고향
여원치 미륵이 된 주막여인 전설
황 산 이성계가 왜구 물리친 곳
성 리 쫓겨난 홍부 발복한 동네

한여름에도 무더위를 모르는 이 곳은 가을걷이 또한 빨라서 전라북도의 추수1번지로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이 고을을 주목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관소리와 관련이 깊다. 동편제의 고향인 것이다.

발성이 가볍고 소리의 꼬리를 길게 늘이는 서편제와는 달리, 무거운 발성에 소리의 꼬리를 짧게 끊는 씩씩하고도 호쾌한 소리가 바로 동편제이다. 여기서 잠시 짚고 싶은 사실은 동편제니 서편제니 하는 구분이 지역성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전라도 동북 지역의 소리가 동편제이고 전라도 서남 지역의 소리가 서편제인 것이다. 그 기준이 산줄기임은 강조하기조차 새삼스럽다. 어쨌든 조선 순조 때의 명창인 송흥록으로부터 박만순, 송우룡, 송만갑으로 이어지는 동편제가 이곳 운봉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은 똑똑히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박초월(1915~1983) 명창이 태어나서 소리를 얻은(得音) 곳도 이곳이다.

수정봉을 내려선 백두대간은 또 한번 자신의 허리를 밟고 지나는 포장도로를 만나게 된다. 남원에서 운봉을 거쳐 함양으로 이어지는 24번 국도가 바로 그것인데, 백두대간을 넘는 고갯마루인 여원치(女院峙, 450)가 거기에 있다. 여기에 참으로 비극적인 전설이 어려 있으니, 잠깐 귀를 귀울여 보자. 왜구가 노략질을 일삼던 오랜 옛날, 꽃같이 아리따운 젊은 여인이 주막을 열고 있었단다. 그러던 어느 날, 왜구 몇놈이 주모에게 달려드니, 차마 왜구의 노리개가 될 수 없었던 주모는 그만 자신의 가슴을 칼로 도려내고 말았단다. 훗날 사람들이 길가의 바위에 그녀의 모습을 새기니 미륵의 모습으로 현현하더라는 것이다.

내친 김에 한걸음 더 지난날로 돌아가 보자. 여원치를 넘어 곧장 나아가면 운봉읍의 머리쯤 되는 곳에 자리잡은 황산(荒山)을 만나게 된다. 이성계가 조선의 태조가 될 기반을 마련해 준 황산대첩(계백 장군과 관계 있는 황산벌은 논산에 있다.)의 현장이 바로 그곳이다. 고려 말기인 우왕 6년(1380) 8월, 500여척의 대선단으로 침입한 왜구는 충청, 전라, 경상 3도 연안을 유린하기 시작했는데, 일단 최무선이 최초로 화포를 사용하여 함선을 모두 불태우는 전과를 올린다. 그러나 목숨을 구한 360여명의 왜구들은 육천 폭으로 도주하여 이미 상륙한 왜구들과 합류한 뒤 더욱 잔혹한 만행을 저지르면서 북상하여 9월에는 운봉에까지 이르게 된다. 바로 이 순간 왜장 아지발도와 이성계는 운명적인 조우를 한다. 당연히 아지발도를 우두머리로 한 왜구는 섬멸되었고, 아지발도가 죽은 자리는 지금도 붉은 빛이 선연하여 피바위로 불리고 있다.

잠시 쉬어가자는 뜻이었는데 그만 잡담(?)이 길어졌다. 대간은 다시 사람들의 흔적을 지우며 고남산을 향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고남산 정상 부근에는 한국통신의 중계소가 괴기스런 모습으로 버티고 앉아 사람의 흔적을 더욱 짙게 드러낸다. 휴대 전화기를 몸에 지닌 채 그런 생각을 한다는 사실을 계담고는 한참이나 씁쓸한 웃음을 흘려야 했다.

고남산에서 동쪽으로 발길을 돌린 백두대간은 버들재(柳時)를 지나 매요마을을 어슬렁거리다가는 88고속도로를 가로질러 잡목이 우거진 산기슭으로 발길을 재촉한다. 여기서부터 반나절쯤 가쁜 숨을 토해내면 백제와 신라의 격전지였던 아막산성에 이를 수 있다. 이곳에서는 되도록 느긋하게 숨을 고를 필요가 있다. 몸을 돌려세워 먼 산으로 눈길을 주면, 지나온 발걸음들은 지리산의 연봉이 되어 우뚝 솟고, 몸을 바로 세워 가야할 곳을 바라보면 봉화산, 백운산, 멀리 덕유산이 빨리 오라 손짓을 한다.

아막산성에서 계속 키를 낮춘 백두대간은 복성이재라는 고개를 지나게 되는데, 오른쪽으로 마을 하나가 내려다보인다. '흥부마을'로 널리 알려진 남원시 아영면 성리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난 것은, 이곳을 흥부마을로 부르면 펄쩍 뛰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남원시 동면 성산리 또한 흥부마을로 불리는 까닭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짐작대로, 몇 년 전에는 원조 경쟁까지 있었다. 그러나 이 두 마을의 다툼은 아주 점묘한 방식으로 마무리를 한다. 심판은 경희대학교 학술조사단. '93년에 남원시의 의뢰로 경희대 민속학 연구소에서 '흥부전'을 고증한 결과, 동면의 성산리는 흥부가 태어난 곳이고, 아영면의 성리는 놀부에게 쫓겨난 흥부가 발복을 한 곳이더란다. 둘 다 흥부마을이라 불려도 안될 게 없는 셈이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흥부가 태어난 곳은 놀부마을로 부르고 성리만을 흥부마을로 불러야 하지 않을까? 그래도 문제는 남는다. 연유야 어찌됐건 대놓고 놀부라고 부르는 데도 언짢아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

또 객쩍은 얘기가 길어졌다. 어쩔 수 없었다. 남원을 지나는 백두대간은 이리저리 몸을 뒤틀며 참으로 많은 얘기들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윤제학 기자
사진=

BBS 불교방송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존폐의 위기에서 안정을 확보하였습니다.

- IMF 환란으로 지난해 광고수입이 감소하여 (70%) 개국 8년만에 최악의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 成樂承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80억원의 적자를 탈피하고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 불자님들의 정성어린 후원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BBS 불교방송은 공중파 방송언론사로서의 새로운 위상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 생동감 넘치는 신선한 뉴스 프로,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다양한 교양 프로,
- 어려운 이웃의 고통을 덜어주고 편안하고 독특한 포교 방송으로 청취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2,000만 불자 모두가 불교방송을 청취하시면 매월 20억원의 광고수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정성어린 후원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불교방송 서울 본사 : FM 101.9MHz
부산지방국 : FM 89.9MHz　광주지방국 : FM 89.7MHz
대구지방국 : FM 94.5MHz　청주지방국 : FM 96.7MHz

BBS 불교방송
◆후원회 ARS : (02)700-0108
㉾ 121-050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대표전화 : 02-705-5114)

⊙ 후원회 : (02)705-5560-1　⊙ 방송참여 : (02)705-5555~8
⊙ 후원회 지로번호 : 8003478　⊙ F A X : (02)705-5229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괴로운 일 잘된 일 다 놓고 덤덤히 사세요



그림 · 최주현

진실하고 착한 이에게 해인 주어져
남 섭섭지 않게 부드럽게 행동해야

남도 내마음과 같게 하려면…

문 대행스님께 여쭙니다. 저는 창녕에서 공부하고 있는 불자입니다. 범부중생이 마음이 답답하여 한 구절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게는 어려운 일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저는 남의 마음을 내 마음같이 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스님, 남의 마음을 내 마음같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오로지 내가 나를 굴릴 줄 알고, 내가 내 몸 속에 있는 자생 중생을 굴릴 줄 알아야만이 바깥에 있는 만 생명들의 그 의식을 같이 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 악하게 마음을 먹는 자는 그게 미해지지만, 악하지 않고 조건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지혜가 넓은 사람은 반드시 자유스럽게 실천할 겁니다. 악한 자에게는 열쇠가 돌아가지 않지만 진실하고 착한 자에게는 열쇠가 돌아갑니다. 내 마음을 쓰는 것은 우주간 법계에까지 전달이 되는 거니깐요, 통신이 되고, 이걸 거짓으로 알아서는 안됩니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려면 평소에 생활을 하면서도 남에게 섭섭하게 말하지 말고 섭섭하게 행동하지 말고 항상 부드럽게 대하면서 상대의 부족한 면을 보더라도 '아, 몰랐을 때 내 모습이지.' 하고 돌아니게 놓아간다면 언젠가는 상대와 나라는 생각들이 녹아지고 다 나 아님이 없음을 알게 될 겁니다.

습이 자주 나타납니다

문 저는 큰스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습이란 놈이 자꾸 튀어나와 어떨 때는 '에라 모르겠다' 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스님께서는 선도 악도 다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세속의 도덕적 판단으로 악을 놓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저에게 인욕이 모자란 탓일까요? 저를 택한 아이들이기에 소중하고 귀한 인연으로 어머니의 역할을 다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제 눈 높이에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이 탐욕도 주인공에게 몰락 놓는다면, 아이들이 신바람이 날까요? 아침마다 가짜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주인공이 사는 생활이 되도록 관하며 하루를 엽니다. 주인공은 이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알겠지요?

답 가족 중 자식이든지 남편이든지 속을 썩이더라도 강압적으로 하거나 혹은 욕을 하거나 볼 적마다 야단을 친다면 그건 더 빗나가기 쉽습니다. 누구든지 보금자리가 따뜻해야 하고 시원해야 되겠죠? 마음이 포근하고 따뜻해야 됩니다. 첫번째도 그렇고 두번째, 세번째도 그 점이 중요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마음과 마음에 불이 들어와야 육신도 움죽거리는 거지, 마음이 통하지 않고 마음이 엇나가는데 어떻게 그게 잠잠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말이나 짜증으로 닥달을 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인간 · 꽃 · 새 · 벌레등
무엇과도 통할수 있어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기를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인간하고는 물론이요, 개미하고도 통하고, 바퀴벌레하고도 통하고, 꽃하고도 통하고, 날아다니는 새하고도 통하고, 무엇이든 통하지 않는 게 없다고 했죠. 지렁이 하나도 곤충 하나도 통하지 않는 게 없다구요. 그런데 하물며 내 식구라는 거, 내 자식이라는 거, 부모라는 거, 남편이라는 거 또는 아내라는 가설이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전달을 하지 않고 말로 하거나 화를 내서 도리어 상황을 나쁘게 만드는 겁니다.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내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모든 식구들에게 불이 들어온다는 그런 믿음과 폭넓은 지혜를 가지고 불을 켤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제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요

문 안녕하십니까, 스님. 묌고도 싶고, 안기고도 싶고, 울어보고도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짧은 시간 헛되이 살아오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에게 있어서는 육신의 허물을 어떻게 벗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선한 척 하면서 돼지 같고, 고귀한 척 하면서 색마 같은 저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는지요.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누구인지를…,

답 그렇게 아는 것이 바로 자기입니다. 우리가 자기의 근본이 없다면 잘한 걸 알고 잘못한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바로 자기 근본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지은 대르예요. 알면서도 지었으면 알고 받을 것이고, 모르고 지었으면 모르게 받기 마련이죠. 모든 것이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잘못하는 거든 잘하는 거든 일체를 공한 자리에다가 다시 맡겨놓으라는 것입니다.

우연히는 없습니다. 그러니 생각으로 괴로워하기보다 하나라도 녹이려고 해야 하겠죠. 그렇게 괴로운 것조차 놓아야 해요. 헛되이 살지 않았나 하는 것도 놓으세요. 그것 또한 본인의 사량입니다. 괴로운 것도 놓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놓고 덤덤하게 사세요. 때로는 혼자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혼자가 아닙니다. 공생 · 공심 · 공체 · 공용 · 공식화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몸속에 들어 있는 생명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데 혼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자기가 누구인지,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정말 헛된 것이 어떤 것인지를 헤아려 보세요.

믿지 못하고 방황해요

문 너무나 사랑하는 큰스님께 인사올립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 관계로 청주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스님, 제가 너무 못나고 게을러서 생활 속에서 큰스님의 가르침을 그르칠 때가 많이 있어요. 머리 속으로는 이렇게 해야 할텐데 하면서도 실제로는 인연에 끄달리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는 합니다. 하나라도 실천은 못하면서 매일같이 눈물만 주룩주룩 흘리곤 해요. 큰스님과 여러 스님들과 제 주인공 자리에 너무도 죄스러운 마음이에요. 언젠가 큰스님께 질문을 올렸을 때 '무조건 믿어' 하신 그 말씀을 가슴깊이 새겨 실천하려 하지만 막상 생활 속에서는 그것이 실제로 지켜지지가 않아요. 또 일상생활 속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큰스님, 여기 방황하고 있는 한 젊은이에게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부디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저희 곁에 머물러 주세요.

답 답답한 것도 망상도 그 속에서 나오지 다른 데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자는 거 다니는 거, 밥 먹는 거 똥 누는 거, 생각하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모든 게 그 속에서 나와요. 그렇죠? 한 놈 속에서 벌어져요, 한 주먹 속에서 벌어진다 그 말이예요. 그러니 그렇게 모든 것이 내 안에서 벌어진다는 것을 진실로 믿고 무조건 그 자리에다가 놓을 수만 있다면 어떤 것도 어려울 게 없고, 방황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껄껄 웃을 뿐이죠.

나라는 게 본래 없어서, 체가 없고 걸리는 것도 없는데 뭐가 어려울 게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다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무조건 믿고 놓고 지켜보는 작업을 꾸준히 하다보면은 가슴에서 탁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마저 내 안에 다시 놓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서부터는 외롭지 않게 되고, 답답하지도 않게 되고, 방황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냐, 내 안의 참 주인이 나와 둘 아니게 함께 하는 거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고 들어가야 나라는 게 벗겨지고 참 주인이 발현된다 이거죠. 꼭 그렇게 해요, 알겠죠?

되돌려 놓는 공부 잘 안돼요

문 스님! 처음 이 불법을 만났을 때의 그 환희스런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온 식구가 열심히

☞ 16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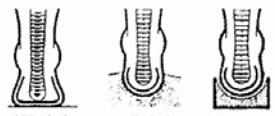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수행자를 위한 건강 코르크 수제화신발 "귄行"

귄行 신제품

스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건강콜크 신발의 구조와 기능



기존신발 모래사장 건강콜크 신발

◆구조: 反射原理(반사원리)로 만들어 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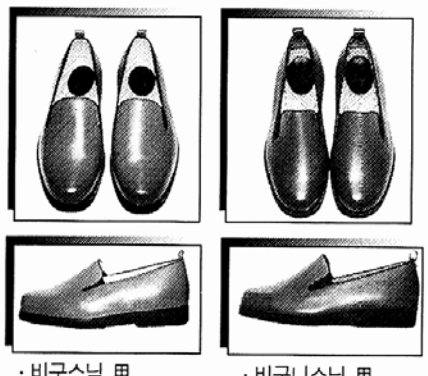
사람의 발바닥과 발에는 63곳의 반사점(경혈)이 (피츠제너럴드:반사이론)(약식건강법) 있습니다. 이 반사구에 적당한 마찰이 가하여 질때 집중된 말초신경의 에너지 순환작용을 활성화 시켜 질병은 현저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며 가장 탁월한 예방의학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신발 만행은 발의 반사구를 골고루 밀착 자극하여 주는 인체 공학의 설계와 천연 코르크의 뛰어난 특성과 최고급 피혁이 삼위일체를 이루어 신고 걷는 사람의 체중과 적합한 조화가 이루어 지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기능 : 循環原理(순환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신체에는 혈관의 종횡 무진으로 뻗어 있고 이 혈관을 크게 나누면 동맥 · 정맥 · 모세혈관의 3가지로 구분합니다. 동맥은 영양과 산소를 나르고 정맥은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나르고 모세혈관은 동맥이 운반해 온 것을 신체 구석구석의 세포로 건너주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정맥으로 나릅니다. 어느 기관의 부위가 불건강하면 그 순환기능이 반드시 불량 현상을 일으켜 말초신경 및 지구인력의 작용에 의하여 노폐물(요산화합물)이 무릎 위 10cm까지 고이게 됩니다. 그때 발의 반사구를 적절히 비벼주거나 자극을 가하면 신장등의 배설기관에 의하여 쌓여있던 노폐물이 체외로 배출되어 집니다.

스님전용신발 "만행"

길없는 길위에 서 있는 수행자 들만을 위한 전용신발 - 귄行 만 행



· 비구스님 用 · 회색, 흑색
· 비구니스님 用 · 회색, 흑색

건강신발 귄行의 특징
1. 구두안쪽의 특수 안창은 천연코르크로 만들어졌습니다.
2. 건강신발은 바닥안창이 발바닥 굴곡 그대로 설계하였습니다.
3. 운동부족으로 인한 평발예방, 관절과 디스크 보호,
4. 신장기능개선

구입문의 0342)742-0296. 742-0297
귄行대표 박동진 합장

누구나 꼭 알아야 할

대체의학과 음양침술 특별강습회

대체의학을 알면 인류는 각종 성인병과 불치병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대체의학은 몸 안에 자연 치유력을 강화시켜 어떤 질병이라도 5~15일이면 효과를 볼 수 있게 합니다.



강사 이 상 문
■저서
음양감시보감/ 밥따로 물따로/
세계를 이끌어갈 한국 · 한국인

특강요지
대체의학이란 무엇인가?
만병이 오는 원인과 예방법
기의 실체와 음양순행의 원리
병 증상은 수십가지로 나타나도 원인은 두가지 뿐이다.

음양침술이란 무엇인가?

(저자가 37년간 응용한 비법입니다.)

음양침술은 우리 인체의 365혈을 대표로 7혈만 응용합니다.
예를 들면 두통, 편두통, 견비통, 요통, 팔, 다리, 손목, 발목, 좌골 신경통, 관절염, 소화불량, 가슴이 답답한 증세, 급체 등으로 고통이 있을 때, 1~2혈만 침을 놓으면 1~3분 이내에 신기할 정도로 효과가 나는 것이 음양침술의 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양침술에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다음과 같은 3대 증상을 알게 됩니다.
▶첫 째 : 남자들의 소화불량으로 가스가 차고 피로가 많이 오는 증상 등등
▶둘 째 : 여자들의 소화불량, 히스테리, 불면증, 피로권태, 얼굴기미 등등
▶셋 째 : 침이나 뜸이나 약으로도 치료가 안되는 증상 등등
음양침술은 간단한 공식이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5시간만 강습을 받으면 가족은 물론이요, 이웃을 위하여도 봉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쉽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상식적으로도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대체의학과 음양침술은 범 국민적 차원에 보급하기 위하여 매주 토요일 오후 1시~6시까지 특별 강습회를 갖습니다.
●참석하신 분은 전화로 미리 예약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쉬운 안내 2호선 전철 신대방역에 하차하시고 1번 출구로 나오셔서 4거리를 건너면 신림 4동 파출소가 있습니다. 파출소 담을 끼고 골목안 50m 정도 들어오셔서 (음양사) 간판이 있는 건물 2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음양사 서울시 관악구 신림4동 500-1 (201호)
■문의처 : 02)861-5851~2 / FAX : 02)861-5852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우리는 본래 무한한 힘·생명 갖춘 부처

☞ 15면에서 계속

이 공부하여 자유인이 되고자 원을 세웠건만 찰나찰나 변하는 이 마음을 어찌하오리까. 스님! 몇 달 전부터 놓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위만 맴돌고 있는 것같아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스님! 이 공부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 바로바로 되돌려 놓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제 힘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큰스님의 대원력이 있으리라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합장합니다.

답 한 생각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즐거울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각자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려한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간절하게 맡기고 놓고 지켜보며 기다릴 수 있어야지. 지켜보지도 않고 안절부절하고 불안해한다면 더 어지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믿고 맡겨놓고 기다리면 그냥 굴려져서 해결 될텐데도 말입니다.

가만히 보면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분들이 어떨 땐 터무니없이 야단일 때가 있어요.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속지 말고 대처해 나가야 하는데, 자기에게 자기가 속아서 본인은 물론 주위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묶였으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풀어야 할 텐데 더 묶이고 마는 형상이 되는 겁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주인공에 놓는 작업, 지금까지 있게 한 자기 주처를 믿으며, 어떠한 병고 액난이 닥쳐오더라도 거기에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맡겨놓고 물러서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조급한 마음으로는 도의 길에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묵연한 마음으로 자기의 주인을 믿고 들어가야만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초조하고 답답한 그 마음을 먼저 놓고 지켜보십시오.

'내가 공했다'는 뜻

문 스님, 저는 개인적으로 관계사고라는 정신병을 앓고 있습니다. 관계사고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서로 말하거나 웃으면 내 욕을 하거나 비웃는 게 아닌가 하고 의심을 가져서 괴로움을 느끼는 병입니다. 신경정신과에도 다니지만 그들 이론에 대한 어설픈 알음알이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여전히 괴롭습니다. 저는 '그래, 신경정신과에 다니는 것도 네가 하는 것 아니냐? 그 의사의 마음을 빌어서 낫게 하는 것도 너잖아!'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주인공 너만이 괜찮게 할 수 있잖아' 하고 관하고 있습니다.

며칠전 법회에서 듣게 된 "고는 마음을 승화시키기 위해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내가 마음공부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상과 아만과 아집이 가득찬 초심자일 뿐이었다는 것을 차츰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음으로 진정 죽는다면 저의 병도 상관없이지겠지요. 계속 맡기면 내가 죽는 동시에 병도 흔적이 없어지겠지요? 내가 공했다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누구나 불가사의한 다섯 가지 신통력의 작용을 갖추어 가지고 있는데, 그 중 숙명통은 컴퓨터로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지은 대로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모든 인과, 유전, 영계, 세균 등 업보가 하나하나 현실로 나오는 것이니, 팔자 운명 타령하지 말고 다가오는 대로 다시 되 입력시키면 과거의 것은 모두 무너져 버립니다.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모두 내 탓으로 돌리고, 근본을 믿는 마음으로 나온 곳에 되놓아야만이 고난을 극복하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꾸준히 그와 같이 믿고 맡기면 고가 무너지고, 착 또한 없어집니다. 어떠한 것에도 착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유인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 이론으로만 알려고 하지 말고 자기 근본을 믿으십시오. 백 번 외우는 것보다도 백 가지를 알고 있는 것보다도 한 번 실천하는 정신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결혼에 궁합도 중요한지요

문 기복 불교에 조금은 물들어 있던 저에게 대행스님의 법문과 책은 신선한 충격이었으며 새로운 용기도 생겼답니다. 감사드립니다. 스님, 저는 32살 된 미혼여성이며 그 동안 맞선도 많이 봤답니다. 그 동안 제가 제일 먼저 기본으로 꼽는 결혼상대자 조건은 저와 궁합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지만, 오랫동안 간직한 생각이라 쉽게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주위의 친구를 볼라치면 철학관을 통해서 "궁합이 좋다"는 소리를 들은 부부들은 순탄히 잘 사는 것 같고 "궁합이 나쁘니 결혼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은 친구 부부들은 매사 어려운 일도 많이 생기고 심하면 이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님, 결혼에 있어 궁합도 중요한지요, 아니면 궁합에 상관없이 결혼해도 되는지요. 이 글을 쓰는 제 자신 한심하단 생각은 들지만 답답하고 혼란스러워 이렇게 여쭙니다. 꾸지람 내려 주십시오.

답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아닌 딴 곳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육신은 의사와 병원에 의지하고, 가난은 남에게 기대어 해결하려 하고, 운명은 사주 관상쟁이에게 물고, 자녀 교육은 학교에 맡기고… 하는 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은 될 지 몰라도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지만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그 옷 자체가 내 몸이 될 수는 없듯이, 아무리 그럴듯한 것이라도 나 자신 아닌 것에서 찾은 것은 나 자신이 될 수가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찾으라고 나는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 속에서 의사를, 병원을, 그리고 해결책과 치유책을 찾아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밖으로 도느라고 그 무한한 내면의 해답을 끌어낼 줄 모르고 언제까지나 바깥의 상황에 얽매여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니 그러다보면 언제까지나 노예로서 사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내 안의 주인이 잘 압니다. 내가 결혼을 해서 좋을 지 나쁠지를 내 안에다 한번 지극하게 관해 보세요. 내 안에 해결사가 있고 내 안에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주인이 있음을 100%로 믿고 진실한 마음으로, 좋고 나쁘다는 마음을 버리고 주인공에 일임해서 믿고 맡긴다면 분명히 답이 나올 겁니다. 꼭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업이 녹을는지…

문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불자로서 살아가다 보면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계를 어기고 후회하고 난 뒤 마음을 잡고 다시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면서도 잘못을 저질렀던 것에 대하여 후회하는 반복인 것 같습니다. 업이란 의지를 갖고 행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업을 녹여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항상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배낭을 짊어지고 나왔기 때문에 과거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속에 이미 수억 개의 악업 선업을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거가 어디 있습니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없구요. 그럼 그 배낭 속에, 몸이 배낭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렇게 수억 겁을 거치고 진화되면서 쫓고 쫓기면서 인과를 짓고 업을 지은 그 악업 선업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느냐?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모두 나오는 대로 용도에 따라서 나온 자리에 다시 다 맡겨 놓으신다면 바로 과거의 것은 무너지고 없어진다 이 소립니다.

그렇게 되면 좋게 생각하고 맡기는 것만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숙명통이라고 하죠. 숙명통을 비유한다면 지금 컴퓨터와 같은 겁니다. 과거에 짊어진 입력이 나오는 것이 마치 컴퓨터에 입력하면 그대로 나오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나는 그렇게 해도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안 되긴 뭐가 안 됩니까? 생활이 그대로 부처님 법이자 우리들의 법인데, 여러분이 있으니까 상대가 있는 거지, 여러분이 없으면 상대가 있을 리가 있나요. 무효지.

그러니 바로 여러분 배낭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딴 데서 나오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배낭 속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구요. 그러니 배낭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다 맡겨놔야만이 앞서 입력되었던 것이 없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천차만별로 나오는 그 액난을 어떻게 대처하고 나갈 겁니까? 거기서 나오는 줄 모르고, 남을 통해서 나를 지겹게 만들고, 남을 통해서 망하게 만들고, 남을 통해서 사기를 당하거 하는 등 별의별 우환이 바로 다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억지로 못합니다. 그러니 거기에다 모든 것을 맡겨놓고 곧바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공간이 정말 없습니까

문 큰스님 안녕하십니까. 지면으로나마 스님과 이렇게 한자리 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큰스님 법문중에 공기 주머니를 벗어나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즉 지구를 벗어나 보라는 말씀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한편 마음을 넓히라는 말씀과도 일맥상통 하겠죠. 1세기 전만 해도 감히 생각지도 못한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지구를 볼 수 있고, 달과 화성의 표면도 볼 수 있습니다. 지구 생성을 46억년으로 추정하여 그것을 한시간으로 볼 때 인류가 존재한 시간은 단 몇 초에 불과한 시간이라 하니 5천년 역사니 불기 2543년이라는 시간적인 개념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주에서 볼 때 지구가 포함돼 있는 태양계는 한쪽 구석진 곳에 위치해 있답니다. 우리는 은하계의 중심으로부터 3만 광년이나 떨어진 곳에 있다 하니 그곳에 공간의 의미 역시 있을까요. 바로 4차원의 세계가 우주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큰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과 공간이 없다는 말씀은 깨우침의 세계에서만 알 수 있는 것일까요.

답 우리가 지금 마음공부를 한다는 것은, 마치 폭포수가 쏟아지는 것과 같이 틈을 주지 않는 마음 법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비행기의 프로펠러가 돌아가는데 거기에 한 치의 틈도 없이 돌고 있는 도리를, 본래 시간과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한 치의 틈도 없이 돌고 있는 이 세상을 바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본래부터 자기의 근본은 시공을 초월하고 모든 상대적 세계를 초월하여 고정된 바 없이 쉴 사이 없이 나투어 돌아가고 있으므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현상계의 모습입니다- 본래 그 어떠한 악업 선업마저도 붙을 자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듯이 부처님께서는 생활에 어떠한 악업 선업이 있다 해도 결코 거기에 속지 말라, 걸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근본 자리는 어디에도 고정되게 머무는 바 없지만 그 어디에도 쉴새없이 나투어 돌아가고 있으므로, 그것을 공했다, 주인공이다,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오로지 자기 주인공만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진실하여 결코 물러섬이 없다면, 마치 타는 불에 떨어지는 눈처럼 어떠한 악업이라도 스스로 녹아버려 해결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진실하여 결코 물러섬이 없다면 새삼스럽게 348계다, 250계다 하는 것들이 다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주인공에 대한 믿음에 물러섬이 없다면 자연히 일체가 둘이 아님을 알게 되고, 일체를 둘 아니게 보게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 모습으로 볼 수 있는 자비가 우러나오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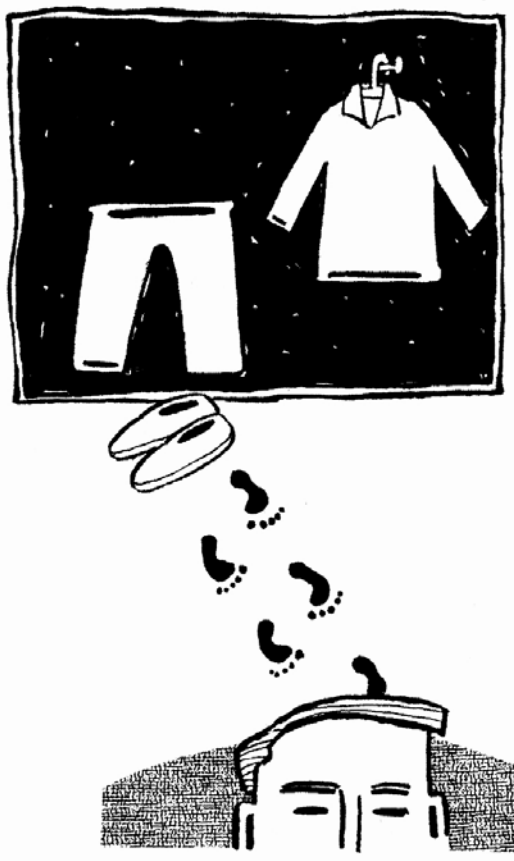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래서 백지 위에 그려진 글씨를 알려고 10년, 20년을 애쓰지 말고, 글씨 쓴 백지, 곧 '너 자신부터 알아라!' '너 자신부터 믿어라!'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을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 마음이 탁 터지게 되고 또 모두가 둘이 아님을 알게 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 모든 것을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왜 그 '꿈'를 당하고만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알려고만 하지 하나라도 실행해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러니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을 쉬고, 그 알려고 하는 그 놈이 누구인가를 지켜보십시오. 그래야 진정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영혼 구제해 드리고 싶어요

문 얼마 전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평소에 효도 한 번 못하고 못되게 굴었던 모든 것들이 죄책감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괴롭힙니다. 모든 것을 주인공에게 맡기고 '주인공 당신이 다 잘 이끌어 줘'하고 생각해보지만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 내 마음의 안정을 찾자고 주인공에 맡기는 것 같습니다. 스님, 아직 49재를 지내지 않은 아버지의 영혼을 위해 제가 도움이 될 만한 일은 없을까요?

답 그건 여러분이 어떻게 마음을 가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부모님의 죽음에 대해 얼마만큼이나 의연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평소에 못 해드렸다는 생각때문에 그러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후회만 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슬퍼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더이상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해드릴 수가 없는 걸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효도의 한 방법으로 사십구재 및 천도재를 지냅니다. 다행히도 아버님 사십구재가 아직 지나지 않았으니깐 그동안 못해드린 몫까지 최선을 다해 아버님을 위해서 관해드리세요. 정말 간절하게 관해드린다면 그거야말로 효도하는 길인 것이죠.

또 부모가 연로하셔서 건강하게 사실 수가 없다면 이 생에서의 모든 괴로움을 벗어버리고 부모님이 편안하게 다음 생에서 보다 더 나은 몸으로 바꾸실 수 있도록 자손들이 지극하게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이제라도 부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가시게 돼 있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효도임을 알아야 합니다.

종이 각지를 벗을 때, 다 익었다면 쉽게 벗어지듯이 부모님이 고통을 느끼지 않고 자유스럽게 가실 수 있도록 그 마음 변치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관(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님은 딸이 슬퍼하는 걸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과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마음을 가다듬고 아버님께 못해드린 효도를 아쉬워하는 마음을 접어두고 아버님이 이 생에서의 모든 습을 벗어버리고 한 차원 높은 의식의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지극하게 마음을 내세요.

마음의 평온도 공부 체험인지요

문 스님! 법체 항상 건강하시길 마음 내며 글을 올립니다. 주위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보통, "내가 주인공한테 관을 해서 뭐가 이루어졌다"이런 것을 체험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도 물론 체험이긴 하지만, 무슨 일이 닥치든 맡겨놓고 지켜보면서 자기의 마음이 평온할 수 있도록, 자기 마음을 해결하는 것이 진짜 체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님, 저는 평소에 지원의 스님으로부터 "생각이 많다", "공부를 너무 복잡하게 한다"며 꾸중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를 내세우는 상이 강해서, 겸손한 마음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부족한 점을 알고 있기에, "알고 있는 당신이 해결해야지!"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스님, 스님께 드리는 저의 질문 또한 그저 공부를 복잡하게 하는 저의 생각일 뿐일까요?

답 우리는 모두가 무한하고 영원한 힘과 생명을 지닌 부처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살아왔던 의식에 눌려서, 이런 이야기가 당장에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쉽지 않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분들에게는 우선 작은 일에서부터 참나(眞我)의 힘을 체험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을 나의 사량심에만 의존하거나, 다른 권위와 방편에만 의지하지 말고 내 안에 깃들어 있는 무한한 동력을 가진 발전소를 활용해 보라는 말입니다. 그러다보면 조금씩 내면의 힘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다가오는 모든 것을 근본 자리에 믿고 맡기는 작업을 계속하시라고 항상 말씀 드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는 도반들을 상대로 보고 공부를 해 나간다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데는 내 근본 자리밖에 없다 하고 몰락 의지해야 할텐데도 불구하고, 믿고 맡기는 마음보다는 상대로 보고 나와 남을 사사건건 간섭하려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뚱 굴러가는 것을 봐도 저 똥이 어디로 굴러가느냐고 야단들인데 그것이 어디로 굴러가든지 상관할 사이가 없어요. 오직 죽든지 살든지, 나의 근본으로 향하는 그 마음만이 나를 살리고 나를 이끌 수 있음을 믿고 뛰어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두 내안에서 일어난 것인줄 알면 방황안돼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어야 둘아닌 도리 알아

협찬 한마음선원 신도회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건강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 · 생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834-1115~6
016)849-3858
012)1166-3858

강좌

남 너 비구 비구니 **철학원생 모집**
첫번째 인연은 전생에 있고
두번째 인연은 운명에 있다.
세번째 인연은 이름에 있고
네번째 인연은 궁합에 있다.
오복은 이것을 잘 분석하는
진정한 도인을 만남에 있다.
사주 작명 관상 풍수부적
02)999-4804/02)999-5551 **달마 스님**
02)921-4804/02)928-5551
051)418-4804

사주 명리학 강의
★ 6개월 완성 ★
초보에서 완성까지(스님직강)
(사주, 택일, 궁합 작명등)
※스님 佛者 환영·출가상담 ※
(수강료:월 10만원)
월·화·수 오후 2시부터
인천 032-504-1387
H.P 011-9046-9903

찬불가 피아노 렛슨
前 신라 · 워커힐 방송피아니스트
찬불가, 가요, 가곡, 팝송을 피아노 치며 노래하는 반주법
초보 3개월 완성
⊙찬불가 합창 반주자반
⊙프로연주반 - 전공자 중심 렛슨
02)842-3517 (서울)
011)742-1999
※관현악, 국악, 성악, 출장연주

역학 수강생 모집
▶과목: 사주, 옥효, 신수, 작명, 관상
▶과정: 기초반, 연구반, 자격증반, 창업반
▶시간: 오전10시~12시, 오후 3시~5시
저녁 7시~9시 (월~금, 주5일)
▶강사: 엄윤문 원장(명학비해 外 20여권 저술)
김희선 선생, 전종남 선생
▶기타: 사주감정 의뢰하실 분(3만원 입금후 전화요)
제일은행(105-20-258212) 전 종 남
▶문의: 02)752-9013~4, 지하철 서울역③번출구
20년전통 **청운역리학원**

전통불교의식 학인 모집
◆ 습의과정 ◆
도량석·쳇송·상단예불·각단예불·불공시식
대령관욕·신중작법·지장청·관음시식
다비의식·특별의식등
◆ 기본반·중급반·통신반 ◆
◆ 지방수강생 모집 ◆교육기간: 3개월
대한불교조계종 **전통불교의식연구원**
서울 강남구 삼성동 77-1(봉은사옆)
☎ 02)511-0108

구인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0664)
782-0588

공 채
주부사원 모집
보령제약(주)
고졸이상
35세~55세
10시~17시 근무
02)766-0057
02)3675-0397

불교용품

사찰 걸립할 터를 시주할 신심있는 불자를 찾습니다
011)
9027-8207

구 인
한식구처럼
기도하면서 지낼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부부도 가능)
0331)
286-3663

공양주보살 모십니다
정토사
양평군 양동면
771-8209
771-8010

부전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40~50세
금호 관음사
02)2234-3310

모 집
금강대체 한의학
대체의학 연구학회
▶대상 : 강원도 지역에 계시는 사찰 스님 분들에 한함
▶내용 : 정경, 침술, 개인지도
015)8204-1415

수양원

◆청학사 수양원◆
■수양·기도·공부·참선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月 숙식비 : 30만원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95)883-2933
011)446-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단체 불교수련대회 접수 받습니다.

수양, 기도하실 분
공부할 학생
기도하시기 좋은
최적의 도량
합천호부근 청강사
·가액 : 월30만원
(약간명 모집)
0599)932-5706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기타

건강에의 신비! **준천玉山家 옥**
고혈압 당뇨, 간경화, 폐암, 관절염, 두통, 정력부족 기타 성인병환자들이 이 옥을 활용하고 효과를 본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대체의학적 **자연치유!** 건강상태에 따라 복제품과 사용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주)대일광업 서울 玉山家 (02)777-0105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약효
마 늘 커 피
100% 토종 구운마늘
◆심한 피로·정력강화
◆간기능 획기적 개선
◆혈압, 혈당치 낮추고 장·변비개선
◆손발냉증·피부 고와져
◆감기에 강한 체질로
▶가격: 분말(230g) ₩39,000
환 (250g) ₩45,000
동양물산(주) 02)832-0742

점포안내 (견지동)
◆위치 : 조계사옆, 대로변
◆평수 : 1층 10평, 지하 15평
◆용도 : 불교관련 상점 입지 최고
※10평 점포도 있음.
02)738-5417
02)736-5160

사물놀이 및 고전무용
천안 불광사에서는 생활불교의 실천으로 각종행사 회갑, 경로잔치, 체육대회 개법, 각종법회의 원만회향을 무료로 돕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 연락바랍니다.
불광사 천안시 쌍룡동 684번지
0417)571-1112~3

불상 (특수불 청동불 옥불)개금, 탱화
전문가와 상의 하십시오.
저렴한 가격으로 할인 해드립니다.
천불조성전문, 출장상담 환영합니다.
한국불교 미술 연구원 반야마을
작업장 (공장)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673-1
011)521-4085 / 011)554-0131

사찰안내

사 찰 안 내
◆위치 : 경기도 평택시 근교
◆부지 : 악1000평(대지740평, 임야250평)
◆법당 : 30평/ 요사 : 40평
포교당(안양) : 60평(1500/50만원) 시설비절충
포교당(홍제동) : 25평 (2500/30만원)
해 동 불 사
02)389-7880/019)390-6110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대지 : 80평 추가30평
◆ 건물 : 법당 30평 / 요사 35평
◆ 가액 : 3억 3천
※전국에 소재한 사찰 매매 전세 안내
다보불사 02)3545-056
019)234-5506

포교원 안내
◆위치 : 천안
◇부지 : 80평 ◇법당 : 12평
◇요사채: 20평
◇가액 : 6천 5백만원
◇강능고찰터 1천평(3천5백만원)
⊙ 전국 사찰·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보살 연결해 드립니다.
02)723-4082/733-0108
광진불사

포교당 안내
◇위치 : 서울
◇법당 : 59평
◇요사 : 18평
◇부지 : 22평
◇가액 : 2억 7천
●포교당 부산, 법당 25평, 요사 55평, 가액 8000/80, 옥상사용가 60평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안내
◆위치 : 대구시 달서구 두류1동 성당시장 사거리
◆가액 : 보증금 2,000만원(월 30만) 시설비 1,000만원
◆시설: 관음보살(동불), 인등(400), 본존, 신중, 칠성, 지장, 나반 및 산신탱화예불종등 의식용품 일체
◆법당(30평) 요사(26평) 전화, 팩스, 대형냉장고등 사정상 급매(스님 직접 상담)
02)493-7603 / 011)271-7603

사찰(급) 안내
◆위치 : 충남 금산 금산읍
◆대지 75평, 법당 10평, 요사채17평, 욕실, 화장실
◆가격: 전화상담 요망
◆특징: 천연암반수, 산세수려
0412)751-0771

포교원 안내
◆위치: 울산시내 대단지 아파트 앞 2500세대
◆평수: 30평
◆가액: 전세2,500만원(월세가능)
※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052) 245-6689
011)9576-6338

포교원 안내
(사찰 운영관계로 사정상 급매)
◆위치 :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평수 : - 39평 3층 요사채 방 3개, 거실, 욕실, 주방, 최신설비
- 38평 4층 법당, 주지실, 상담실, 욕실
◆가격 : 1천만원 - 월 100만원 (월세만도 가능함)
시설완벽, 신도확보, 교통, 시장 편리함
0343)469-1562,443-9733
016)363-1562

포교원 안내
◆위치 : 충남 천안시 성정동
◆건물 : 1층
◆요사채 : 21평, 주방 : 10평, 법당 : 21평(2층)
◆특징 : 지장보살 칠불
◆모든시설 완벽함
◆가액 : 전세 6천만원
◆시설비 : 답사후 결정
0417)577-1469

사찰부지 안내
◆위치 : 충북괴산
◆면적 : 임야 27,000평
◆준농림지역, 도로접, 야산
◆가액 : 평당 6천원 (1억 6천만원)
상보에 귀의하옵고 사찰 및 부지를 안내하오니 많은이용 바랍니다.
삼호공인중개사
0431)216-7900 **심청산**
011)484-4555

불사할 암자(터) 안내
◆위치 : 경남 삼천포 와룡산
◆면적 : 임야 4,445평 (밭 2천평 경작중)
◆건물 : 2동 80평(임시법당, 17평, 방8, 욕실, 실내화장실 3, 큰거실, 공양칸)
◆가액: 2억 2천 (평당 약 5만원 - 절충가)
◆주위 조경·경치 정말 수려, 트럭도 진입가능
0591)746-2478/011)830-2880

폐 분교 안내
◆ 위치 : 지리산 청학동 주변
◆ 대지 : 1,211평
◆ 건물 : 206평(황토찜질방, 가든, 민박용방 12개)
◆ 150m 지하 암반수
◆ 개울물과 산세수려
◆ 연수원, 기도원, 수련원 최적지
◆ 가액 : 답사후 가격결정
0595)884-5840/884-5944
011)569-5844

사찰 안내
◆ 위치 : 충남 서천군 마서면 장선리 210번지
◆ 법당 10평, 요사채 2개 방8평 1개, 5평 2개
◆ 입실 주방, 목욕탕, 태양열설치완비
◆ 차로 읍내에서 5분거리
◆ 가격 : 6천만원
0459)953-7938
0459)951-3308,3309

포교원(법당) 안내
◆ 부산시내 최요지 상권중심
◆ 삼존불(아미타, 관음, 지장)
◆ 법당, 방2칸, 큰거실
◆ 층 55평,옥상 사용가능
◆ 모든시설 완비, 즉시 법회가능
◆ 전세 1천만원, 월 50만원
011)9545-0089

사찰 안내
◆위치: 경남 양산시 중부동 74 개원사
◆대지: 84평, 법당: 10평, 아랫채 8평, 산신각 5평, 창고 7평
◆가액: 9,000만원
0523)385-0854
017)573-0854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시 거제2동
◆ 2층 38평 (삼존불, 후불탱화)
◆ 법당, 방2개, 부엌
◆ 가액 : 전세500만원 (월세30만원)
◆ 시설비 : 1,000만원
051)505-3729
019)255-1818

사찰(급) 안내
◆ 위치 : 대구시
◆ 대지 ; 44평
◆ 법당 20평, 요사채 25평 지하9평
◆ 시설완비
◆ 가액 : 1억 8천
◆ 스님외 사절함
015)747-1512/011-9851-7989
저녁8시 ~ 9시 사이
정 법 도 량

사찰터 안내
◆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계룡산
◆ 임야 : 1000평
◆ 저수지를 끼고 있음
◆ 사찰터로 최적지
◆ 가액 : 1억 2천
011)404-8303

사찰(급) 안내
◆위치: 충남 청양
◆대지 735평, 법당 20평, 요사2채(30평, 10평)
◆양어장 10평, 유실수 약간
◆유학관계로 저렴하게 양도할 예정임.
◆답사후 가격 결정
019)408-5264
0454)943-7761

사찰(급) 안내
◆ 위 치 : 밀양시 무안면
◆ 대 지 : 210평
◆ 법 당 : 10평(시설완비)
◆ 요사채 : 10평
◆ 방4개, 기타시설완비
◆ 가액 : 7천 5백만원
011)9851-7989
스님외 사절(오후8시~9시)

포교원 안내
◆위치 : 부천시 송내동
◆평수 : 3층 - 24평
◆가격 : 보증금 500만원(월35만원) 시설비 반액 600만원
◆주방 1, 방1, 삼존불, 신중탱화, 보일러시설 완비
032)654-5859

사찰 안내
◆ 위치 : 진주시 이반성면 발산리 내동 6-1
◆ 대지 : 700평, 임야 약 2700평
◆ 법당35평(목조), 요사채 60평 산신각6평, 독성각20평, 토굴32평(목조기와지붕)
◆ 가격 : 답사후 절충
0591)758-9797
0591)758-0543

사 찰 (급) 안 내
마산시 회원구 회성동
◆ 서마산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건너편 ◆부지 450평 이상
◆ 주차장 무제한완비 법당35평 ◆목조건물 금단청필(3포 5포)
◆ 요사채80평 방8개 주방2개 지하20평, 명부전10평 단청필 주지실 12평
◆ 건물 완공은 3년 시설일체 무상기증 마산시내에서 개인사찰로는 규모가 가장 큰 도량, 스님 병안으로 매입코자 하오니 인연을 다 할 스님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합니다. ◆가액 : 8억 5천만원
◆총 공사비가 12억을 들었습니다. ◆장난전화 사절
0551)294-4889

사찰 안내
◆위치 : 서울시 노원구 (전철역서 200m)
◆대지 55평
◆건물 : 2층 법당 40평 1층 요사 40평
◆도심포교에 최적지
◆시설 최고A급 시설
◆가액: 3억 2천만원
한국불사 018)273-9390
02)561-7791

사찰 전세 안내
◆위치 : 포천군 소재
◆대지 600평, 법당 30평, 요사 60평
◆산속기도도량 (산으로 둘러쌓여 있음)
◆가액:전세 6천5백만원
한국불사 018)273-9390
02)561-7791

사찰 안내
◆위치 : 충북 음성군 소이면
◆대지 150평
◆건물 : 2층 법당 20평 1층 요사 30평
◆비구니스님 정진할 암자 최적지임
◆가액: 6천만원
한국불사 018)273-9390
02)561-7791

사찰 안내
◆ 위치 : 밀양시 무안면
◆ 대지 : 650평
◆ 법당 : 25평
◆ 요사 : 2동 50평
◆ 산세좋음
◆ 가액: 9천만원
한국불사 018)273-9390
02)561-7791

사찰 안내
◆ 위치 : 충북 진천
◆ 대지 400평, 법당 20평, 요사 30평
◆ 가액: 6천 5백만원
▶전국 사찰이나 암자를 양도 양수 하실분 찾습니다.
▶전화상담시 보안유지함
한국불사 018)273-9390
02)561-7791

사찰(급) 안내
◆ 위치 : 충남
◆ 田 : 7,500평
◆ 법당 : 30평(목조)
◆ 요사 : 30평
◆ 산세좋음, 실버타운 적지임
◆ 가액 : 3억 8천만원
한국불사 018)273-9390
02)561-7791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부천시 중동
◆ 평수 : 70평(5층)
◆ 시설은 특A급
◆ 가액 : 2천 7백만원 (보증금 시설비 포함)
011)9750-4075

생활정보

민방위 45세로 낮춘다

(생활) 국회 행정자치위는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국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 민방위대 조직 상한연령을 50세에서 45세로 낮추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전국적으로 1백30만명이 민방위 소집에서 해제되게 된다.

저소득층 중·고생 등록금 지원

(교육) 2000년도에는 생활보호대상자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중·고생의 등록금도 정부가 무상지원하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폭도 크게 확대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저소득층 중·고생 40여만명에게 등록금을 무상 지원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의료보험료 월 납부액 3만원 이하 가구의 학생'으로 생활정도에 따라 등록금이 차등 지급된다.

전기료도 카드로 낸다

(세금) 전기요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됐다. 한국전력은 6일 LG캐피털과 제휴, 일반주택용 전기요금을 LG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는 수납계약을 체결, 이달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버스카드로 지하철 탄다

(교통) 내년 1월3일부터 버스카드 하나로 서울 및 수도권 버스는 물론 지하철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버스카드로 서울 및 수도권 지하철은 물론 지난 10월초 개통된 인천지하철도 이용할 수 있으며, 경기지역 주민들도 서울시 버스카드가 아닌 해당 자치단체의 버스카드로 지하철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서울대공원등 자연교실 마련

(자연학습) 서울대공원과 어린이대공원은 겨울방학 등안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식물을 직접 접하면서 배우는 자연학습교실을 마련한다. 서울대공원 동물교실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월25일까지, 식물교실은 1월22일까지 계속된다.(02-500-7530). 어린이대공원의 동식물교실은 이틀짜리 프로그램으로 23일부터 내년 1월25일까지 열린다.(02-450-9305)

담배 피부미용에도 해롭다

(건강) 담배는 건강에 해로울뿐 아니라 아름다움을 유지하는데도 해가 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독일 하이델베르크의 암연구소는 하이델베르크대병원 조사결과 흡연자의 피부는 비흡연자보다 빨리 거칠어지며, 흡연시 주름살이 빨리 늘어난다고 최근 경고했다. 피부이식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흡연자의 회복속도가 비흡연자보다 훨씬 늦고 경과도 나쁘다고 밝혔다.

사형제 과연 '필요악'인가

여야의원 70명 '사형폐지법안' 마련

"생명존엄성" 대 "범죄예방" 논란팽팽

지난 5일 여야의원 70명이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무기징역을 법정최고형으로 수정하는 내용의 사형폐지특별법안을 마련해 금명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따라서 그동안 사형폐지운동협회와 천주교 등이 시민운동차원에서 전개해 왔던 사형제도 폐지문제는 국가 법적인 차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선 인간의 생명을 국가가 형벌로 끊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사회질서 유지 등 목적을 위해 인간의 목숨을 박탈하는 것은 또 하나의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의 지상목표가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것임에도 법이 어떻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사형제도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사형제도가 범죄 예방효과가 있고, 흉악범을 극형에 처하지 않으면 법익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악'이라는 입장이다.

국제사회에서 아직까지 사형제도를 시행하는 나라가 많기는 하나, 폐지 또는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는 나라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현재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나라는 106개국으로, 그렇지 않은 89개국보다 많은 상태. 우리나라의 경우 광복이후 현재까지 모두 9백여명이 사형집행을 당하는 등 사형선고 수치가 세계 13위에 올라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불교는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범망경〉에 "죽이는 인(因)과 죽이는 연(緣)과 죽이는 방법과 죽이는 업(業)으로 목숨있는 것을 죽여서는 안된다"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숫타니파타〉에는 "산 것을 몸소 죽여서도, 남을 시켜 죽여서도, 그리고 죽이는 것을 보고 묵인해서도 안된다"고 설하고 있는 등 어떠한 이유에서든 사람의 목숨을 인위적으로 끊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명존중사상'을 내세우고 있다.

독실한 불교신자였던 故 황산덕씨는 법무부장관 재직시(74~76년) 육영수 여사 살해범 문세광에 대해서만 사형집행 명령을 내렸을 뿐 일반 사형수에 대해서는 집행명령에 결재를 하지 않은 일화를 남기기도 했다.

그동안 꾸준히 사형제도폐지를 주장해 온 생명나눔실천회 이사장 법장스님(수덕사 주지)은 "죄의 대가는 따로 치르게 하되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된다. 그것은 곧 부처를 죽이고 나를 죽이는 일이며, 다시 원한을 맺는 악업의 윤회를 되풀이할 뿐이다"라며 사형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불교는 생명에 대한 자비를 으뜸 덕목으로 삼고 있다. 낙태를 반대하는 이유도 이런 사상 때문이다. 인간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이제 사형제도 문제는 전향적으로 논의돼야 할 때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에이즈 치료백신 국내 개발

포항공대 성영철교수팀 "3년내 상품화 가능"

'20세기의 재앙'으로 불리는 에이즈. 새 밀레니엄을 불과 20여일 앞두고 국내 연구진이 에이즈 치료 백신을 개발하는 개가를 올렸다.

포항공대 생명과학과 성영철 교수팀은 에이즈 바이러스 유전자의 일부를 세포에 주입시킨 뒤 세포에서 면역세포가 생성되게 유도하는 DNA백신 개발에 성공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지난 14년동안 개발된 여러종류의 백신들이 자체의 독성으로 인해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 개발된 에이즈 백신은 인간에게 적용할 때 성공할 확률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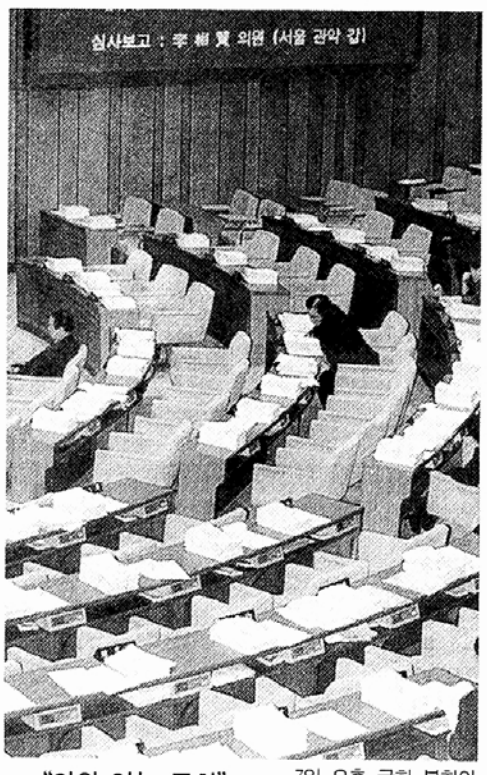
독일 영장류 동물센터의 훈스만 박사는 "많은 에이즈 백신을 실험했는데 이번 백신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경이로운 효능을 보였다"며 연구결과를 높이 평가했다.

성교수는 "이번에 개발한 에이즈 백신은 미국 식품의약국이 인정한 순수한 DNA만으로 제조해 3년 안에 치료용 백신으로 상품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 95% "경조사비 부담스럽다"

생활개혁실천범국민협의회가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의뢰해 전국 24개 도시 성인 남녀 1천5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94.9%가 경조사비로 가정경제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한해 평균 경조사비 지출액은 52만2천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번에 내는 경조사금 액수는 평균 2만9천4백25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번에 내는 경조사비중 평균 액수가 가장 많은 부분은 결혼 축의금으로 3만6천1백원이었다.



"의원 없는 국회"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59건의 안건이 상정됐으나 의원들이 자리를 떠나 의결정족수에 미달, 결국 10건이 처리되지 못했다.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산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만도 벌써 네번째. 자리를 떠난 이유는 "바쁘다"는 것. 도대체 국정보다 더 바쁜 일이 무엇일까.

시론

새천년 불교문화 전략

국내외에서는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문화의 세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제는 국력의 개념도 문화력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문화산업을 21세기 국가기간산업'으로 간주하고 있는 현 정부의 문화정책도 그 실효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 같다. 정부측에서는 "보여줄 게 없다"는 점을 문화산업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로 간주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전혀 그렇지 않다. 전통문화유산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세계석학들과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우리 나라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외국의 국민들도 전통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는 우리 나라를 문화강국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증명된다.



김 종 명
〈동국대 사회교육원 교수〉

"무엇을 어떻게 보여줄것인가 소프트웨어 개발"

그러면, 전통문화유산의 핵심은 무엇인가? 단연코 불교문화유산을 들지 않을 수 없다. 한국문화재의 70% 이상, 국보의 52%, 보물의 64%를 불교문화재가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5건의 국내 문화재 중 2건이 불교문화재란 사실에서도 이 점은 확인된다.

그러나, 불교문화유산의 중요성은 역대 정부의 문화정책에서 간과되어 왔다. 또한, 이 불교문화유산들을 체계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방법론도 개발되어 있지 않다. 이 점에서는 불교계도 예외는 아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불교문화유산에 대해서도 간단한 설명만 있을 뿐, 그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해석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지적은 큰 사찰들이 우후죽순처럼 세우고 있는 '성보박물관'들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즉, '전시'는 있으나 '정보'는 없는 형태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글쓴이가 미국 최대의 자연유산인 그랜드 캐년을 방문했을 때, 글쓴이에게 감명을 준 것은 웅장하던 자연 경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유산을 지리적, 역사적, 생태학적 측면 등에서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있던 정보센터(Information Center)였다. 그것은 단순한 정보센터가 아닌 작은 자연사 박물관이었던 것이다. '한국은 온 국토가 박물관'이란 말처럼, 사실상 보여 줄 것이 많은 나라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보여 줄 것인가"에 대한 냉철한 분석작업은 결여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국내의 우수한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정보를 국내외인들에게 체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작업이 시급하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일차적 이해 당사자인 불교계(승단, 학계, 재가단체)는 국가차원의 지원을 요청하는 동시에 자체적으로도 다양한 학문분야별 전공자들로 구성된 프로젝트 팀(task force)을 만들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불국사와 석굴암 및 고려대장경을 출발점으로 하여 이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지적 소유권의 위력은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우선 자본주의 경제사회의 훌륭한 경제적 수입원이 된다. 그리고, 관광산업은 2000년대 최대의 단일산업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프로그램은 사찰경제, 지역경제, 국가경제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또한, '인문학의 위기 시대'에 전문 문화가이드를 양성함으로써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국민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문화교육도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문화 노하우(know-how) 축적이 가능하며, 이 노하우를 국내의 다른 문화유산(종묘 등), 자연유산(설악산 등), 기록유산(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등)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 더욱이, 외국인들에게 한국문화의 특징적인 면들을 체계적으로 소개함으로써 한국문화의 세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 국내불교계는 한국불교의 내실화와 세계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불교문화유산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다.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가을은 깊어가고 .....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연인들의 낙엽 밟는 소리가
속삭이 듯 가만히 들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현대 결혼 연구원을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종로 사무실 증축과 내부수리
관계로 강남역 현대 골든텔
오피스텔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희망의 밀레니엄 새 천년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더욱더 박차를
가하여 여러분 사랑에
끊임없이 연구노력 하겠습니다.

날마다 좋은날 되시기를 바라며...
부처님 가피로 가정이 번창하시고
신심이 더욱 돈독 하시기
바라면서 인사드립니다.



원장 이 영 숙

■大卒,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원장 이 영 숙 (법명: 無生子)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7-2호 현대 골든텔(오피스텔) 8층 811호
강남역 (2호선) 3번출구
☎ 대표전화 : 02) 3472-5575
핸 드 폰 : 018) 277-5592

졸탁동시

용맹정진 업장소멸 오직 이 길뿐!

◈철야용맹정진. 불자기본수행법교육 : 매주토요일 저녁 7시에서 일요일 아침 7시까지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 : 절대 숨차지 않고 헐덕대지 않으며 힘들지 않고 저절로 숫자 헤아려지는 완벽한 방법
◈석가모니불 염불법 : 자동으로 염불이 이어져 빠른 시일에 염불삼매 이루어 화두 참선할 수 있는 상근기 되는법
◈한글 금강경 봉독법 : 목탁치지 않고 자성의 운율로 힘차고 박력있고 리드미컬하며 신명나는 독경으로 중단전 챠크라가 열려 감정통제가 자유로워지며 가슴에 맺힌 한이 홧병이 절로 녹는 신심이 절로 나는 겁
◈와선 호흡법(1,2) 행선염불, 선체조 도인건강법(33) : 상기되어 피곤하고 머리 무겁고 열나며 침은 마르고 입술타며 눈은 충혈되고 손, 발, 배, 허리, 무릎 차거워도 30분 정도 수행하면 쉽게 극복되는 심신건강법
◈업장소멸용맹정진. 특별소원성취기도 : 하루종일 쉬지 않고 호흡에 맞춰 절하며 참회와 감사수행으로 업장은 소멸되고 소원은 이뤄지는 환희로운 벅찬 감동의 처음 공개되는 기도비법.

※철야정진 동참불자의 도움으로 소리산 16만평의 청정도량에 수행교육과 용맹정진 할 수 있는 법당 88평, 요사 80평 건축불사가 마무리 되어 갑니다.

아름다운 소리산 빛빛고운 소금강 법왕정사 수행원
금강지혜보궁, 두라禪院, 불교도서관, 법왕장학회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소리산 참선캠프

전화 (0338)771-7745 (011)9088-7745

發願已歸命禮三寶「새천년 불국토」

2000年 新年特輯新聞 廣告案內

귀의 삼보하옵니다.
그동안 현대불교신문을 관심있게 지켜보아주시고
물심양면 도와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새천년을 맞이하는 새해를 맞아 온 누리에 부처님의 법음이 가득하기를 기원하오며,
본지는 정성을 다해 2000년 신년특집신문을 꾸미고저 합니다.
모두가 무루 동참하시어 하나되는 불교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천년 부처님의 큰 뜻을 전하는 신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 새천년 신년축하 광고
규격 및 단가 : 5단 × 37cm - 80만원
5단 × 18cm - 40만원
5단 × 9cm - 20만원
7cm × 6cm - 10만원
제 작 일 : 99년 12월 24일(금)
제 작 면 수 : 28면 합쇄
접 수 마 감 : 99년 12월 18일(토)
접 수 처 : 현대불교신문사 광고부
전화 02)737-8881 (대표)
02)732-1522 (직통)
팩스 02)737-06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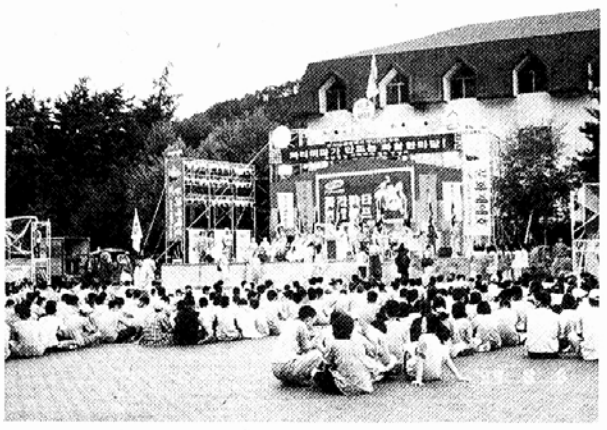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사

IMF 그늘에 새싹포교 '겨울잠'

결산 '99 어린이·청소년 포교

대불어 연수·전래놀이등 명맥유지
청소년 소책자 포교 활성화 '눈길'
파라미타·청교련 다양한 활동 절실

◇청소년불자포교를 위한 다양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사진은 8월 열렸던 파라미타 연합캠프.



99년 한해 어린이·청소년 포교 분야는 부분적으로는 발전을 위한 노력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으나, 전체적으로는 정체기였다.

IMF이후 어려워진 절살림은 사찰의 어린이법회에까지 미쳤고, 재정적 뒷받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어린이포교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등 그 여파가 올해 초반까지 이어졌다.

그나마 전국적 조직체인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가 여름과 겨울 지도자연수를 실시하며 어린이 포교에 대한 방안 제시와 의견 수렴 등 어린이포교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펼쳐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또 불광사가 주최하는 '부처님 그리기 대회', 선재연구모임의 '전래놀이 한마당' 등이 새로운 시도와 기획으로 어린이포교의 명맥을 이으며, 교계를 대표하는 어린이포교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이 6월 실시한 서울 경기지역 어린이법회 지도교사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도교사의 상당수가 어린이지도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불교신행경력을 제대로 쌓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종단차원의 어린이 청소년 지도교사 교육기관의 설립, 전문자격증제도 도입의 필요성 등이 제기됐으나 구체적인 성과물을 거둬들이지 못했다.

청소년포교의 경우 소책자포교가 꾸준히 전개됐다. 선재연구모임의 청소년상담지 〈선재들의 속삭임〉, 부처님을 닮으려는 사람들의 〈무지개걸린나무〉, 파라미타청소년협회의 〈파라미타〉, 전국교사불자연합회의 〈좋은친구〉 등이 발간돼 청소년불자들의 고민과 부처님 가르침 등을 재미있는 그림과 이야기로 담아냈다. 그러나 제작을 위한 재정마련이 여전히 힘들어 〈선재들의 속삭임〉 경우 올해 초 폐간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소책자포교와 더불어 다양한 매체를 통한 포교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불교방송과 불교텔레비전, 인터넷 등을 통한 포교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불교방송의 어린이프로그램, 최근 개설한 풍경소리 홈페이지, 대불어가 준비중인 인터넷 웹진등을 제외하고는 타종교에 비해 매체포교가 여전히 미약한 상태다.

반면 파라미타청소년협회와 청소년교화연합회의 지부 지회 활동은 예년에 비해 활발하게 전개됐다. 그러나 대부분 활동이 청소년자원봉사와 문화재보호 등에만 치우쳐 있어,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7월 조계종 포교원이 실시한 '청소년 종교의식조사'에서 청소년불자의 70.9%가 종교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결과는 청소년불자 포교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다시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따라서 새천년에는 미래불교의 주역이 될 어린이와 청소년을 부처님품안으로 안아들일 수 있는 종단차원의 대책마련과 단위사찰 단체의 관심과 지원 등 보다 적극적인 대안 모색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명사들의 건강비결 ㉓ 끝



이 하 우
〈부산불교대학장〉

"건강을 말하기 전에 무엇보다 부모로부터 완벽한 신체를 받은 것에 감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10년째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을 맡아오면서 1천여명의 포교사를 배출하고, 불자들의 저변확대에 여념이 없는 이하우(75)학장은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함에서 건강은 시작된다고 전한다.

욕심 없이 사는 것, 긍정적인 사고로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등 마음의 작용을 건강의 출발점으로 꼽는 이학장도 한가지 놓치 못한 욕심이 있다. 한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불법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그것이다. 그 욕심으로 고희를 훌쩍 넘긴 나이에도 부산불교교육대학에서 '부처님의 생애', '한국불교문화사' 등의 강의를 맡아 열강하고 있으며, 각종 신행단체 법회나 강연에서 청년처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학장

감사하는 마음이 건강 첫걸음
새벽예불 좌선후 가벼운 산책

은 올해 사단법인 불국토가 불교 발전에 탁월하게 기여한 불자를 선정, 수여하는 99 자랑스런 불자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그러나 이학장은 "부처님이 좋아 부처님을 따라 나섰을 뿐인데 상까지 받으니 부끄러울 뿐"이라며 "부처님 그늘에서 살았으니 불제자 길러 은혜 갚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이학장의 하루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시작된다. 예불과 좌선, 뒷산 산책을 하루도 빠뜨리지 않는 것은 신체와 정신을 고루 살피는 건강법이다. 또한 섭식 자체를 수행으로 여기며 채식을 위주로 하되 주어지는 음식에 대해서는 가리지 않고 투정하지 않고 기쁘고 즐겁게 먹는다. 무엇보다도 욕심과 미움을 비우도록 노력하면 잠을 충분히 깊게 자 피곤을 씻어 버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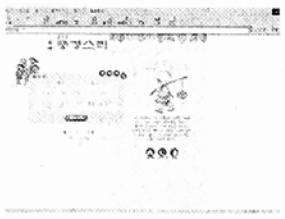
30년 세월동안 불법 전하기에 매진하면서도 단 한번도 병원에 가본 적이 없지만 이미 죽은 뒤의 화장 유언까지 해 두었다. 지수화풍 사대로 흩어질 육신에 대한 착을 버리고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는 오롯한 발원하나로 이학장은 오늘도 욕심없이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좋은벗 풍경소리 홈페이지 떴다

www.bdsori.co.kr

찬불동요 제9집 발표



좋은벗 풍경소리(대표 이종만)가 찬불등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이 홈페이지에는 풍경소리가 그동안 발표한 찬불동요 창작곡 1집~8집이 소개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집과 8집의 수록곡은 리얼오디오로 직접 감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 나도 작품자라는 코너를 통해 찬불동요 가사와 곡을 모집하고 있으며, 찬불동요창작에 참여할 후원회원도 모집한다. 풍경소리의 인터넷주소는 www.bdsori.co.kr이다.

홈피이지 개설과 더불어 풍경소리는 찬불동요 창작곡 제9집을 새로 발표했다.

이번 제9집에는 '우리절 소리', '절마당과 빗자루', '부처님 동산', '큰스님얼굴' 등 경쾌한 리듬에 동심을 담아낸 16곡이 수록되어 있다.

이번 찬불동요 9집은 풍경소리의 재정난으로 제작보급이 한때 중도하차할 지경까지 이르렀으나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의 성금과 천태종교무부 연리회의 연구보조금으로 발간됐다. 풍경소리 대표 이종만씨는 "반주와 편곡 등 아직 미진한 부분도 많지만 어린이포교를 위한 일념으로 더욱 발전적인 찬불동요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자 기자

한마음선원 인터넷 방송국 개국

자비·평화 메시지 담긴 특집다큐 방영

www.hanmaum.org



11월30일 교계 첫 인터넷 TV 방송을 시작한 한마음불교방송(www.hanmaum.org)이 역경적인 프로그램 방영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

비디오 오디오를 구가해 인터넷 TV의 진가를 선보이고 있는 한마음불교방송이 개국 특집으로 내보내고 있는 다큐멘터리 '열반의 미소를 찾아 천년의 길을 가다'는 새 천년을 여는 시점에서 불상을 통해 동서양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자비와 평화의 메시지를 제시해 네티즌 시청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열반의 미소…'는 세계문화유산이자 한국불상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석굴암 본존불의 신비로운 미소, 서산 마애 삼존불의 백제 미소등 그 자비와 평화, 미소의 원류를 찾아 중국 서역 인도 그리스까지 2만 km의 긴여정을 31분 프로그램으로 담고 있다.

석굴암 본존불 서산 마애불 등 한국편(3분)을 시작으로 운강석굴 용문석굴 등 3대석굴을 보여주는 중국편(5분), 천산 산맥 너머의 척박한 사막지역,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발달한 돈황 등 서역편(5분), 인더스 그리스 문화의 흔적이 있는 간다라 지역을 담은 인도편(8분), 고도 아테네 그리스 공예품을 통해 불교흔적을 찾는 그리스편(8분)으로 제작됐다.

이 특집 프로그램은 프론트라인 디지털에서 제작(감독 정수웅)한 것을 한마음방송에서 온라인상으로 독점 방송하고 있다.

위영란 기자

별보고 참선하며 21세기 꿈 엮는다

우리는 선우 '캠프' 1월7~10일

우리는선우(공동대표 박광서 남지심)가 2000년 1월 7일~10일까지 진각종 재천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을 위한 '큰사람 겨울캠프 2000'을 연다.

'청소년, 21세기의 리더'를 주제로 실시하는 이번 캠프는 중고생 100명을 대상으로 20세기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을 중심으로 '역사만들기', 21기 대비 특별 리더쉽 훈련인 '21세기는 내가 만든다', '화엄법계놀이', '실참실수 심성훈련', '전래놀이', '겨울 별자리보기', '문화유산답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는선우는 이번 큰사람 겨울캠프를 시작으로 2000년도에는 청소년 포교 활성화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02)2278-8672

"어린이 포교프로 다양화해야"

대불어 지도자 연수

조계종포교원과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가 공동주최한 제28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가 11월 27일~28일까지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렸다.

전국 300여 어린이지도교사와 스님이 참석한 이번 연수회에는 '사찰 속 더불어 삶을 위한 어린이법회 운영', '우리들이 부르는 찬불가', '경전상에 나타난 어린이포교' '사찰예절과 예법', '21세기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청소년 교육과 불교' 등 새천년을 대비하는 다채로운 강의로 진행됐다.

이날 연수회에서 현진스님(조계종포교원 포교부장)은 "새시대에 부응하는 어린이포교를 위해 법회 신행프로그램의 강화와 다양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스님은 "종단차원에서도 어린이지도교사 양성기관 설립과 전문지도교사에 대한 지원과 재교육 등의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교련 제주지부 유해환경 추방운동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제주지부(지부장 조명철)는 4일 한라체육관에서 제2회 청소년 우리문화 자강운동을 펼쳤다.

올바른 청소년 문화정착을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김덕수 사물놀이패를 초청, 우리 전통문화예술의 우수성을 감상하는 한편 청소년 유해환경 추방캠페인도 전개했다.

가출청소년 대책토론

청교련 인천지부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인천지부(지부장 선일스님)는 10일 대한민국 헌정기념관 2층 강당에서 '가출청소년 현황 및 대책'에 관한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서는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한 전국 시설현황과 프로그램' '청소년의 가출원인과 재가출 방지를 위한 지도방안' '가출청소년교육기관으로서의 대안학교 운영방안' '가출 청소년 쉼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모색' 등이 발표됐다.

또 청교련 인천지부에서 제작한 '가출 청소년의 목소리' 영상물을 통해 가출 청소년들의 실태와 원인, 대안을 모색했다.

2600년전 붓다가 깨달은
무아 연기 중도 는 무엇인가?

완전한 깨달음

해공 지음 / 7,000원



동서양 종교, 철학을 넘나들며
수행인의 길을 걸어온 해공!
그가 만난 위대한 스승들
<마하리쉬> <마하라지>.

미얀마에서 붓다의 실질적 수행법인
위빠사나를 통해 개체적 에고를
초월한 절대적 무아의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걸었던 생생한 체험

국민은행 270-01-0052-893 우체국 102723-0029385 예금주 : 도서출판 보리수
온라인 입금하신 후 전화주시면 책을 우송하여 드립니다.(우송료는 본사 부담)

전국 서점 및 불교서점에 있습니다. 보리수 TEL (0342)701-0084

삼·부·농·산·은·유·기·재·배·약·초·만·을·생·산·하·고·있·습·니·다

자연은 거짓이 없습니다!

무병장수를 바라는 마음 황토삼백초에 의지하십시오…



황토삼백초 건초

신묘장구대다라니 150만 독을 지송하고
찾아낸 약초 황토삼백초®…
7년을 정성들여 생산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대신주 위신력은 마른 나무 가지에 싹이나서 열매가 열리게하거늘 하물며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일체 환고는 이 다라니로 고치지 못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라니와 더불어 유기재배한 약초로 효과가 뛰어 나도록 하였습니다.

삼백초의 놀라운 성분들

황토삼백초에는, '수용성 탄닌', 플라본계 물질, 유효 미네랄, 필수 아미노산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피를 맑게하여 혈행을 돕고 모세혈관을 보호하며, 강력한 이뇨작용으로 체액순환과 해독작용을하고 위장을 튼튼하게 합니다.

또 장의 연동력으로 숙변등 몸안의 노폐물을 신속히 제거하고 변비를 없애줍니다.


大悟居士(김봉서 원장)

이런분들한테 좋습니다.

- 항상 머리가 개운치 않고 의욕이 없으신 분
- 만성 피로에 시달리시는 분
- 간이나 당뇨 혹은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
- 속이 편치 않으신 분
- 통변이 시원치 못하신 분
- 피부미용과 여성질환으로 고민하시는 분
- 식수공해가 걱정되시는 분
- 팔다리가 아프신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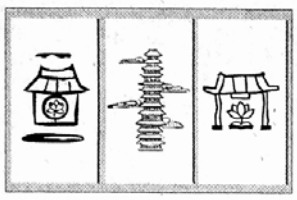
차나 숭늉처럼 드시고 자주 많이 드셔도 좋습니다. 황토삼백초는 믿을 수 있습니다. 손님 접대나 선물용으로 도 좋습니다.

97.11.6 / 99.9.2 'MBC-TV 고향은 지금'
99.9.24 KBS-TV '6시 내고향'
99.7.10 SBS-TV '모닝와이드' 방영

삼부농산 SAM BU Far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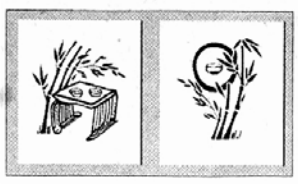
경남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63
0598-945-0075~7
http://www.teafarm.com

기도포



기장 84cm×폭 39cm/ 재질- 면 가격:₩1,600

다 포



기장 50cm×폭 29cm/ 재질- 면
가격:₩800

·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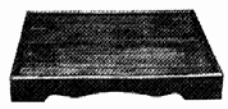
마 하 몰
(http://www.mahamall .co.kr)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 <몰.부다피아>은
불교인의 정서에 맞는 불교 관련 제품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고객 제일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쇼핑, 저렴한 가격, 마음껏 즐기는 불교문화 공간을
마하몰에서 만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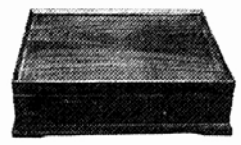
☎ 주문전화 02-732-1522 (직통)
02-737-8881 (대표)

찻 상



규격 52×32×8cm/ 재질- 소나무
가격:₩54,000

다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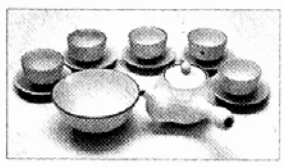
규격 50×30×15cm/ 재질- 소나무
가격:₩126,000

관음분청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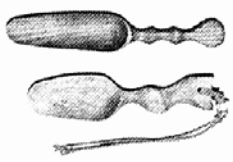
가격:₩495,000

고산다기



가격:₩120,000

차 시



재질 - 감나무 고목 등
가격:₩15,000

불성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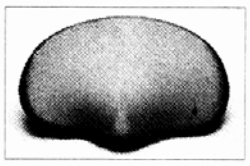
가격:우전₩90,000 / 세작 ₩50,000
중작₩30,000 / 대작₩20,000

수암 만다라 옥침



■가격 : 30,000원
■재질 : 천연옥, 무독성ABS수지, 황동, 24K순금도금테,
헤라이트 반영구자석 12007우스 X 4개

참선명상방석



규격 39×43cm
가격:₩27,000
· 삼원산인 1006105009
· 실전등록 제387
· 인체공학적 설계로 척추보호

옥베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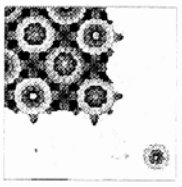
편안한 수면은 어떤 보약도 필요 없습니다
가격: 1개 ₩30,000(셋트₩56,000)

불자반지



재질 금 · 큐빅(15분)
※싸이즈는 호수에 따라 제작해 드립니다
가격:18k₩130,000/ 14k ₩120,000

불교전통창살문양손수건



· 재질 면 · 인쇄 나염
· 문양 충문사 대종전 정실
가격:₩5,000

반야심경 향로



(가정용) 규격 8높이×7cm지름
가격:₩25,000

반야심경 종차걸이



· 색상 금강 · 금색
가격:₩9,000

황토로 만든 수행자의 그릇
와 발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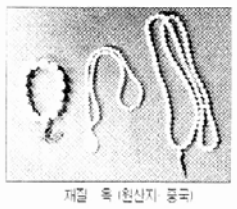
가격: 4합 ₩60,000 / 무게 : 2.7kg
2합 ₩30,000 / 무게 : 1kg

걸 망



색상 밤색 · 베이지 · 회색
가격:₩15,000

수암옥 염주세트



재질 옥 (원산지 중국)
가격:₩98,000

생광석 108염주



가격:₩35,000

건강 옥 염주



장옥 · 백옥(小)
₩30,000
장옥 · 백옥(大)
₩40,000

반야심경 자개경판



가격:₩600,000

반야심경 지통



재질 대나무 부분(통기부)
규격(中)
높이 30cm×지름 25cm
₩220,000
규격(小)
높이 25cm×지름 20cm
₩140,000

금동미륵반가사유상



■크림 · 금동품
₩350,000
■거금
₩580,000

관음보살감로병



가격:₩500,000

마하몰 미니정보

마하몰에서는 올바른 쇼핑몰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마하몰 미니 정보란**」을 운영합니다.

문구암스님 범음범패 비디오테잎



· 1부 제대칭 · 2부 관욕
· 상영시간 각 68분
■ 가격: 각 ₩25,000

불교의식에 쓰이는 범음범패집

불교의식의 유형중 천도재의식의 상주 권공재를 중심으로 진행절차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시련, 대령에 이어 계속되는 진행절차는 관욕 및 신중작법(神衆作法)입니다.

상단권공(上壇勸供)
천도재의 시련,대령,관욕,신중작법의 의식이 모두 끝나면 천도 받을 영가가 비로소 불단에 나아가 부처와 보살께 예배와 공양을 드리고 극락왕생을 발원하게 되는데 이때의 의식을 상단권공이라 하며 불단에는 육법공양(향,등,꽃,차,과일,쌀 등)에 필요한 긍양 의식구가 놓이고 의식을 집행하는 의식구로는 범종,요령,목탁,괭쇠 등이 있다

관음시식(觀音施食)
영가에게 음식을 베푸는 일반 제사의 의미를 지니는 불교의식으로 천도할 영가를 위한 시식단을 별도로 마련하고 사진이나 위패를 모신 뒤 의식승이 요령을 흔들면서 시식문을 낭송하는 형식을 취한다.

▶ 다음호에는 봉송의식이 계속 이어집니다.

경 상



· 규격: 72×34×32cm
· 재질: 느릅원목
■가격:₩85,000

전통적 경상을
현실에 맞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경상(經床) : 절에서 스님들이 불경을 얹어 놓고 읽는 데 사용하는 상

그 형태는 중국 당 · 송 시대의 제탁(祭卓) 양식에서 영향을 받아 독특한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상판(床板)의 양쪽은 두루마리형으로 발려 있고 호족형(虎足形) 네 다리에는 아름다운 운당초(雲唐草)나 죽절형(竹節形)의 조각 장식이 있다. 몸체에는 한두 개의 서랍이 달려 있고, 흔히 앞뒤에 안상문(眼象文)이나 여의두문(如意頭紋)이 음각되어 있는 형태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오래된 것일수록 검붕 무쇠의 둥근 고리가 달려 있고 근래에 가까울수 달개지형 주석장식을 쓰고 있다.
불교가 융성하였던 고려시대에는 사찰의 필수품으로 사용되었는데 그 형태가 아름다워 불교의 강력한 시주자였던 왕실과 귀족계층에서도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조선시대에도 이어져 부유한 양반계층의 사랑방에서 사용되었다.
고고한 사대부 선비들은 검소함을 미덕으로 여기어 과다한 장식이 곁들인 경상을 기피하였다. 의자생활을 하는 중국 경상의 높이는 둔탁한 느낌을 주는 데 비하여 조선조 경상의 형태는 좌식생활에서 오는 조형 감각에 맞게 높이가 낮고 소형이다. 말린 두루마리형의 좌우 변죽도 중국식에 비해 매우 경쾌하고 날렵해 세련미를 보여 준다.
경상의 변형으로 두루마리 상판(床板)에 곧은 다리를 가진 서안(書案) 형태도 있다.
대개 서랍이 하나씩 달려 있고 족판 너비가 상판 너비보다 좁은 것이 기본형이다.
서안형태의 경상은 상판 양쪽이 날렵하게 들린 형태를 들 수 있으며 두가지 방법으로 제작되며, 하나는 따로 재단된 두루마리 부분을 상판에서 낸 혀에 붙이는 방법과 다른 하나는 상판에 홈을 파서 이에 맞추는 방법이다.
재료는 소나무, 죽장(竹粧).오동나무, 피나무가 주로 쓰이지만 무늬가 아름답고 결이 고운 괴목이 제일 좋다. 이 박에 가문비나무, 산유자 나무가 단단하고 색이 좋아 많이 사용되었다.

달마순금판 액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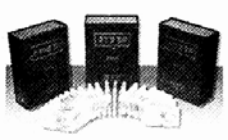
상반신
규격 27×10cm (낱개크기 12×3cm 보통의 크기)
· 실중신인증록 340호
가격: ₩120,000

달마순금판 액자



전신
규격 27×10cm (낱개크기 12×3cm 보통의 크기)
· 실중신인증록 340호
가격: ₩120,000

무비스님 특강테잎



금강경강의/ 지장경강의/ 진심직설강의
가격: 각 ₩45,000

한국불교종람



4×6배판/ 1114쪽/
양장제본
가격:₩120,000

바위속에 숨은부처



비디오
테잎
가격: ₩13,000

영인스님 예불천수경 CD



가격:₩9,500

연좌대불상 진주



규격 25×30cm 가격:₩100,000

석가모니 탄생관련 성품



성품내용 성업(오색실) 성토 성수 성주
(인증서 첨부) 가격:₩148,000

박범훈 작곡집 1(CD)



가격: ₩9,500

날개 CD



가격: ₩9,500

쑥 환



₩55,000 (1달분 1통 1500정)
₩80,000 (2달분 2통 3000정)

눈안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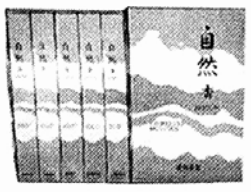
눈의 피로 감소! 가격:₩49,000

명품향



가격:₩12,000

자연향101



규격 26.5×16.5×5cm
가격: ₩10,000(개당 ₩2,000)

보리수 잎 성불 인사장

무궁한 부처님의 가피를 존경하는 분께, 사랑하는 사람에게
"온마음 가득한 불심", "온누리 가득한 자비"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불심 보리수 잎 성불 인사장

부처님께서 성도(聖道)하신 바로 그곳 인도의 불교성지(佛敎聖地) 부다가야 마하보디 사원에서 직접 모셔온 이 성불 인사장으로 마음 아리도록 소중한 불들의 새 천년을 열어주지 않으시렵니까? 부처님의 여러 모습이 그려진 보리수 잎은 그림과 같이 고급 색한지 위에 모셨고 본 보리수잎 성불인사장은 잎의 훼손을 피하기 위하여 우송용 봉투를 포함, 1매씩 포장되어 있습니다. 본 상품은 한장 한장 정성들여 만든 수공예 인사장 입니다.

· NO1, NO2
가격: 2,000원

· NO3 , NO4
가격: 3,000원

· NO5, NO6, NO7, NO8
가격: 3,500원

산촌유과 … 한국정통의 유과

한과는 곡물 가루에 꿀, 엿, 참기름, 설탕 등을 넣고 반죽하여 꽃 모양 물고기 모양 같은 판에 박아 낸 다음 기름에 지지거나 조려서 만든 과자이다. 다른 말로 조과(造果)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천연물에 더하여서 만들었다는 뜻이다. 산촌한과는 사찰음식의 전문가인 김연식씨가 불교사원 요리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정통 한과이다.

산촌 들깨유과	90,000원	산촌 콩유과	30,000원
산촌 김유과	90,000원	산촌 쑥유과	30,000원
산촌 잣유과	100,000원	산촌 호박유과	30,000원
산촌 대추유과	100,000원	산촌 김치유과	90,000원
산촌 땅콩유과	100,000원	산촌 된장유과	90,000원
산촌 흑임자유과	100,000원	산촌 고추장유과	90,000원
산촌 파래유과	90,000원	산촌 감자튀김	54,000원
산촌 찹쌀유과	30,000원	산촌 감자유과	54,000원

※ 1BOX : 4kg 공통

향 적 원 … 고향의 맛을 선물로

본 제품은 순창군 복흥면(해발300M) 지역에서 직접 농사지은 우리 농산물로만 제조하고 있습니다. 무농약,무방무제,무조미료 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15도 이하에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판매가 (본 제품은 1kg 기준임)

· 고추장	12,000원
· 무우 장아찌	12,000원
· 된장	7,000원
· 마늘쫑 장아	12,000원
· 쌈장	7,000원
· 된장 콩잎	12,000원
· 더덕 장아찌	30,000원
· 된장 깻잎	12,000원
· 오이 장아찌	12,000원
· 산초 장아찌	30,000원
· 감 장아찌	12,000원
· 올외 장아찌(마나스키)	12,000원
· 간장(1.8L)	8,000원

법회안내

'원각경' 주제 강의



자명스님(관음정사 주지) 17일 오후 7시 30분 서울불교청년회 〈원각경〉 주제 법회.(02)730-9108

'화엄사상' 강연



권탄준교수(동국대 사회교육원) 2000년 1월 7일까지 매주 월,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불교연구원 원효학당 화엄사상 강의.(02)3411-6167

'우파니사드와 선' 특강



김호성교수(동국대 인도철학과) 16일 오후 6시30분 무불선원 '우파니사드와 선' 특강. (02)541-0002

신심명 윤독법회



리제재(스카우트 불교지도자회 부회장) 18일 오후 3시 불교방송 다보빌딩 15층 '신심명 윤독법회'.(02)2292-8502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신행 캘린더

12월15일 (수)

■ **자원봉사자 간담회**=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오후 3시 복지관 강당에서 한해를 평가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자원봉사자 간담회를 연다.(0443)652-0900

■ **'초발심자경문' 강좌**=조계사는 오전 10시 30분 3개월과정의 〈초발심자경문〉강좌를 개강했다.(02)720-1390

■ **백양사 참사람 수행결사**=백양사 참사람 수행결사가 19일까지 4박5일간 실시된다. 참선수행과 발우공양, 울력 등 나를 돌아보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0685)392-7502

12월18일 (토)

■ **선정회 철야참선법회**=선학원 선정회는 19일 새벽까지 철야참선정진법회를 연다. 선학원장 성해스님이 법문과 참선지도를 한다.(02)732-3327

■ **월정사·상원사·낙산사 순례**=봉은사는 오전 8시 강원도 월정사, 상원사, 낙산사로 새천년 맞이 성지순례를 떠난다.(02)598-8542

■ **범어사·태종대 일출기행**=터사랑은 19일까지 화엄십찰가운데 하나인 부산 동래 범어사를 순례하고, 태종대 일출을 감상하는 답사기행을 떠난다. (02)725-1284

■ **금강메아리 삼사순례**=서울불교산악회 금강메아리는 여수 향일암, 여천 흥국사, 화순 운주사 등지로 삼사순례를 떠난다. 오전 9시 동대문 이스턴호텔앞에서 출발한다.(02)772-9517

12월19일 (일)

■ **금산사·망해사 답사**=옛돌은 오전 8시 미륵불교사상의 본산격인 김제 금산사와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절 망해사를 찾아간다.(02)2266-1233

■ **자인사·심원사 순례**=조계사는 오전 7시 30분 자인사와 심원사로 성지순례를 떠난다.(02)720-1390

■ **동화사·부도암·염불암 답사**=여래지답사회는 오전 7시 30분 팔공산 동화사와 부도암, 염불암 등지로 답사를 떠난다.(02)3445-0202

■ **디지털열린상담실 송년법회**=디지털열린상담실은 옥산 해능보육원 법당에서 송년법회를 갖는다. 낮 12시40분 청주대 정문앞에서 출발한다. (016)401-6254

■ **맑고향기롭게 천수만 철새모이주기**=맑고향기롭게 중앙모임은 오전 8시 충남 서산 천수만으로 철새모이주기를 떠난다.(02)741-4696



◇김제 금산사에서 미륵불교의 사상과 문화를 감상해보자. 사진은 금산사 대장전.

■ **재가연대 도봉산 산행**=재가연대는 도봉산으로 12월 산행을 떠난다. 오전 10시 서울 우이동 그린파크앞에서 집결, 우이암, 자운봉, 회룡사 등을 둘러본다.(02)725-6231

12월 20일 (월)

■ **구산대선사 제16주기 추모법회**=송광사는 구산대선사 제16기 추모법회를 오전 10시 대웅전에서 갖는다.(02)733-5322

■ **불교산악인련 송년법회**=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는 오후 5시 서울 타워호텔에서 전국 39개 지회 회원 1천명이 참가한 가운데 송년법회를 봉행한다.(02)2232-6948

■ **자성학교 교사 연수**=진각종 통리원은 23일까지 3박4일간 제천시 청소년수련관에서 현직 자성학교 교사 및 관심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제24기 자성학교 교사연수를 연다.(02)913-0753

12월 21일 (화)

■ **경불회 교리공부**=경희의료원불자들의 모임 경불회는 오후 6시 30분 교리공부법회를 연다.(02)958-8112

종단소식

조계종

새해맞이 등 밝히기

조계종 총무원은 31일 오후 10시부터 1월 1일 오전 6시까지 조계사및 우정국로 일대에서 새해맞이 희망의 등 밝히기 행사를 개최한다.

불자와 시민들에게 지혜와 희망을 갖게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는 전통장엄등 전시, 대웅전앞 회나무와 종각에 오색연등과 황금빛 조명 설치, 108개의 풍등날리기, 문화공연, 민속놀이 시연, 제등행진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02) 732~9342.

태고종

동방불교대 동계수련

종립 동방불교대학(학장 정태혁)은 4, 5일 양일간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동계수련회를 개최했다. '새 천년을 준비하는 화합의 공동체'를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에는 재학생과 동문 등 2백명이 참석해 참선의 방법과 실제, 교화승단의 수 행과 교화등의 강의와 토론, 108배 참회정진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5일 오후 6시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제3회 동방인의 밤 행사가 열렸다.

천태종

中스님 14명 초청

총무원(원장 운덕)은 한국과 중국의 인적교류강화 차원에서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중국 운남성 복건성 산동성의 젊은 스님 14명을 초청했다. 석승화스님을 단장으로 한 중국스님들은 9박10일 동안 구인사 삼광사 정광사 등 종단의 주요사찰을 참배하고 종정 도용스님을 친견하는 등 한국 천태종을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각종

종무원 15~17일 연수

통리원과 교육원 각 지방교구청 근무 전 종무원을 대상으로 한 종무원 연수가 15일부터 17일까지 2박3일간 지리산 한화콘도에서 열린다. '새 천년을 준비하는 예비 교역자가 되자'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수에는 각 부 교구청별 업무점검 및 새해 종무행정 지침 하달, 교리강좌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청년회장 김구용씨



전국청년회는 4일 서울 장안웨딩프라자에서 제26회 대의원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24대 회장에 김구용씨(위덕대 전자계산연구소 전산계장·사진)를 선출했다. 전국청년회는 이날 역대진각청년모임과 공동으로 올 한해 활동을 결산하는 제5회 진각청년의 밤 행사를 갖고 '올해의 주인공' 상을 시상했다. △지혜인상=김미라(서울 행원지회) △용기인상=김형삼(경주 흥원지회) 최동욱(포항 보정지회) △자비인상=이병용(안강 신혜지회) 이정판(부산 화친지회)

조동종

새해예산 5억 승인



6일 총무원 회의실에서 정기중앙종회를 개최(사진)하고 내년도 사업과 예산 4억 9천만원을 심의 통과시켰다. 또한 총무원 청사를 내년초 용산구 효창동 원효사(주지 학봉)로 이전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원장 및 집행부 스님을 전면 개편하였다. △감찰원장=심월 △종회의장=호산 △포교원장 =일광 △호법원장=법공 △교육원장=순서 △문화원장=암운 △율원장=덕성 △총무부장 =행문 △사회부장=암행 △규정부장 =행만

원효사 마정수기법회

서울 효창동 원효사(주지 덕봉)는 1일 티벳 린포체 등 7명의 라마스님들을 초청한 가운데 신도 150명에게 마정수기법회를 봉행했다.

애등종

서울종무원 개원

강남 논현동 은혜사(주지 해상)에 서울 종무원을 개원하고 11월 30일 사부대중 1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개원법회와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 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게시판

알림

▲**무공해 고춧가루·버섯·콩 판매**=강남포교원 생협에서는 12월 특산품으로 무공해 월악산 고춧가루 , 표고버섯, 매주콩, 검정콩 등을 판매한다.(02)539-2631

▲**보현사 갓김치 판매**=보현사신도회는 화재로 소실된 법당과 요사채 불사를 위해 여수 특산물인 갓김치를 판매한다.(0662)662-8106

▲**무료영화상영**=함지골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을 위한 무료영화상영을 실시한다. 18일 오후 5시 청소년극장에서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를 상영한다.(051)405-5223

▲**본동복지관 일일호프**=본동복지관은 18일 오전 10시~밤 10시까지 저소득 아동·노인돕기 기금마련을 위한 바자회 및 일일호프를 연다. 수익금은 겨울잠바와 난방기구 마련에 쓰여진다. (02)817-8052

강좌

▲**기초교리·천수경**=광운정사는 광운불교대학을 연다. 기초교리, 불교역사, 부처님일대기, 사찰예절, 〈천수경〉, 〈반야심경〉 등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지도한다.(02)389-8996

▲**장애인운전교육**=연화복지학원은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장애인 운전이론교육을 실시한다. 실기교육은 매주 월~토요일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지도한다.(02)2202-5831

▲**제과제빵·요리**=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제과제빵, 전문요리교실, 생활영어 기초반 등의 성인사회교육강좌를 연다. 제과제빵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전문요리교실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생활영어는 매주 화,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지도한다.(02)2282-1100

▲**인테리어·수지침 등 주부개발교실**=금오종합사회복지관은 글쓰기, 독서지도, 요리, 미술, 인테리어, 수지침, 단전호흡, 종이접기, 피부관리메이크업, 제과제빵, 종이접기 등 주부자기개발 교실을 연다.(0546)458-0230

모집

▲**삼학원 입학생**=가산불교문화연구원 부설 불교원전전문학림 삼학원에서 입학생을 모집한다. 삼장을 체계적으로 연찬하고자 하는 비구 비구니 또는 강원 중앙승가대 동국대 졸업 등의 학력을 갖추야 한다. 교육은 불교원전연구, 불교어학연구, 기초학습과정 등이다.(02)765-9602

▲**불교도서 기증자**=광주불교교육원은 대출용 서가에 비치할 불교서적 기증자를 기다린다.(062)228-9098

▲**노인주간보호센터 이용자**=연꽃마을 노인주간보호센타는 마포구내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 및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주간보호센터 이용자를 모집한다. 경로병원이용, 기공체조, 이미용서비스, 중식제공 등의 서비를 받게된다.(02)365-3677

▲**동양화·컴퓨터강사**=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동양화, 사군자, 컴퓨터 등의 사회교육강좌를 지도할 자원봉사자를 기다린다. 각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능을 습득한이면 된다.(02)385-1351

▲**독거노인 틀니지원 후원자**=금오종합사회복지관은 무의탁 독거 노인을 위한 사랑의 틀니 지원사업에 동참할 후원자를 모집한다.(0546)458-0230

▲**어린이지도교사**=조계사는 어린이지도교사를 모집한다. 어린이포교에 관심있는 사람으로 유아교육과 또는 아동학과 전공자면 더욱 좋다.(02)720-6742

▲**특수교사·사회복지사**=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특수교사와 사회복지사를 모집한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0443)652-0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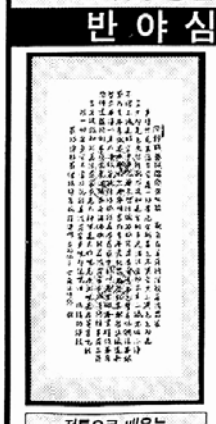
▲**재택부업 일감제공업체**=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재택부업이 가능한 일감제공 가능한 기업체, 단체 및 개인을 모집한다. 실밥뜯기, 야채다듬기, 재봉, 봉투작업 등 어르신에게 적합한 일감.(02)385-1351

▲**수지침·자원봉사자**=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매주 수요일 오후2시 수지침교육을 지도할 자원봉사자를 찾는다. 수지침교육을 수료한 불자여야 한다. (02)989-4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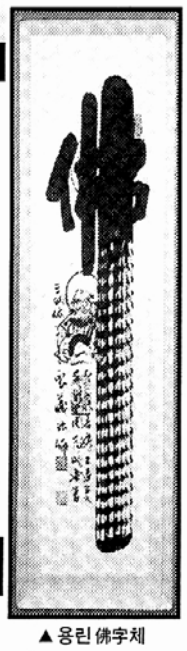
화촉

▲前 한국불교신문 기자 안소민씨가 19일 낮 12시30분 전주 동원웨딩타운 2층 크리스탈실에서 신용훈씨와 화촉을 밝힌다. (0652)277-5039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佛字용린체
반 야 심 경



한국신기록을 획득한 운장법사의 초능력적인 신비의
「용린 佛字」 최초로 공개
◎신기·영기를 발하는 佛字 달마(달마대사) 그림, 龍자그림(수맥파차단) 특별보시!



▲용린 佛字체

정통으로 배우는 서예 시군자, 달마 佛字, 龍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인터넷♦ http : //www.mahamail.co.kr

부사품 및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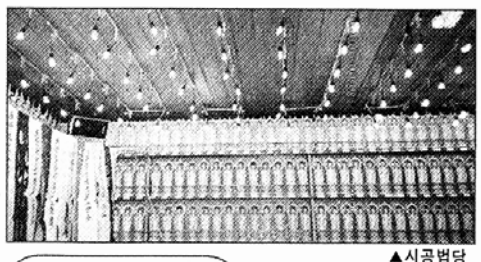
생명의 전화 : ☎ (02)2242-0331 FAX : 2242-0255
(夜) (02)2216-0307, 011-471-1996

●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

불자기업 신성기획 확장 이전

불자기업 신성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스님 및 불자님들의 꾸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불자기업 신성은
각종 불사현장에서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공법당



▲시공전선 전개도〈의장 16525호〉

▶ 특 징
1. 일체형 - 접촉 불량 無
2. 편리형 - 연등고리
3. 불자 기업 - 卍 표시
4. 절약형 - 가격저렴
5. 확실한 A/S
6. 반영구적

▶ 사용용도
· 사찰 연등용

▶ 규격
· 법당용 - 30cm, 40cm, 50cm
· 외부용 - 1M, 1.5M, 2M, 3M

▶ 취급품목
· 연등 전기배선, 현수막, 간판, 판촉물 등

안전하게 제작에서「시공」까지 깔끔하게 처리 하겠습니다.

신성기획
본 사: 서울시 도봉구 창1동 667-117호
공 장: 경기 김포시 통진면 마송리 14-22호
TEL:02)993-8903~4
H.P:011)369-3838 FAX:02)993-8905

說法 개인지도

단시일내에 대법사가 될 수 있는 길

부처님의 오종설법, 개차법, 대기설법
비유법등에 근거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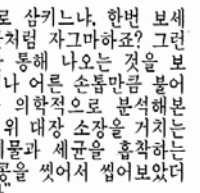
성공적인 법회운영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자료의 재구성능력이 확보되야 합니다.

과목
●설법방법론, 강의기법, 화술, 상담기법
●음성학, 태도학, 修辭學, 원고작성법, 회의진행법 등
●서예반 강좌 개설

연 수 안 내
▶ 기 간 : 2개월 과정
▶ 강 의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수시접수
▶ 회원관리 : 정회원(매월 1회 모임) ※발표회
▶ 장 소 : 본연수원 강의실
▶ 지도법사 : 金 哲 會 박사
※ 출장지도 가능합니다. ※

韓國說法研修院
서울 종로구 교남동 61-2 (오봉빌딩 별관 3층)
문의 및 신청 ☎ (02)737-1567, 5925
FAX (02)737-8725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설악산 신흥사 거룡 범주스님의
선식 검정콩
'金금 檀단 花화'





"왜 콩을 통째로 삶키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톱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번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다 더 쓰더라니까"

옻나무와 소나무의 옻진과 송진을 채취하여 두어달 발효시킨 뒤 마늘, 토종꿀, 감식초, 부추, 대파, 생강의 생즙을 낸 다음 옻진 송진 발효된 것과 잘 혼합하여 검정콩을 액체에 담궜다가 건져내 따뜻한 온돌방에서 10일간 말려내면 30세 이하가 복용하는 초벌용 금단화가 완성되고, 이 과정이 두번, 내지 세번 반복되며 액체에 담그는 횟수에 따라 약효가 달라지는데 40세가 넘는 성인용의 경우 숙성 기간이 족히 2개월을 넘는다는 설명이다. 하면 일반에서도 금단화를 제조하여 먹으면 좋겠지만 옻진이 한되에 기천만원을 호가하며 그마저도 국산 옻진을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 여성동아 1월호 인터뷰 내용 중 -

"선식 검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월 20일 MBC TV 「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효능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 상담문의 ☎ (02)3437-8282 ◑

전국 돌부처 인터넷에 모였다

한국석불문화硏 전문 홈페이지 개설

2백37기 정보제공…英·日·中語서비스

전국 산하에 흩어져 방치되고 있는 미지정 돌부처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4일 국내최초로 석불관련 인터넷 사이트(www.stonebuddha.com)를 개통한 한국석불문화연구회(회장 이근후, 이화의대 교수) 홈페이지에서 한국인의 영원한 귀의처 경주 남산의 돌부처 87구와 전국에 산재한 1백50여구의 돌부처를 만나볼 수 있다.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있는 돌부처들은 석불문화연구회가 13년간 매월 1회 직접 정기답사를 통해 자료를 구축한 것이어서 풍부한 정보와 높은 신뢰도를 제공하고 있다.

석불검색서비스는 유형, 무형, 국보, 보물, 지방, 향토유적 비지정, 기타문화재로 분류하여 지방별로 찾아볼 수 있고 쉬운 설명으로 이끌고 있어 친견및 답사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고 있다.

각기 문화재는 형태와 설명, 사진, 관련 설화와 시, 약도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석불회는 돌부처자료를 동양화 서양화 관화로도 제작하여 올린다는 계획이다.

불교문화유산의 보고인 경주남산은 부처골 선방골 천룡골 냉골등 26개 골짜기로 분류하여 돌부처를 소개하고 있으며 한글, 영문판 경주남산지도도 제공해 처음 찾는사람도 소상하게 문화유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운문사, 군위일원의 돌부처, 경주남산의 석불, 용문, 운강석불등 국내외 석불 관련 답사자료와 매달 두번째 수요일 열리는 수요사랑방 모임에서 발표한 석불강좌도 올라있다.



◇전국에 산재한 석불을 검색할 수 있는 석불회 인터넷 홈페이지.

특히 석불회 인터넷 사이트는 영어 일어 중국어로도 제공돼 경주남산 석불등 우리의 불교문화재를 해외에 소개하고 있다.

이근후회장은 "21세기가 문화의 시대라고 하지만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찬란한 우리 역사속에 주종을 이루는 불교미술, 거기에 돌부처의 오묘한 미소를 계승 보존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찾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석불문화연구회는 4일 출판문화회관에서 1백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99 활동보고대회를 갖고 올해 답사한 28기의 석불을 중심으로한 슬라이드쇼를 개최했다. 이어 소설가 최성각씨의 '네팔탐방기'를 주제로한 초청강연이 진행됐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상량

석굴암 본떠 16국사 봉안…내년 5월 완공

한마음선원 대구지원(지원장 혜계)은 12일 오후2시 신축법당(대구시 수성구 중동) 상량식을 거행했다.

98년11월 착공한 신축법당은 대지627평 연건평668평의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SRC구조(철골철근콘크리트)와 전통한식을 조화시킨 건물로 되어있다. 완공은 부처님오신날에 맞추어 2000년 5월이 될 예정.

신축법당의 2층에는 1백60여평의 전용법당이, 1층에는 소법회실과 종무소가 들어서며 지하에는 대강당 겸 문화공간과 공양간 방송실 기계실 요사등이 들어간다.

석굴암개념을 도입한 전용법당에는 半아치형태의 불단중앙에 본존좌불이 봉안되고 둘레에 목조각으로 된 16국사像이 배치된다.



◇신축중인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지붕에는 가마에서 구운 황금색 도자기와 3만6천여장이 사용되며 지붕중앙에 진리를 상징하는 봉탑이 세워져 새천년의 비전을 제시하게 된다. 신축지원은 대소법당과 강당을 동시에 개방할 경우 최대 3천명이 한꺼번에 법회를 볼 수 있는데다 교통요지에 있어 도심포교의 새로운 명소가 될 전망이다.

이윤호 기자



◇한국절 관음사 문화회관 ㄴ성법회에 각계인사가 테이프 절단식을 하고 있다.

日 관음사 문화회관 낙성

장의시설·납골당 갖춰

일본 오사카 시내 코리아타운에 현대식 한국사찰인 관음사문화회관(관장 원연)이 건립돼 본격적인 복지포교에 나섰다.

5일 열린 관음사문화회관 낙성법회에는 서옹 백양사방장(前조계종종정) 다정 백양사주지 박철언 자민련불자회장(자민련부총재) 오근민 제주도지사 허문도 前통일원장관 등 한국 불자 200여명과 윤향규 주오사카총영사 홍성인 민단 오사카단장 관음사 신도 등 현지인 500여명이 동참했다.

관음사 문화회관 건립은 지난 94년 일본인 요시무라스님의 제의로 시작돼 363평의 부지를 확보해 지상9층 지하 3층의 연건평 1080평 규모로 만 1년 공사 끝에 낙성됐다. 1층은 법당 2층은 장의식장 3층은 요사채이며 4~5층은 문화행사장 6~9층은 납골당으로 이용된다.

낙성법회에 앞서 4일 열린 사리이운 법요의식과 법당 부처님 봉불 점안식은 태연스님(일본 고려사 관장)의 집전으로 5백여 신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최현규 일본지사장

구미 신라불교 초전지 기념관 아도모례원 기공

백용성조사 유훈실현후원회(회장 한명옥)는 7일 도문스님(대각회 이사장)등 4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경북 구미시 도개에서 신라불교 초전기념관 아도모례원 건립기공식을 개최했다.

유훈실현후원회는 아도모례원을 목조 33평으로 건립한다.

김원우 기자

대구불교회관 재추진 사원련 내년사업 발표

대구사원주지연합회(회장 원명)의 신년 사업계획이 확정됐다. 신년 사업계획서는 5개의 법회개최와 불교대구회관 건립재개, 불교대구교육원과 합창단등 부설기관 운영활성화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회는 성도절기념법회(1월14일)와 정월대보름달맞이 방생법회(2월19일) 대구광주사원연 합동법회(미정)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 동참(5월11일) 생태계복원을 발원하는 토끼방생법회(5월중)등 5개로 확정됐으며 불교대구회관 건립재개를 위해 공사현장에 임시법당과 사무실을 설치하고 모금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했다.

同연합회는 연합회기금조성 7천만원 등 총3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안국사 군불자회 창립

육군 제7516부대 1대대 안국사는 4일 軍불자회 및 후원회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초대회장에 최태랑씨(경주 삼포쌈밥대표)를 추대했다. 同불자회는 매주 토요일 정기법회를 개최하는 것을 비롯 월1회 현역·예비군 합동법회와 분기별로 후원회원이 참석하는 통합법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윤호 기자

20세기 불교 **그 현장 그 인물**〈10〉·끝

◇1975년 11월 18일 서울 신문회관에서 있었던 제 종단 통합 결성대회후 5개종단 지도자들이 기념촬영했으나, 이 노력은 무산됐다. 〈사진제공=이경우 한국새종교연구원장〉



한국불교 제종단 통합 시도

지도자 없고 이해 상충 무산

전사법 이후 80여개 종파 난립 문패 다를뿐 종지·종조 같아

한국불교의 외형상 큰 특징은 종파불교이다. 신라 때 5교9산을 시작으로 종파는 11종까지 번창하다 선교 양종으로 통합되고, 조선조 무종(無宗) 시대를 겪다가 일제때는 1911년 사찰령 치하에 어용종단인 원종에 맞서 임제종이 결성됐다. 그러나 41년 조계종이 성립되면서 이후 한국불교는 과거 종파불교의 양상을 재현하게 되었다. 62년 불교재산관리법 아래서 18개 종단을 구성한 후 다시 88년 전통사찰보존법으로 바뀌면서 현재의 다종과 시대를 구가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 80여 개로 추정되는 종단이 이름만 다를 뿐 종조·소의 경전·종지·수행체계 등에서 차이가 없이 난립하고 있다는 점. 정확한 수량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이합집산의 현실은 이미 종파불교가 아니라는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해방이후 단일종단으로 조계종이 계속되어오다. 62년 불교재산관리법의 제정으로 인사와 재산관리에 대한 승인권이 정부에 귀속되면서 종단등록이 줄을 이었다. 62년 12월4일 조계종을 시작으로 72년 4월20일 비구니종단 보문종 등록까지 18개 종단이 탄생됐다. 선종계열로 조계종, 교종계열로 태고종, 법화계열로 천태불입(관음종으로 개칭) 한국법화대한법화 일승종, 밀교계통으로 진각 진언종, 화엄계통으로 원효총화 화엄종, 미륵계통으로 법상미륵 용화종, 정토계통으로 정토종, 약사계통으로 천화불교, 비구니종단 보문종 등이다.

불교재산관리법 아래서 조계종을 제외한 17개 종단들은 몇차례의 통합을 시도했다. 70년대 초 여론에 자극받아 이 운동에 태고종이 앞장섰다. 수차례 협의를 거쳐 결국 75년 10월 태고 총화원효 법상종 등 4개 종단이 나서서 한국불교 제종통합 발기위원회를 결성하고 이어 11월18일 서울 신문회관에서 한국불교통합위원회 결성법회까지 이끌어냈다. 그러나 사찰재산의 후속조치가 거론되면서 무산됐다. 또 사상·계열별 종단간의 통합작업도 진행됐다. 법화계가 특히 활발했고 밀교 미륵계도 모색했으나 끝내 수포로 돌아갔다.

통합운동이 결실을 못본 것은 재산권 문제와 종단간의 이해 상충등이 큰 걸림돌이지만, 뚜렷한 지도자가 없는 점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불교재산관리법이 폐지되고 전통사찰보존법이 대체 입법된 1988년 부터는 당시 기성 종단 대표들이 우려했던 현상들이 현실로 나타났다. 군소종단들의 분종과 창종이 우후죽순처럼 줄을 이었던 것이다. 그것은 '종단난립' 그 자체였다. 교세 또한 여타의 친목단체에도 비견할 수 없는 미약한 종단들이 앞 다퉈 불교종단임을 자처하고 나섰던 것이다. 불교재산관리법 폐지 직후 가장 먼저 창종된 종단은 대구 보덕사에서 출발한 아세아정토불교 한국총본사 법안종이다. 이어 일승종에서 분파돼 대승종이 창종했고, 뒤이어 재가종단 불승종이 창종했다. 이어 일붕선교종 대승불교여래종, 태고종에서 분파된 법륜종이 창종하는 등 1988년 한해동안 무려 9개의 종단이 생겼던 것이다.

신생종단은 기존의 소속 종단에서 의견대립이나 파벌형성에 따른 내분으로 갈라져 나온 후 창종을 선언한 종단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불교의 난맥상과 심각한 후유증을 낳고 있다. 인맥에 따라 탈종 분종 창종까지 이어진 이들 신생 군소종단들은 이합집산에 다름아니었기 때문이다.

위영란 기자
(yryui@buddhapia.com)

당신은 본래 청정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멋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코스
◐아바타 코스는 7~9일 걸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서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교통편 : 서울역, 시청앞, 조계사앞 3호선 경복궁역에서 135, 135-1, 2, 3번 버스로 약 20분 거리

밝은길 아바타센터
마스터 / 위저드 김희균 합장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TEL : (02)396-2736 H.P. 016-228-2358

용국사 영혼의 쉼터 (법당식 납골당) 국내 최초 건립

납골당에도 명당이 있다

"영혼의 쉼터가 왜 명당인가"

- ◆ 보물 373호, 472호로 지정된 1300년 고찰터
- ◆ 사방이 병풍을 둘러친듯 영산의 명당지
- ◆ 건평 200평 대법당에서 평생동안 부처님 궁전에서 영생불사한다
- ◆ 조석예불과 巳時(사시) 마지공양을 영전에 올리며
- ◆ 항시 대법당에서 기도, 독경, 염불을 모실 수 있다
- ◆ 제사, 불공, 49제를 의식할 수 있다
- ◆ 평생관리 허가증 발급 ◆ 24시간 순찰경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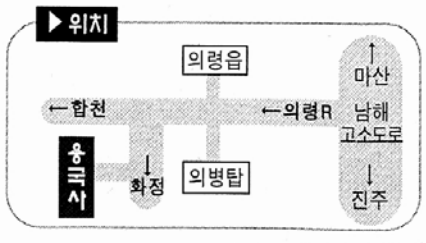
유골탑: 옥석 2단(1단: 유골안치 2단: 게첩, 염주, 경전등 소장)

불자의 평생소원 법당식 납골당 드디어 공개 영혼의 쉼터로…



동양최대 3백3십3불 노천 관음보살 봉안지

용국사 버스 운행표 (일요일 휴무)
· 부산 한아름 예식장 앞(사직동 고속버스뒷길) 08:30 출발
· 창원(창원역전 앞) 09:50 출발
· 마산(마산역전 앞) 오전 10시 출발
용국사 도착 10시 30분(영혼의 쉼터)

▶위치


효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충이 따를 수 없다
효는 가정에 근본 충은 민족에 정의
"생전에 못다한 효도 사후에 마지막 기회"

기공식 특별기념 (안치·예약 접수중)

~~납골함+영전+위패+평생관리=350만원(1기당)~~

안치 및 예약
기공식 특별기념으로 200명 선착순 1기당 175만원
사망한 유골, 타지역유골을 즉시 법당에 안치할 수 있다



위패(향목) 옥석2단함 영전(향목)



건평 200평 대법당에 안치할 납골당 내부전경

문의 및 연락처 (0555)572-3233, 3533 경남 의령군 의령읍 하리 산 852

교계 송년행사 형식탈피 '뜻있게'

'3천배 참회기도' '노인잔치' '주민과 함께' 등 다채

교계 송년문화가 바뀌고 있다. 만찬형식의 예년과는 달리 각종 문화행사 및 독특한 법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새로운 송년문화가 자리잡아 가고 있다. 특히 신도와 지역민, 불우이웃들과 함께 하는 행사에 초점을 두고 있어 포교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북불교대학(학장 강건기)은 이달 31일 대학 4층 큰법당에서 '송년, 3천배 특별 철야정진'을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자신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송년문화의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익산 관음사(주지 지장)도 지난달 15일 '108참회 백일기도'를 입제하고 자신이 지은 잘못된 행위 108가지를 적은 참회문을 작성, 스님과 신도 등 대중모두가 새벽·사시·저녁예불에 맞춰 참회기도를 봉행하면서 한 해를 뜻깊게 마무리하고 있다. 서울 정안사(주지 일형) 역시 한 해를 의미있게 정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는다는 취지의 '3천배 참회기도'를 31일 해인사 백련암에서 갖는다. 조계사(주지 지홍)는 31일 윷놀이·널뛰기·사물놀이패 공연 등 전통놀이와 함께 철야정진법회로 이어지는 송년회를 개최, 우리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교계 복지관들도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지역민과 함께 하는 송년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은평노인종합복지관(관장 성운)은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은빛 한마당 잔치'를 펼치고 생활보호대상 노인 2쌍의 합동결혼식과 장기자랑 형식의 '은빛 예술제' 등으로 송년회를 대신하며, 옥수종합사회복지관(관장 상덕)은 17일 밤 지역 중·고교 음악 동아리 초청 음악회를 개최한다.

속초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지홍) 역시 23일 아남 프라자 대연회장에서 지역 초등학교 교사들로 구성된 음악동아리 및 음악인 초청공연을 개최하며, 강북장애인복지관(관장 양산)은 17일 직업적응훈련실 원생들의 부모를 초청해 정신지체인들인 원생들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 식사를 제공하는 독특한 송년회를 갖는다.

이밖에 구로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후)도 20일 구로구 구민회관에서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들의 연극·춤 등의 공연으로 송년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금오종합사회복지관도 15일 노인 예술단 발대식을 겸한 축하공연으로 송년의 의미를 되새긴다.

한편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의장 석담·진욱)는 송년회 대신 그동안 전국 사찰에서 모은 결식아동돕기 성금 1천5백만원을 서울·경기지역 불우아동 100명에게 지원하는 '불교어린이의 만남' 행사를 19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갖는다. 또 대한불교청년회 광주지구(회장 이주성)는 24일 광주문예회관 소공연장에서 '제1회 부다가야 청년문화예술제'를 열고 한 해를 마무리한다.

조계사 주지 지홍스님은 "과거의 먹고 즐기는 형태에서 벗어난 새로운 송년문화는 건전한 송년분위기는 물론 지역포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5일 준공된 경기 안성 도피안사 수광원은 수행공동체 도량으로 수행과 문화활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안성 도피안사 '수광원' 완공

실버타운 형식 수행공동체로 운영

경기도 안성 도피안사(주지 송암)가 5일 수행공동체 도량인 수광원 준공법회를 가졌다.

수광원은 30평규모의 황토생활실 건물 2동으로, 욕실과 부엌, 거실, 침실 등이 구비된 생활실이 들어서 있다. 노년층부부를 중심으로 한 실버타운 형식의 공동체로 운영될 수광원은 편안한 노후생활과 함께 불자들끼리 수행생활과 취미활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도피안사는 개관과 더불어 노년층 부부들을 위한 알찬 수행프로그램과 도예, 미술, 음악, 원예 등의 문화강좌도 실시할 예정이다. 도피안사는 앞으로 100세대의 부부들이 함께 생활하고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때까지 연차적으로 수광원 건물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행공동체들을 위해 참선, 염불 등을 중점 지도하고 아침저녁 예불, 산행, 운력, 성지순례 등의 수행프로그램도 진행하게 된다.

지난 95년부터 수행공동체 불사를 추진해 온 송암스님은 "4년전 완공한 파라미타수행원과 이번에 완공한 수광원 뿐 아니라 청소년을 위한 수련관 로터스텔도 내년초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중에 있다"면서 "도피안사를 전방위적인 불교 수행공동체 도량으로 가꿔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0334)676-8700 이은자 기자

삼중스님 교화후원회 '경찰 수사중'

플라스틱을 게르마늄 염주로 속여 고액판매

삼중스님 교화후원회(회장 김동기)가 염주사기 판매와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

삼중스님 교화후원회는 삼중스님의 교도소 교화와 관련된 비용충당을 위해 게르마늄 염주를 판매해 왔으나 염주에 게르마늄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플라스틱 염주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금정경찰서 조사2계는 7일 진상 규명을 위해 정확한 성분분석을 의뢰해 놓고 있는 한편, 후원회원 명단 파악, 자금 사용내역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금정경찰서 측은 "아직 조사중이며 결과가 나와봐야 뭐라 말할 수 있다"는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삼중스님 교화후원회 김동기 회장은 "지금은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는 말만을 되풀이할 뿐 일체의 언급을 피하고 있다.

삼중스님교화후원회는 98년부터 삼중스님교화기금마련후원회라는 명칭으로 사무실을 열어 염주를 판매해 왔으며 부산을 비롯, 전국의 많은 불자들이 교화사업 후원을 위해 염주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중스님 교화후원회의 염주판매는 삼중스님이 권희로씨 석방에 비중 있는 역할을 해낸 이후 본격화되어 대규모 법회나 각 동단위로 호텔, 예식장 등에서 법회를 열어 수십 차례에 걸쳐 염주를 판매해 왔다. 정확한 판매수량이 파악되지는 않았으나 5천여 개로 잠정 추정되고 있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성오)와 조계종에서 고액의 염주판매로 불자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 수 차례 조사를 하는 한편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으나 삼중스님은 올 초 조계종을 탈퇴, 제재로부터 벗어났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KCRP 대표단 방북

남-북 종교인평화모임 논의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명예회장 김몽은 신부와 변진흥 사무처장, 삼소회 대표 혜견스님과 원불교 김지정 교무등 KCRP 방북대표단은 10~18일 방북기간중 북한의 조선종교인협의회 장재언 위원장을 만나 내년 남북종교인평화모임의 서울 또는 평양에서의 개최, 3.1절 겨레손잡기운동에 북한 종교인의 참여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삼소회는 겨울옷 2천6백벌을 조선종교인협의회에 전달한다. 정성운 기자

올 불교복지 활동 '평년작'

각종단 복지재단 설립 '성과'
잇단 복지관 공금유용 '아쉬움'

올해 불교계 복지를 예년과 비교해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보합세(保合勢)'를 유지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보합'이라는 말은 주식시장에서 시세의 변동이 없을 때 쓰는 용어로, 올 한해 불교계 복지는 말 그대로 평균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올해 불교복지는 어느 해보다도 호재와 악재가 상충됐던 한해로 기록될 만하다.

지난 6월 총지종이 조계종 진각종에 이어 세번째로 종단 차원의 복지법인을 설립했으며, 진각종 복지재단은 한국국제협력단(NGO)에 가입하고 11월말 네팔·스리랑카에 지부를 설립했다. 또 10월에는 천태종이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진각사회봉사단이 발족했으며, 올 한해동안 조계종 복지법인을 비롯한 각 복지법인들이 모두 10여개의 복지시설을 수탁하는 등 불교복지의 영역을 국내외로 넓히는 성과도 올렸다. 이와 함께 지난 14일 불교복지정보를 총망라한 〈한국불교사회복지총람〉이 발간돼 불교복지발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또한 인터넷 시대에 걸맞는 각종 전산화 작업이 이뤄진 것도 올 불교복지의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한몫을 했다. 조계종 복지재단이 6월 복지정보지원센터를 설치,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한 것을 비롯해 연꽃마을이 통합관리 전산망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대부분 복지시설이 전산화작업을 추진했다. 또한 생명나눔실천회가 벌인 '장기기증·화장유언' 캠페인은 장기기증의 경우 올 한해동안 모두 2천7백여명이 동참해 97년 6백60여명, 98년 1천4백여명에서 매해 2배 이상 늘어났으며, 화장유언 또한 지난해에 비해 배이상 늘어나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상반기부터 이어져 온 강세는 하반기들어 나타나기 시작한 악재로 인해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지난 7월 불거져 나온 서울 자양복지관과 부산 공창복지관 관계자의 공금유용사건은 불교계 복지시설 관리의 허점을 그대로 노출시키면서 조계종 복지체계가 교구본사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명제를 남겼다. 또 각 복지시설들의 자원봉사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음에도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것이나, 겨울철이 되면서 14곳의 노숙자 수용시설을 방치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명우 기자

동국대 'BK21' 지원대상에 선정

동국대 불교문화사상사 교육·연구단(단장 조용길·불교학과)이 교육부의 고급인력 양성계획인 '두뇌한국(BK)21' 사업 인문·사회분야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교육부와 인문사회분야 기획조정위원회(위원장 이영덕)가 8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동국대는 올해부터 7년간 총 30억6천6백만원을 지원받아 불교와 종교문화, 불교와 문화역사, 불교사상사를 연구하게 된다. 또 핵심분야 사업에는 동국대 연극영화학과 'N'세대의 이미지 문화 연구인력 양성팀(팀장 정재형)이 선정됐다.

한편 두뇌한국 21 지원대상에 선정된 대학은 동국대를 포함 성균관대 4개, 서울대 3개, 고려대 3개, 이화여대 2개, 서강대 2개, 한양대 1개, 숭실대 1개, 대구대 1개 등 11개 대학 18개 사업단이 선정됐다.

선정된 대학은 △학부 입시제도 개선 및 입학정원 감축 △대학원 문화 60%까지 개방 △연구비 중앙관리 등을 이행해야 한다.

김중근 기자

23명 재심사 징계경감

조계종 특별심사위

조계종 특별심사위원회(위원장 월서)는 6일 5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23명에 대한 재심 결과를 발표했다. 재심청구자 대부분 절반 이하로 경감됐다. 재심사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호-면직 △현고-공권정지 5월 △혜인, 정인, 원경, 자용, 동광, 종열-공권정지 1년 △현일, 효종-공권정지 1년6월 △혜총, 각진-공권정지 2년 △정관-공권정지 2년6월 △지원, 대일, 신해 활현-공권정지 3년 △활중-공권정지 4년 △부동, 성조, 무영-공권정지 5년 △보연-공권정지 10년 △정빈-제적 정성운 기자

뉴스 & 뉴스

불추위 대북지원창구 자격'

민족화합불교추진위(상임집행위원장 명진)는 11월 29일 통일부로부터 10번째 대북지원 독자창구 자격을 획득했다. 그동안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대북지원사업을 펼쳐온 불추위는 독자창구를 갖게됨으로 해서 북한불자를 위한 대북지원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조계종 '우수봉사자' 포상

조계종 복지재단(대표이사 정대)은 23일 오전 11시 복지재단 강의실에서 '우수자원봉사자 포상식'을 거행한다.

지난 1년간 복지재단 소속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불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된 송년회 형식의 이번 행사에서는 3년 이상 활동한 자원봉사자 30명에게 '100일 봉사상'이, 5년 이상 활동한 자원봉사자들에게 '200일 봉사상'이 시상된다. 한명우 기자

새천년 맞이 성각스님법회

성각스님과 탤런트 전원주가 함께 하는 새천년 열린 세상이 12월 15일 부산 국제신문 문화센터 4층에서 PSB 부산방송 주최,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주관으로 열렸다.

이 행사는 다가오는 새천년을 맞아 시민들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북돋우고 생활의 지혜와 바람직한 부부관, 가족관, 여성관 등 다양하고 진솔한 얘기들로 꾸며졌다. 천미희 기자

무량종 27일 정기종회

무량종 중앙종회(의장 혜안)는 27일 정오 서울 총무원 회의실에서 정기중앙종회를 개최한다. 이번 종회의 안건은 △1999년 세입세출 결산의 건 △2000년세입세출 승인의 건 △종헌종법 개정의 건 등이다. 한편 무량종은 총본산 개원식을 내년 1월 18일 지리산 칠보정사에서 갖는다. 이경숙 기자

18일 '좋은벗들' 3돌 기념식

(사) 좋은 벗들(이사장 법륜)은 18일 오후3시 정토법당 1층에서 창립총회및 3주년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기쁨과 공감의 자리를 주제로 중국탈북동포의 현실이 담긴 편지, 동참을 호소하는 활동가의 편지 등이 낭독되고 활동비디오상영, 대금 인간문화재 김응서 축하공연, 지전춤, 판소리, 사물놀이등이 펼쳐진다. 김원우 기자

간병봉사자 45명 배출

불교복지보건대학(학장 혜도)은 7일 제2기 간병봉사자과정 졸업식과 복지자비포교사과정 종강식을 거행했다.

학장 혜도스님, 부학장 황보 선 교수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간병봉사자 과정 45명이 수료증을 받았으며, 1기 졸업생과 함께 총동창회 결성을 결의했다. 졸업생은 총동창회를 중심으로 병원 봉사활동, 유급 간병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천미희 기자

세계평화 · 민족화합 · 가정안택

새로운 천년을 위한 서원 성취 철야기도

동해낙산 해맞이 2000년 새서원 대기도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21세기를 맞이하여 20세기를 반성 참회하고, 부처님의 정법으로 21세기를 불국정토구현을 기원하고,
솟아오르는 태양을 한몸에 받아 고통에서 해탈하고, 나라와 자신이 부처님의 정법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서원을 세워 정진할 것을 맹세하는 기도 대법회에 동참하시어 소원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00년 1월 1일 새벽 12~7시 ▶장소 : 동해안 낙산사 해수욕장(B지구 7호 식당 해변)


증명대법주 종정 석인왕


총무원장 신명안


호법원장 김법우


포교원장 홍법룡

증명대법주 세계승왕 석 인 왕 대승정
증명 법주 김무공 큰스님, 김해동 큰스님,
권양혁 큰스님, 허법성 큰스님, 김찬원 큰스님, 추월산 큰스님,
김봉암 큰스님, 김범오 큰스님, 최법일 큰스님, 황성태 큰스님,
- 여래종 종도사암 일동 -

· 기도시간안내 ·
12시 ~ 5시 정진기도
5시 ~ 6시 새해 새천년을 위한 관정수기
6시 ~ 해맞이 육법공양 및 촛불기도 (용왕재/범패공양)

■주최 : 한국대승불교 여래종 총무원 ■주관 : 대한불교 여래종 재가전교사회 ■후원 : 여래종 사암 일동

한국대승불교 여래종 총무원 0475)731-2261/ 0342)734-3205

※각 사암 주지스님께 문의 ※

천년만에 다시피는 찬란한 한국禪

구산선문 참선기행



◇ '나는 누구인가?' 참선기행단들이 사자산문 법흥사 적멸보궁에서 참선삼매에 들었다.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29호로 지정된 법흥사 적멸보궁.

12월 - 사자산문

흥녕선원 복원불사 추진한창
불사리탑 자장스님 토굴 보존

"불교의 모든 길은 선(禪)으로 귀결됩니다. 참선을 통해야만 오도할 수 있고, 수행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안정, 선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수행도 할 수 없어요. 여기 부처님 궁전에 들어 왔으니, 화두 있는 이는 화두잡고, 화두 없는 이는 부처님과 한 번 만나 보시오. 세세생생 큰 인연이 될 터이니…"

5일 강원도 영월 사자산 법흥사 적멸보궁. 현대불교신문이 기획한 '구산선문 참선기행'의 마지막 답사지인 이곳에서 참가자들은 법흥사 구담(九潭)스님의 가르침을 곱씹으며 저마다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과연, 나는 누구인가?

도윤스님 사자산문 열어

사자산 중턱에 자리잡고 있는 법흥사(주지 도완)는 구산선문 가운데 하나인 사자산문(獅子山門)의 발상지이자 우리나라 5대 적멸보궁의 한곳이다. 자장율사가 문수보살 진신을 친견하기 위해 강원도 세곳을 돌며 사리를 봉안하고 기도를 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곳에 들러 적멸보궁을 지었다 전한다. 처음 이절의 이름은 흥녕사(興寧寺)였다. 사자산문의 개조인 철감선사 도윤(道允)스님의 제자인 징효대사 절중(折中)스님이 흥녕선원을 열어 선종의 구산선문 가운데 사자산파의 중심도량이 되면서 크게 선풍을 떨쳤다.

당시 신라의 헌강왕은 이 절을 중사성에 예속시켜 사찰을 돌보게 할 정도로 지극한 관심을 보였는데, 구산선문이 번창할때는 2천여명이 넘는 스님들이 수행했으며, 공양준비를 위해 쌀을 씻으면 10여리밖에 떨어진 수주면 무릉도원까지 그 물이 흘러갔다고 한다. 그러나 흥녕선원은 거듭되는 병화로 소실된 뒤 천년 가까이 소찰로서 명맥만 유지해 오다가 1902년 비구니 대원각(大圓覺)스님이 중건하고 법흥사로 개칭했다.

법흥사는 천년전 선문대찰의 면모를 다시 살리기 위한 불사가 한창 진행중이었다. 사찰 곳곳에 목재와 석재들이 흩어져 있어, 조금은 어지러워 보이지만 예전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노력과 정성이 곳곳에서 배어났다.

법흥사 극락보전 옆 보물 제612호로 지정된 징효대사 보인탑비에는 현강왕때 흥녕선원을 개설해 선풍을 일으키고, 요선암에서 입적한 스님의 행적이 기록돼 있다. 징효스님은 "삼계(三界)가 다 공하고 모든 인연이 전부 고요하다. 내 장차 떠나려 하니 너희들은 힘써 정진하라. 부디 선문을 수호하고 종지(宗旨)를 무너뜨리지 말아서 불조(佛祖)의 은혜를 갚도록 하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한 뒤 앉은 채로 입적했다 한다. 이 부도비는 병화로 소실된 흥녕사가 중건되던 해인 944년에 세워졌다. 비신의 높이가 2.77m 너비 1.44m이며 형식은 귀부위에 비신을 올려놓고 그 위에 이수로 덮은 신라 고려시대의 전형적인 석비다.

삼계·인연이 모두 空하다

극락전 위로 200여 m를 올라가면 적멸보궁이 자리잡고 있다.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29호로 지정된 법흥사 적멸보궁은 정면 3칸, 측면 단칸의 목조건물이다. 적멸보궁 좌측 뒤에는 자장율사가 수도하던 곳이라고 전해는 토굴(석실)이 있고, 좌측에는 자장율사가 당나라에서 진신사리를 넣어 사자등에 싣고 왔다는 석함(石函)과 진신사리를 모신 사리탑이 서 있다.

적멸보궁뒤로 높이 서있는 사자산에는 백의관음상과 석가모니불, 탑마대사 등 소나무와 기암괴석사이로 수많은 불상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보는이의 눈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이 불상은 사자산의 자랑이기도 하다.

2천여명의 스님들이 수행했다는 흥녕선원지(興寧禪院址)는 법흥사 아래쪽 민가옆에 위치하고 있다. 통일신라시대 사자산문의 중심수행지이었던 이곳은 현재 주춧돌과 이름모를 스님의 부도 1기만 남아 그 시절을 어렴풋이 짐작케 한다. 매서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흥녕선원지에 선 기행단들은 "지금은 이렇게 황량한 터만 남아있지만 앞으로 수년내에 이곳에 국내외 스님과 불자들이 수행할 수 있는 선도량을 일궈낼 것"이라는 법흥사 선학스님의 설명을 들으며 한마음으로 합장기원했다. 한국선의 정통 맥이 계속 이어지고, 수많은 수행자의 땀방울속에 한국불교가 세계로 뻗어나갈 그날을…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흥녕선원에서 사자산문의 선풍을 떨친 징효대사 보인탑비(보물 제612호).



◇적멸보궁 뒤편에 위치한 토굴은 법흥사 적멸보궁을 창건한 자장율사가 수도하던 곳이라 전해온다. 그 옆에 진신사리를 모신 사리탑과 석함이 있다.

징효대사

흥녕선원 개창주

흥녕선원을 일으킨 징효대사의 법명은 절중(826~900)으로 황해도 봉산 출신이다. 사자산문의 흥녕선원을 번창시킨 장본인이다. 중국 당나라 마조의 수제자 남전선사에게서 법을 받고 돌아온 도윤스님 밑에서 16년간 수도했다. 스님은 철감국사 도윤에 이은 사자산파의 제2조로서 화엄학의 무애법계연기(無碍法界緣起)에 입각한 깨달음을 터득했다. 화엄학에서 출발해 선의 세계에 들어간 것은 우리나라의 선이 후대에 화엄학과 깊은 관련을 가지게 된 특징이기도 하다.

수호마애상

성지 요선정 지켜

흥녕선원의 수호불상이라 불리운 마애여래좌상(강원도 유형문화재 제 74호)은 영월군 무릉리에 있는 요선정(邀僊亭) 옆 바위에 음각으로 새겨져있다. 요선정은 징효대사가 얼반한 곳으로 1천여개의 사리가 나왔다는 불교와 인연깊은 곳이다. 요선정의 수호마애좌상은 타원형 얼굴의 풍부한 양감과 크고 듬직한 코와 귀, 상체에 비해 작은 하체 등 전반적으로 불균형한 형태이나 친숙한 미소와 힘찬 기상이 잘 표현된 이 지방의 대표적 마애불상이다.

보덕사

단종 기리는 원찰

신라 문무왕(668년)에 의상조사가 창건한 사찰로 처음에는 지덕사라 불렀다. 1457년 단종이 노산군으로 강봉되어 유배되었을 때는 노릉사(魯陵寺)로 고쳐 불렀으며, 단종이 승하한 후 보덕사로 개칭해 단종의 영혼을 기리는 원당사찰의 역할을 하고 있다. 강원도 문화재 자료 제23호로 지정된 극락보전을 비롯 사성전, 칠성각, 부속암자인 금몽암 등이 있다.

8차례 답사…구산선문 복원 필요성 절감

결 산

한국불교의 선맥을 따라 지난 4월~12월까지 8회에 걸쳐 실시한 '구산선문 참선기행'은 사자산 법흥사를 마지막으로 회향했다.

4월 가지산문 보림사를 시작으로, 5월 실상산문 실상사, 6월 사굴산문 굴산사지, 7월 동리산문 태안사를 참배했으나, 9월 희양산문 봉암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10월 봉림산문 봉림사지, 11월 성주산문 성주사지, 12월 사자산문 법흥사를 돌며 한국 전통 선맥의 흐름을 살펴보며 신심을 다지고, 한국불교의 역사를 되짚어 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구산선문 가운데 희양산문과 동리산문을 제외하고는 선문의 면모를 오늘까지 이어오고 있는 곳이 없어 안타까웠다. 현재 사자산문과 가지산문, 실상산문은 그 명맥은 이어오고 있으나 선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으며, 사굴산문, 봉림산문, 성주산문 등은 절터만 남아있어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한 구산선문의 복원이 시급함을 다시한번 실감케 했다. 더불어 남북분단으로 미처 찾아가지 못한 수미산문 광조사지는 통일된 그날, 다시 찾아갈 것을 기대한다.

마하몰 ... 새천년 맞이 추천 상품 특선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02) 732-1522 (직)
02) 737-8881
인터넷 주문: http://www.mahamall.co.kr

수암 만다라 옥침



수암만다라옥침은 두개의 회전구 표면에 각기 약 300여개의 뾰족한 옥침과 내부에 강력한 영구자석과 천연옥을 합성시켜 원적외선과 자기력을 발산하도록 만들어 졌다. 수암만다라옥침으로 손바닥의 경혈을 자극함으로 효과는 수지침과 동일하며 옥과 자력의 상승작용으로 그 효과를 더욱 높여준다.

■가 격 : 30,000원
■재 질 : 천연옥, 무독성ABS수지, 황동, 24K순금도금테, 헤라이트 반영구자석 1200가우스 X 4개

대나무 숯 염색천



신라시대 경주에서 숯불로 밥짓고 요리하고 염색한 옷을 해 입은 것은 사치가 아니라 숯의 원적외선, 음이온, 환원력 등을 활용한 기막힌 과학입니다. 이런 이론들을 근거로 하여 조금이나마 현대인들에게 대나무숯을 가까이 하끔 착안한 것이 숯 염색천 입니다. 숯 염색옷의 치료 예방효과가 특히 도시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이 천은 지리산 청학동에서 직접 만든 100% 수제품입니다.

■크기 : 44인치 X 5.5야드 ■색상 : 흑색/회색 ■가격 : 60,000원

바른자세 건강방석 참선명상방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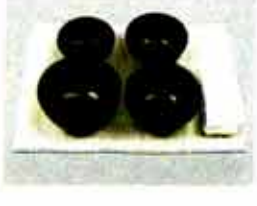


바른 자세가 건강한 정신과 편안한 마음을 만들니다.
현대인들의 척추보호 및 교정을 위하여, 오랫시간 참선이나 명상을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혁신적인 발명품.
이젠 바르게 허리펴고 건강하게 생활하십시오.

■가 격 : 27,000

사이즈 - 가로 43 cm× 세로39cm
실용신안 특허 공개 실 19998-025009
의장등록 출원 제 14387호

황토로 만든 수행자의 그릇 발우



여기 이 '황토 질그릇 발우'는 순수한 황토와 인체에 유해한 화공약품이 아닌 낙엽 태운 천연유약과 1300도 불의 조화로 형성된 투박하고 자연적인 옹기로써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
본 제품은 해인사 율원의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한 와발우(瓦鉢盂)이다.

■가격 4합 : 6만원 - 무게 2.7kg
2합 : 3만원 - 무게 1kg

화엄변상도(華嚴變相圖)



마하몰에서는 천여 년 동안 팔만대장경판과 함께 해인사 장경각에 소장되어온 고려불교 예술의 결정(結晶), 고려(高麗) 화엄변상도(華嚴變相圖) 전 80장 완본(完本)을 순한지인 영담선지(影潭韓紙)와 특수 인쇄기법으로 완벽하게 간행하여 불자 여러분께 권해드립니다. (규격 : 57.5 (가로) X 23cm (세로))

1. 다시 만나기 어려운 고려 화엄변상도 전80장 완본
2. 팔만대장경판과 함께 해인사 장경각 소장본 영인
3. 150여 페이지에 달하는 화엄변상도 해설 책자 증정 (前 해인사 講主, 現 해인사 總院長 宗眞스님 해설)
4. 진품한지의 맥을 이은 影潭스님이 제작한 최고의 순한지(純韓紙) 영담선지(影潭韓紙) 사용
5. 본 화엄변상도는 한지는 특지 또는 화엄변상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본 화엄경 변상도는 100세트 한정판입니다.

■가 격 : 각 330,000원

불 자 반 야 반 지



불자의 자긍심을 세겼습니다. 16개의 류빅은 보살의 16대력을 상징하며 태두리의 팔각은 팔정도의 수행을 의미 합니다.

■가 격 : 18K 130,000원
14K 120,000원
용 량 : 16개 류빅 / 금 1.5 돈

■팔정도
정견(正見), 정사유(正思惟), 정어(正語), 정업(正業), 정명(正命), 정정진(正正進), 정념(正念), 정정(正定)
■십육대륙력十六大力)
지력(志力), 의력(意力), 행력(行力), 참력(勤力), 강력(强力), 지력(持力), 혜력(慧力), 덕력(德力), 변력(辯力), 색력(色力), 신력(身力), 재력(財力), 심력(心力), 신족력(神足力), 홍법력(弘法力), 항마력(降魔力)
※호수에 맞게 제작하여 드립니다.